

〈SK그룹 회장〉

직원 납입액만큼 회사도 지원... 최태원의 '퇴직연금 실험'

SK이노 '행복나눔' 경영철학따라 국내 첫 '매칭 DC 연금제' 도입
월 20만원 납입엔 20만원 지원... 1회 성과급 포함 '節稅 효과'

	매칭형 DC	경영성과급 DC
개인 납입액	20만 원(월 1회)	DC 1%(연 1회)
회사 지원액	20만 원(월 1회)	경영성과급 10%(연 1회) 납입
퇴직연금제도 변경		

SK이노베이션이 회사와 직원이 함께 퇴직 후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미국 방식의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해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직원이 퇴직연금을 적립하는 만큼 회사가 매칭(Matching)해 지원하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도 세계 혜택이 가능한 퇴직연금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

8월 관련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계열사는 지난달부터 매칭 확정 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SK이노베이션이 도입한 매칭 DC는 개인이 월 1회 20만 원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하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이달부터 경영성과급 DC 제도도 도입했다. 경영성과급 DC 제도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경영성과급 DC 제도를 통해 연간 1회 경영성과급의 10%를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기업의 이윤에 따라 일시적이나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금액으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경영성과급을 퇴직 시 퇴직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퇴직소득세 적용으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사회보장료 등을 절감할 수 있다.

변경된 퇴직연금 제도는 구성원의 선택에 따라 적용된다. SK이노베이션이 이처럼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한 것은 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다.

노사가 지난 임금 합의 당시 무조건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임직원의 퇴직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을 고민해보자고 논의한 이후 연장선상에서 이 같은 제도를 내놓은 것이다.

매칭 DC 퇴직연금은 미국의 대다수 대기업이 도입한 제도이지만, 국내에 선 생소한 방식이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의 퇴직연금제도

변경은 최태원 SK 회장이 주장하는 '이해관계자의 행복 추구'와도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최 회장은 2016년 CEO 세미나 때 "우리가 행복하려면 고객, 주주, 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행복이 전제돼야 하고, 우리의 행복을 이들과 나누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SK그룹은 작년 그룹의 경영철학 및 기업문화를 '기업의 이윤추구'에서 '이해관계자의 행복' 중심으로 수정하며 SK 구성원과 고객, 주주, 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더욱 키우기 위해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미래가 열린다... 'CES 개막' D-1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8' 개막을 이틀 앞둔 7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관련기사 9·18면

與, 실명제後 차명주식 과징금 추진

'가액 50% 부과' 검토

여권이 이끄는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추가로 캐는 과정에서 다른 이들의 과거 차명주식 보유 사실도 밝혀냈다. 금융실명제 도입된 지 한참 뒤인 2008년 이후 48개 기업에서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개선 TF'에 따르면, 10년 전인 2008년 이후 차명주식이 실명전환된 사례는 총 48건으로 전환액이 1조 9329억 원에 달했다. ▶관련기사 3면

2009년 삼성전자는 차명주식 224만5525주를, 삼성SDI는 39만9371주를 각각 실명전환했다. 각각 1조733억 원, 255억 원이었다. 2013년에는 남양유업이 19만8188주(1833억 원), 2015년엔 신세계가 17만4899주(411억 원), 이마트도 25만8499주(558억 원)를 각각 실명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차명주식 보유가 적발돼 금융감독원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기업 모두에 대해서도 금융권이 자문 공시 의무 위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TF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있어선

2008년 조준웅 특별감사팀이 밝혀낸 1197개 외에 32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확인된 차명계좌만 1229개로, 이 중 1202개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1993년 8월 이후 만들어졌다.

TF는 이렇듯 차명계좌 개설을 금지한 금융실명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도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보고 보완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실명법 도입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과 마찬가지로, 실명제 도입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안이 유력하다. 민주당 구상인 법제화되면, 실명제 도입 후 만든 차명계좌가 들끓던다면 '가액 50% 과징금'에 현행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90% 세율의 소득세'까지 물어야 한다.

TF 단장인 민병두 의원 측은 "과징금 부과 시 기산점을 언제로 할지 등 검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고 했다.

TF는 금융실명법에 더해 상속증여세법도 손질하기로 했다. 예컨대 이건희 회장이 임원 등의 명의로 만든 차명계좌 잔액을 이재용 부회장에 물려줘 실소유주가 바뀌었다면, 이 계좌에 아무 변동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증여가 발생했다고 간주해 증여세를 매기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미영 기자 bomnal@

"알바 대신 無人주유소... 최저임금제, 일터만 깎았다"

인터뷰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

"올해 직접 주유하고 직접 결제하는 셀프 주유소로 전환되는 주유소가 전체 1만3000곳 중 약 3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를 줄여야 하는 탓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결국 피해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이나 고령 근로자 등 취약 취약계층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5일 이투데이와 만나 "고용불안은 커지고 근로자의 삶의 질은 떨어지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16.4% 인상된 지 일주일 만에 지났다. 인건비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은 신규 채용을 보류하고 주유소를 비롯해 편의점·PC방·영세 식당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기존 인력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명분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었지만 정작 정책이 시행되자 비

과도한 인상률로 인건비 부담 올해 주유소 30% '셀프' 전환 영업 못하는 업소도 늘어나며 취약 취약계층·소비자 피해로 정치 논리로 접근한 제도 비판

정규직, 아르바이트생, 영세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

김 회장은 "주유소 업계에서는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이후부터 셀프 주유소 전환을 심하게 고려해왔고, 올해까지 3000개 이상의 주유소가 셀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셀프 전환에 드는 1억 원 정도의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업소들은 무급 가족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손님이 적은 취약 시간대에는 영업하지 않는 주유소가 늘어나 불평은 결국 소비자 몫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역풍'을 보여주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는 또 하나의 단면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기도 한 김 회장은 "최저임금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영세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존과 직결되

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우리 경제 규모나 소상공인·영세 사업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30년 미만 고용 사업주 가운데서도 4대 보험에 가입된 월급 190만 원의 근로자를 고용해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은 실제로 많지 않다"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주유소만 하더라도 직원 월급이 200만 원을 넘어가는 데다 고용 인원의 30%는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 특근수당,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업종에 따라 노동 강도가 다르고 지역별로 생계비 기준이 천차만별인 만큼 똑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최저임금 구조도 분명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민정 기자 puri21@

국세청, LG 오너家로 세무조사 확대 주식변동·내부거래 등 '현미경 검증'

국세청이 LG그룹 계열사들의 주식 이동과 관련해 오너일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달 초 LG상사를 상대로 심층(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이와는 별개로 구분준 부회장과 구분부 LG그룹 회장의 외아들 구광모 LG전자 상무, 장녀 구연경 씨 등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구인회 LG그룹 창업회장의 셋째 딸인 구자영 씨와 구분호 전 판토스 부사장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8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LG상사와 오너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최근 수년간 이뤄진 주식 변동과 내부거래 현황 등을 정밀 검증하고 있다.

최근 LG그룹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된 LG상사의 경우 그간 일괄 몰아주기 논란과 역외 탈세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LG상사 자회사인 판토스 지분은 LG상사 51%, 구상무(7.5%) 등 오너일가 4세 지분이 19.9%에 이르고 있고, LG그룹은 지난해 계열사를 통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판토스에 지원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아울러 LG상사는 자회사 판토스를 통해 조세피난처인 파나마에 손회사 PANTOS LOGISTICS PANAMA S'를 설립, 역외 탈세 부분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구 부회장 등 오너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분 이동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구분부 LG그룹 회장의 고모이자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의 부인인 구자영 씨는 지난해 11월(5만500주)과 12월(7만1000주) 두 차례에 걸쳐 그룹 지주사인 (주)LG 주식 총 12만1500주를 장내 매도한 바 있다. 구광모 상무는

2004년 (주)LG 지분이 0.26%에 불과했지만, 매년 지분율을 확대해 온 결과 현재 6.24%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아버지인 구분부 회장(1.28%)과 구분준 부회장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분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정 기업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며 구분부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주주 간 주식 이동 현황은 물론 거래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60여 명을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 내 LG상사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 회계장부 등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가져갔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코리아 리스트럭처
외교 다변화 나선 文정부

갤럭시 A8 vs V30 라즈베리 로즈
美 CES서 붙은 삼성-LG

"몰라서 막는 핀테크, 답답"
유중원 와이어바일리 대표

모바일로 보는 이투데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전용)



정준반란 ②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

“돈놀이하나?...P2P사업에 오해도”

“사업 준비요? 그런 거 없었어요. 오히려 필요한 게 뭔지 너무 몰랐어요. 창업에 대해 질문하는 분들에게 해야 할 일을 찾고 실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하죠.(웃음)”

서상훈(28·사진)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4일 창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P2P대출 기업 어니스트펀드는 지난해 말 누적 거래액이 700억 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지난해 9월에는 신규 거래액이 100억 원을 넘어 2015년 사업 시작 이후 일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스팸메일로 동문에게 = 서상훈 대표는 너무 준비 없이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했다. 서울대 동문에게 홍보성 이메일을 무단으로 배포해 곤혹을 치렀던 일은 얼마나 준비가 미흡했던가를 잘 보여준 사건이다. 2015년 서 대표와 동문 친구들이 의기 투합해 창업에 나섰다. 정작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는 ‘가족들은 말리기보단 걱정을 더 많이 했다. 최근에 부모님으로부터 당시에 몹시 불안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서 대표는 항상 자신의 선택을 지지하고 조언해 준 부모님께 감사함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부모님은 자식을 무조건 믿어 주신다”며 “방향 결정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기보다 결정한 이후에 조언을 듣는다”고 했다.

가족의 지지가 힘이 된 반면, 생소한 사업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지인들도 꽤 있었다고 한다. 당시 P2P중개사업을 하려면 대부업종을 등록해야 했다. 서 대표는 “모임에 가면 ‘돈 보고만 사업하느냐’, ‘돈놀이 하나냐’ 등 불편한

말을 많이 들었다”고 했다. 사실 주변의 비난이 사업에 걸림돌은 아니었다.

서 대표는 “지인들의 편견만으로 끝나면 다행이다. 인력 채용에 회사 이미지가 중요했다”며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보고 왔는데, 대부업이었다며 실망하는 채용자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또 “지금은 몰라보게 회사나 업계의 위상이 달라졌다. 대기업 경력을 가진 지원자뿐 아니라, 내부 직원에게 입사 요청도 심심찮게 들어온다”며 달라진 분위기를 설명했다. ◇글로벌 핀테크 기업인 꿈 = 서 대표는 어니스트펀드를 세계적 투자금융사인 골드만삭스와 같은 거대 금융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꿈이다. 서 대표는 골드만삭스의 경쟁력이 단순한 전통적 금융의 고수가 아니라 금융과 기술의 적절한 조합을 이룬 기업으로 봤다.

서 대표는 “골드만삭스는 어떤 기업보다 기술 전문가가 많다”며 “금융과 정보기술(IT)을 결합한 핀테크 기반의 종합금융사가 되고 있

지나해 누적거래액 700억 규모 성장 세계적인 IB ‘골드만삭스’가 톱모델 고객 수익 더 늘려줄 상품개발 최선

어 우리의 지향점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객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서 대표는 이미 업계에서 상품 개발 면에 선 앞서 있다고 자부한다.

서 대표는 “다양한 고객이 대출이든 투자든, 우리 회사에서 제일 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어니스트펀드의 경영전략에서도 나타난다. 어니스트펀드는 신용대출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법인담보대출, 부실채권(NPC) 담보대출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서 대표는 “앞으로 더욱 강화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할 계획이다. 그에게 매일 자정에서 새벽 3시까지의 온전히 공부하는 시간이다. 서 대표는 “올해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것”이라며 “필요한 모든 분야를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하면 더더욱 성장할 것으로 믿는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우람 기자 hura@



2015년 同門 친구들과 무작정 창업 생소한 P2P중개사업에 주면서 걱정 무단으로 홍보성 메일 보내다 곤혹도

있을까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다. 그러던 중 마케팅을 담당했던 멤버가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에서 이메일 주소를 받아, 홍보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 결정은 서 대표를 비롯해 창업 멤버 모두가 함께 했다. 의기 투합해 했던 일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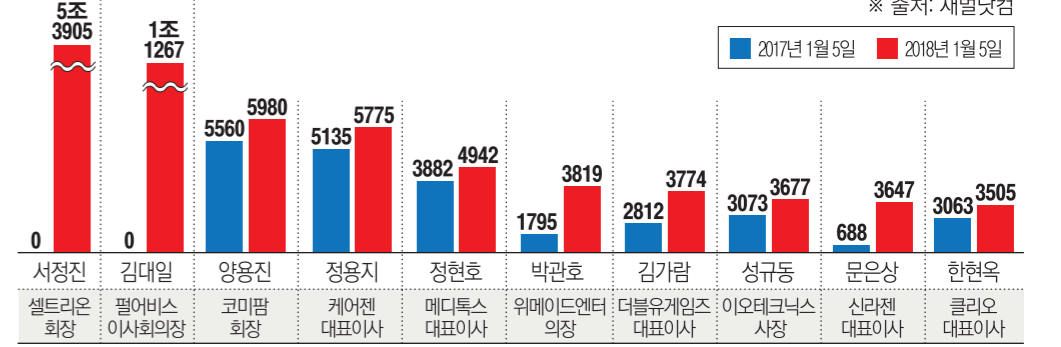
“다단계 홍보 아니냐”, “사기꾼으로 보인다”, “대체 우리 학교 졸업생이 맞냐”...

홍보 메일에 불쾌하다는 동문의 항의가 이어졌고, 급기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까지 들어갔다. 다행히 스타트업인 점이 참작돼 진술서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서 대표는 “홍보성 메일을 보내려면 우선 수신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더라도 광고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했다”며 “팁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런저런 사업 구상을 하느라 너무 기본적인 부분을 놓쳤다”고 고백했다.

◇주변 걱정 기본...‘돈놀이’ 비아냥까지 =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겪었을 듯한 가족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서 대표도 맞닥뜨렸다. 서 대표

코스닥 상장주식 자산 규모 상위 10위 (단위: 억 원, %)



덩치 키운 코스닥 주식 富豪들 서정진, 최태원·정몽구 제쳤다

〈셀트리온 회장〉

상장주 5.4兆 코스닥 1위·주식시장 4위 1000억 이상 코스닥 부호 67명 63.4%↑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상장 주식 자산 규모가 국내 대표 그룹 총수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추월했다. 코스닥 주식 부호의 덩치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을 시사하는 사안으로서 주목된다.

8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주식 자산 1000억 원 이상 보유한 주식 부호는 67명(5일 종가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41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년여 만에 63.4%가 늘어난 것. 특히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상장 주식 자산 규모 5조3905억 원을 기록해 코스닥 주식 부호 1위에 오른 것은 물론, 코스피를 포함한 전체 주식 부호 순위에서도 최태원 SK그룹 회장(4조7533억 원)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4조6123억 원)을 제치고 4위에 올랐다.

서 회장보다 많은 상장 주식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이준희 삼성전자 회장(1조8704억 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1조211억 원), 서경배 아모레

퍼시픽그룹 회장(8조564억 원) 등 3명에 불과했다. 서 회장은 지난해 코스닥에 상장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분 35.72%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의 주가는 5일 10만9000원을 기록, 지난해 7월 28일 상장 첫날 종가보다 두 배 이상 올랐다. 셀트리온(시총 32조7397억 원)이 다음 달 예정대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면, 현재 2위인 셀트리온헬스케어(시총 14조9699억 원)가 코스닥 대장주로 새롭게 등극할 전망이다.

코스닥 주식 부호 2위는 지난해 신규 상장한 게임업체 필리버스의 지분 37.35%를 보유한 김대일 이사회의장이다. 김 의장의 주식 자산 규모는 1조1267억 원이다. 이어 양용진 코미팜 회장(5980억 원), 정용지 케이젠 대표이사(5775억 원),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4942억 원) 등 바이오 벤처 대주주 3명이 나란히 3~5위에 이름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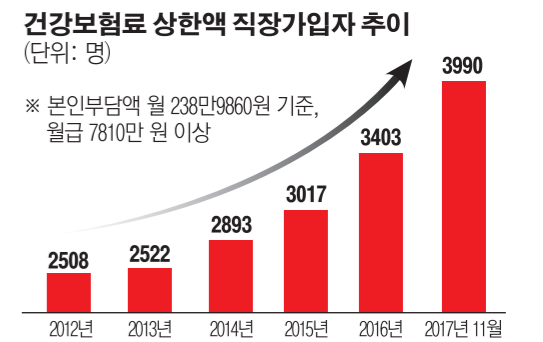
박관호 위메이드 이사회의장은 3819억 원, 김가람 더블유게인즈 대표이사는 3774억 원을 보유해 각각 6위와 7위에 올랐다. 이어 3677억 원을 소유한 성규동 이오테크닉스 사장이 그 뒤를 이었다. 이민호 기자 minor3032@

데이터 뉴스 Data News

건보료 상한액 부담하는 '781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 4000명 육박

월급만 7810만 원 이상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이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매기는 월 최고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월 238만9860원)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7년 11월 기준 399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1682만2000명의 0.023%에 해당한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2508명, 2013년 2522명, 2014년 2893명, 2015년 3017명, 2016년 3403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국제통계기계를 보면, 연봉 1억 원이 넘는 근로자는 2011년 36만2000명에서 매년 늘어 2016년 60만 명을 넘어섰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월 227만7320



원)을 내는 지역가입자도 2012년 359명에서 2017년 11월 기준 724명 등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7월부터 월 보수 7810만 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309만 7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박은평 기자 pepe@

“우리에는 한 시간을 못 앉아 있어요.”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고...”

“짜증만 늘고 자꾸 딴 짓만 해요.”

피로가 쌓이면 집중력도 떨어지니까

신원의 상징-버들표 유원양향

高함량 포커스비타민 메가트루 포커스정 Focus

·눈의 건조함을 완화해주는 비타민 A(베타카로틴) ·햇빛을 피기 어려운 실내생활로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D

·베타타이민 성분으로 8배 더 높은 흡수율의 비타민 B ·갈슘, 아연, 마그네슘과 생약성분인 로얄젤리 함유

高함량 포커스비타민으로 피로회복부터 빠르게!

피로회복/체력저하/눈의 피로-건조감/성장기비타민D-칼슘-아연 보충/구내염, 아가레염

高함량 포커스비타민 메가트루 포커스정 Focus

·눈의 건조함을 완화해주는 비타민 A(베타카로틴) ·햇빛을 피기 어려운 실내생활로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D

·베타타이민 성분으로 8배 더 높은 흡수율의 비타민 B ·갈슘, 아연, 마그네슘과 생약성분인 로얄젤리 함유

공시일자	보고자	대상회사	시장	보고사유	실명전환 주식수	상장주식 수 대비	공시일 증가
2017년 3월 3일	윤동한	한국콜마	유가	실명전환	30,500	0.14%	69,000
2017년 3월 31일	장상돈	KISCO홀딩스	유가	실명전환	112,393	3.04%	62,400
2017년 3월 31일	장상돈	한국철강	유가	실명전환	202,355	2.20%	39,450
2017년 6월 7일	하중식	한국정밀기계	코스닥	실명전환	1,331,000	15.84%	3,890
2017년 6월 16일	박재규	동아엘텍	코스닥	실명전환	314,310	3.17%	23,400
2017년 7월 28일	김호연	빙그레	유가	실명전환	294,070	2.99%	67,800
2017년 9월 29일	이희철	경남제약	코스닥	실명전환	1,548,418	13.77%	8,550
2017년 10월 31일	윤성태	휴온스글로벌	코스닥	실명전환	369,029	3.72%	40,421
2017년 10월 31일	(주)휴온스글로벌	휴온스	코스닥	실명전환	407,147	6.58%	61,011
2017년 11월 8일	오수진	경남제약	코스닥	실명전환	1,548,418	13.77%	11,250

수백억대 借名주식 밝혀져도 '솜방망이' 징계

금감원 '5%룰' 위반 제재는 허울뿐?

이명희 신세계 회장은 2015년 약 800억 원어치의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금융감독원은 '경고'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정밀기계와 경남제약은 지난해 시가총액 10%를 넘는 규모의 주식이 차명에서 실명으로 전환했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수십 년간 최대주주라며 금감원에 신고해 오던 사람이 한순간에 '가짜 주인'임이 드러났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범상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 800억 차명주식 금감원 제재는 '경고' 조치에 그쳐 작년에도 전체주식 1% 넘게 실명전환 조사 나선 건 김호연 빙그레 회장뿐 민주당 "금융당국, 감사원 감사할"

는 것이다. 해당 유권해석들은 현행 금융실명법이나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서 "차명계좌도 차등과 세 대상이다"라고 밝히는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전문 변호사는 "과징금이 나 세금 추징 어부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부분이 더 커보이지만 '5% 룰' 위반에 대한 금감원의 들쭉날쭉한 징계는 당장 기준선을 제시하고 전수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차명주식 실명전환 솜방망이 처벌 =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TF'에 따르면 2008년 이후 1조9329억 원 규모의 주식이 차명에서 실명으로 전환됐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통틀어 53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금감원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제대로 경징계에 그쳤다.

금감원이 이명희 회장에 대해 '경고' 조치한 이유는, 허위공시였지만 차명으로 보유한 지분 규모가 1% 내로 작고 경영권 방어 수단이나 주가 조작 등에 이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차명주식 규모는 신세계 9만1296주(0.92%), 이마트 25만8499주(0.93%), 신세계푸드 2만9938주(0.77%) 등 총 37만9733주(약 827억 원어치)다. 그러나 15%가 넘는 지분 변동이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등장한 차명주식에 대해 금감원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지난 한 해 동안 8개 기업이 5% 이상 대량 보유자가 전체 주식의 1%가 넘는 규모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다며 공시했다. 이 중 금감원이 조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사례는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차명주식 사례뿐이다. 실명전환된 주식 규모는 전체 주식 수 대비 2.99%지만 공시일 증가 기준으로 199억 원 규모에 달했다. 빙그레에 대한 금감원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량주식 보유자가 실명전환으로 1% 이상 보유량 변동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그간 허위공시 부분에 대해 조사 대상"이라며 "사안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내부 기준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하중식 한국정밀기계 대표는 그간 하정자·반규·수형지형 등 친인척이 보유하던 차명주식 133만1000주를 실명전환했다. 이는 한국정밀기계 전체 상장주식의 15.84%에 달하는 규모지만, 별다른 조사나 징계를 받지 않았다. 그간 친인척들은 특수관계자로 사업보고서에 지속적으로 보유 현황을 공시해 왔다.

◇민주당 TF "금융당국 감사원 감사받아" = 이번 조사를 진행한 민주당 TF는 금융당국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자체가 그간 '허위공시'임을 드러낸 것임에도 제대로 된 조사와 제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TF가 밝힌 53건 사례 중에서도 공시의 무 위반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된 사례는 신세계와 롯데관광개발, 삼성전자, 빙그레 등 유명 기업 사례 소수에 불과하다.

경남제약 역시 이희철 전 대표이사과 부인인 오수진 씨가 함께 최대주주로서 지속적으로 주식 보유량 변동에 대해 공시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이전 대표는 오 씨가 보유한 주식의 실명인이 자신이라며 상장주식수의 13.77%에 달하는 주식을 실명전환해 단독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는 당시 주가로 132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이 공시 이후 경남제약은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불거지며 주가가 급상승하기도 했다.

특히 금감원 경고를 받은 이명희 회장 사례뿐만 아니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논란에서도 과징금은 물론 차등과세조차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금융당국이 이 부분과 관련해 근거로 삼은 2008년과 2009년 유권해석이 나오게 된 경위를 추적해 봐야 한다

'매칭형 퇴직연금'은

美 등 선진국에선 普遍化... 도입 기업에 법인세 공제

SK이노베이션이 선제적으로 도입한 매칭형 퇴직연금 제도는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선 보편화된 제도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정해진 퇴직금을 받는 확정급여형(DB)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매칭형 제도는 아직 생소한 상황이다.

근로자가 원금보장에 충실한 DB형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국내 퇴직연금 제도 중 DC형과 비슷한 401K 제도를 대부분이 선택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2009년 401K 자동가입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의 401K형 가입이 증가했다. 401K는 근로자가 매월 소득의 일정금액을 회사가 설립한 연금 기금에 적립하면 세금공제와 회사의 매칭 혜택이 주어진다. 근로자는 연간 1만7000달러 이내로, 납입액과 수익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가 적립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3~6%)을 지원한다. 정부는 근로자들에게 매칭 혜택을 지원하는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 공제라는 혜택을 마련해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국내에선 2005년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됐다. 근로자는 재직 중에 DB, 확정급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에 선택할 수 있다. DB형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DC형은 회사가 근로자 퇴직급여계좌에 매년 일정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며, IRP형은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기존 퇴직연금 외에 추가로 비용을 적립해 운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약 70% 이상의

국내에서는 아직 미국의 401K 제도와 같은 DC형이 퇴직연금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SK이노베이션의 퇴직연금 매칭 제도 도입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임직원의 퇴직연금을 급여로 지원하는 경우는 있지만, 매칭형 제도를 도입하며 본격적으로 노후 대비책을 같이 마련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선진국형 제도 도입은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차명주식 논란 일지

- 2015년 5월**
 - 국세청, 신세계와 이마트 등 세무조사
- 10월**
 - 국회 국정감사서 이 회장 차명주식 보유 의혹 제기
- 11월**
 - 국세청, 세무조사 완료 및 추징금 통보
 - 금감원, 공시 의무 위반 여부 조사
- 2016년 3월**
 - 금감원, 이 회장과 구학서 고문에 '경고' 처분

“차명계좌,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 허용 ‘열거주의’로 바꿔야”

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개선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민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법에선 선의의 차명계좌와 불법 목적의 차명계좌를 구분하다 보니 모든 차명계좌를 원천금지할 수 없다. 그 틈을 타고 계속 (불법 차명계좌가) 빠져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를 발려준 사람 모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는 “불법 목적의 차명계좌를 명의인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2014년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은행 등에서 5만 원권으로 현금 인출된 금액만 24조 원에 달했다”며 “TF에서 밝힌 것처럼 최근에도 차명주식이 실명전환된 경우가 꽤 많고 금액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개선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민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법에선 선의의 차명계좌와 불법 목적의 차명계좌를 구분하다 보니 모든 차명계좌를 원천금지할 수 없다. 그 틈을 타고 계속 (불법 차명계좌가) 빠져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금융당국이나 과세당국이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봤는지 의문”이라며 “우리가 일일이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TF 활동은 당국에 제대로 된 대응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창회, 세벳 등 특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열거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금융당국에서 예외 경우를 모두 고려하기 어렵고 예외를 많이 열거할수록 법의 안정성이 흔들린다고 해 중간에서 타협하고 말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그간 차명계좌 문제를 끈질기게 묻고 늘어져 왔다. 2014년엔 차명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불법 목적으로 만든 차명계좌가 적발되면 계좌의 실소유주와 명의 고 거듭 밝혔다. 김미영 기자 bomnal@

김미영 기자 bomnal@ 정다운 기자 gamja@

Sulwhasoo

Sulwhasoo
MEN
INNER CHARGING SERUM
본윤에센스

부드러움 속에 흐르는 강인함,
독보적인 격을 지니다

설화수 맨 본윤에센스

나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남자의 피부는 근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설화수의 안티에이징 정수가 담긴 정량단위 피부 본연의 힘을 길러
주름, 탄력, 칙칙함을 한번에 케어해주는 설화수 맨 본윤에센스.
시간 앞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남자의 피부를 완성해드립니다.

• 설화수 플렉스스토퍼 및 진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링룸 등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텔레그램: 02-541-9270 • 고객센터: 090-023-5454 (수신료 포함)

가상화폐 課稅 ‘법인·양도세’ 무게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사전브리핑
기재부·국세청·관련 전문가 TF 협의서 “현행법으로 가능” 판단
양도소득세 적용은 별도 입법 필요...거래·稅源 포착 방안 검토 중
4월부터 多주택자 최고 62% 양도세 부과...‘지방 3억 이하’ 예외**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가상화폐 과세를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한 정부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에 무게를 두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사전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과세는 국세청, 관련 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해서 최근 1차 협의를 마쳤다”며 “법인세 등처럼 기본적으로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다만 (과세 시 자산) 평가 문제가 있어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완해야 한다”면서

“양도소득세처럼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타당하지 검토를 하고 입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를 포착해야 한다”며 “세원을 포착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비해 거래 실명제를 발표, 금융기관에 가상계좌 실명 확인 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TF 협의를 통해 법인세와 양도세가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구체적인 과세 방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조치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4월부터 다주택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초과한다. 현재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양도세 증가가 이뤄지면 세율은 16~62%까지 오르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기장, 부산진구 등 40곳이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 근무사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산 집을 팔 경우 양도세 증가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조건이 붙는다.

또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일괄 50%의 양도세를 적용한다. 무주택자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제외된다.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은 다른 상속재산으로 세금 납부가 불가능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남북 고위급회담
내일 판문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영규 통일부 장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반도체에 쏠린 수출구조, 外部 충격에 취약

산업연구원 보고서...수출 편중도 2.5로 美 2.01·日 2.08보다 크게 높아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수출 품목 쏠림 현상'이 심해 글로벌 경기 변화 등 대외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등 효자 품목 외에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은 품목으로 제품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산업연구원(산연)이 발표한 '수출 편중도의 국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 편중도는 2015년 기준 2.5로 집계됐다. 이는 경쟁국의 2.0~2.1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LCD), 휴대폰 등 IT 산업과 철강·조선·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이 주력 수출 품목이다. 수출 편중도는 2008년(2.68)

보다 약간 낮아졌지만, 여전히 일본은(2.08)·중국(2.02)·미국(2.01)과 격차가 컸다.

산업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수출 편중도가 높으면 수출 변동성도 커진다고 분석했다. 특히 산업용 중간재나 자본재 같은 상품은 소비재보다 수급 관련 충격에 민감하다.

민감 품목에 국한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 변동성은 경쟁국보다 5~10%포인트(p) 높았다. 민감 품목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중간재 산업의 수출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은 2011년 이후 경쟁국보다 민감 품목의 비중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5739억 달러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고, 반도체는 979억4000만 달러로 단일 품목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액 9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11~12% 선을 유지하다 2017년엔 17%까지 치솟았다.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도 대형 우량 수출품목(블루칩)에 수출이 집중된 선진 무역국처럼 수출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국내 우량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해 수출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과 국제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우진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사실상 한 나라의 수출 경쟁력은 상위 10%의 품목을 얼마나 경쟁력이 강한 상품으로 수출 바스켓을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박엘리 기자 ellee@

“휴가씨라” 등떠미는 김동연 부총리 “그렇다고 날짜까지...” 현장선 불만

**예산실·세제실 직원들 局단위로
일괄적으로 사용 ‘셋다운제’ 시행
다른 날에 계획 잡아놨는데...
“취직 좋지만 효율성 떨어져” 지적**



김동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를 방문, 소상공인 사장님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물을 직접 나눠주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중한 업무로 제대로 휴가를 쓰지 못하는 직원들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가 일선 현장에서는 오히려 불만을 키우고 있다. 취직에는 공감하지만 휴가기간을 강제하는 등 지시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8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기획재정부 예산실·세제실 직원들이 국별로 모두 휴가를 가는 셋다운(폐쇄)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김 부총리의 지시로 이뤄졌다.

이날 역시 예산실 산하 사회예산심의관 소속 4개과 직원 30여 명이 5일부터 일제히 연차 휴가를 냈다. 중간에 긴 주말까지 연속해서 4일을 쉬는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예산실 밑에 있는 복지예산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 등 ‘국’ 단위 조직이 주별로 연차를 쓴다. 지난달과 이달 국별로 하루씩 셋다운에 나선 세제실에서는 이날 소득법인세정책관과 재산소비세정책관이 단태로 쉬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지난해 여름부터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휴가는커녕 주말에도 일한 직원들의 휴식을 보장하지는 취지다. 기재부의 1월은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비수기에 속한다.

하지만 날짜를 강제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크다. 예산실 A사무관은 “다른 날에 휴가를 가려고 계획까지 다 짜놨는데 날짜를 강

제해서 휴가를 가게 해서 못 가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토요일은 업무관련 전화나 카톡을 금지하고 최근에는 과별로 추가근무 시간을 줄이라는 지시가 내려졌지만 벌써 지키지 못할 지시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여름 김 부총리가 자신의 지시와 어긋나게 휴가기간에 서울청사로 출근해 업무를 보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산실 직원들이 예산실을 떠나려는 엑소더스(탈출)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 실·국이나 아예 타 부처로 진출을 요구하는 공무원이 늘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김동연 부총리가 오고 지난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예산실이 밤샘근무를 하루밖에 안 했다”며 “예산실장 출신이라 개선을 많이 하려고는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을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객도훈 기자 sogood@

민주당, 본격 지방선거 준비 ‘후보자검증쫓’ 출범

靑 ‘7대 배제 원칙’ 적용... 민주당원도 중순부터 전국순회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준비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공식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 연초부터 선거 대비에 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공식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중앙당 공식선거 후보자 검증위는 시·도지사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할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구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선거일 150일(1월 14일) 전 예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절차에 따라 진행할 방침”이라면서 “지방선거 공천에 청와대의 7대 인사 배제 원칙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고위공직후보자 7대 인사검증 기준

은 △병역면탈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이다.

민주당은 또 이달 중·하순께 지방선거기획단을 지방선거대책본부(가칭)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지방선거대책본부는 산하에 전략, 정책, 공약, 홍보 등을 담당하는 하부 조직을 둘 예정이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당연구원도 16일(인천)부터 다음 달 8일(서울)까지 전국을 돌면서 정부·여당의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 여론을 청취하는 ‘한 걸음 더, 경청 투어’를 진행한다.

김민석 민주당연구원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걸음 더, 경청 투어’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소개하면서 “2017년 촛불이 대통령을 바꿨다면 이제는 중앙권력 교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할 때”라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UAE 의혹 열쇠’ 칼둔 행정청장에 쏠린 눈

1박2일 訪韓 일정 돌입...文대통령·任실장 면담? 靑 “확인 불가”

칼둔 칼리달 알 무바라크(사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8일 오전 9시께 전용기 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해 1박 2일간의 방문 일정을 본격 돌입했다. 총리직인 칼둔 청장은 아부다비의 실질적 통치자인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제의 최측근이자 아부다비 국영 투자공사 무바달라 개발 CEO와 UAE 원자력공사(ENEC)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다. 특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UAE에 방문해 모하메드 왕세제를 만났을 때 배석한 인물이다. 따라서 칼둔 청장의 이번 방문으로 그동안 야당과 일부 언론이 제기한 임 실장의 UAE행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없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칼둔 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문 대통령과 임 실장을 청와대에서 면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8일 오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을 비공개로 예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청의 장 면담은 지난해 4월 정 의장이 UAE를 방문해 모하메드 왕세제를 면담한 것에 대한 답례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칼둔 청장은 산업계 고위관계자와도 면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칼둔 청장의 방한에서 주목할 점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뤄진다면 양국 간 교류·협력 강화와 관련해 어떤 얘기가 오갈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모하메드 왕세제와의 통화에서 바라카 원전 1호기 준공식 참석을 요청받은 바 있어 이에 따른 UAE 방문 일정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칼둔 청장과 관련한 어떤 사항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왕정국가 특성상 사전에 공개하고 일정을 수행하는 문화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임 실장의 문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지난달 모하메드 왕세제를 만난 것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외교관례상 만난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내세워 의혹 확산이 커졌다. 청와대는 단순히 UAE에 파견된 한국군 특수전사령부 부대인 아크부대 장병 격려차 방문 중 만난 것뿐이라는 말만 되풀이 해 왔다.

이에 대해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새 정부 탈원전 문제로 UAE의 항의로 임 실장이 급히 모하메드 왕세제를 면담했다는 설과 전임 정부의 UAE 원전 수출 이번 합의로 맺은 군사·국방 부문 양해각서(MOU)에 문제가 있어 방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칼둔 청장의 방한으로 이러한 의혹들이 해소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신동민 기자 lawsdm@

선거제도개혁안 도출 超黨모임 ‘민심연대’ 활동 시작

국회발(發) 개혁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 도출을 위한 여야 5당 의원 모임인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민심연대)’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현재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6월 말까지 특위활동을 연장하고 개헌안 마련을 위해 조율 중이다. 이에 초당(超黨) 모임인 민심연대에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민심연대는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광호 법제국장과 국회 개헌특위 한공식 수석 전문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선거제도 개편안을 살펴봤다. 또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개혁 방안과 선거제도 쟁점들을 훑었다. 이어진 의원 토론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안과 선거권 연령, 권력구조 개편, 개헌 시기 등 선거제도 및 개헌 관련 주제토론이 이어졌다.

현재 개헌·정치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국회 개헌안 도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견 차이가 단일 개헌안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민심연대 역시 이 같은 국회 상황을 극복하고자 조직됐다. 하지만 비공식적 의원 모임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질지는 의문이 뒤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민심연대 소속 한국당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개헌특위는) 공식적이지만 이쪽(민심연대)은 허심탄회한 비공식적인 자리 아니까 (단일 개헌안 관련) 논의가 더 활발할 수 있다”면서 “결실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어 “한국당은 (개헌과 관련해) 구체적인 당론과 의견이 불분명하다”며 “(모임에 참석해) 얘기를 좀 더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심연대는 민주당 8명·한국당 2명·국민의당 7명·바른정당 5명·정의당 3명 등 총 25명의 의원이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 27일 발족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4강외교’ 정상궤도 복원... 新북방·新남방정책 ‘경제외교’ 속도

코리아 리스트럭처

외교 다변화 나선 문재인정부

문재인 정부의 새 외교정책의 핵심은 4강 외교 복원과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통한 외교 다변화로의 패러다임 변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 외교 중심에서 탈피해 다자 간 외교로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균형외교론’을 강조해 왔다. 실제 지난해 문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6월 미국 순방을 시작으로 12월 중국 국빈방문까지 숨 가쁜 해외순방을 다니며 소원했던 4강 외교 복원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7개 국가를 순방했고 정상회담만 40차례 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특히 러시아 순방에서 신(新)북방정책 선언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에서 신(新)남방정책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어 균형외교를 향한 대장정에 올랐다.

◇숨 가쁜 4강 외교 복원... 한·일 관계 아직 평행선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소원해진 4강 외교를 되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미국의 전쟁 가능성이 고조되자 문 대통령은 역대 정권 중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고, ‘한·미 공동성명’을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해 해안 새 차례 정상회담을 한 점에서 한·미 관계 복원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었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세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결국 걸고 러웠던 사드 문제를 풀고 중국과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서먹했던 한·러 관계를 복원한 것도 지난해 큰 성과 중의 하나다. 하지만 일본 아베 총리와의 두

‘4강 정상외교’ 지난해 10차례

‘韓美 공동성명’ 굳건한 동맹 재확인

中 사드 갈등 봉합·러 관계개선 성과
日, 위안부 합의 문제로 여전히 ‘평행선’

‘신북방·신남방정책’ 외교영토 확장

유라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 활성화

南·北·러 3각 협력사업 협의도 재개

“아세안은 새 번영축” 투자확대 나서

차례 정상회담을 했지만,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로 여전히 한·일 관계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한·일 경제협력 관계 복원을 별개로 다루는 사드 문제처럼 두 트랙 전략으로 관계 개선을 모색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아베 총리와의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다.

이 같은 4강 외교 복원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로부터 인계받은 외교 환경을 볼 때 그 어느 정권 교체기보다 어려웠지만, 4강 정상외교를 통해 공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말한 바 있다.

◇신북방정책 선언... 갈 길 멀어 =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7일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신북방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러시아·중앙아시아·몽골·중국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교통·물류·에너지·인프라를 연계해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찾겠다는 신북방정책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9개의 다리(9-Bridges 전략)를 놓아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뤄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9개의 다리는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일자리, 농업, 수산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당시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유라시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가스관과 전력망, 한반도중단철도(TKR)·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등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에 대한 협의 재개 등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은 본격적인 뜻을 달고 출항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캅카스 지역, 우크라이나

등 CIS 국가들, 몽골, 중국의 동북 3성 등 성장 가능성이 큰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해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주축으로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간사로 참여해 문 대통령 임기 내 신북방정책 지도의 큰 틀을 완성할 예정이다.

◇신남방정책 본격 향해... 3P 투자전략으로 승부수 던져 =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세안 주요국(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순방에서 ‘신남

방정책’을 선언하고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 한국 경제의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역대 정부의 단순한 외교국으로 본 아세안을 하나의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보고 동반자로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전략이다.

아세안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총 10개국이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는 2016년 기준으로 6억3900만 명에 달하지만 평균 연령이 28세로 미래 성장성이 가장 큰 대공통체다.

아세안 순방 당시 김현철 보좌관은 “현 정부 대외 기조의 종축은 ‘평화축’이며 횡축은 ‘번영축’”이라며 “아세안은 바로 새로운 번영축에 속한다”고 밝혔듯이 아세안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외교 대상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아세안 투자 전략은 ‘피플(People)·상생번영(Prosperity)·평화(Peace)’라는 3P 전략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순방에서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 공동체’, 안보협력을 통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 공동체’,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잘사는 ‘상생번영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신동민 기자 lawsdm@

‘文정부 외교라인’ 살펴보니...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차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장관·정의용 안보실장 多者외교·通商 전문가 전면에

남관표 차장 등 ‘자주파’ 두각... 조명균 장관 ‘대북관계 복원’ 의지

문재인 정부의 외교라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양화’다. 기존 외교부 주류는 구성하던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 외교 전문가 대신 다자외교 전문가를 대거 전면에 배치했다. 또 ‘서울대·외무고시’ 출신 외교관 일본도에서 벗어나 각계각층의 인재를 등용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다. 강 장관은 외무고시를 거치지 않은 비(非)서울대 출신(연세대 정외과), 최초의 여성 장관이다. 강 장관은 2006년 국제연합(UN) 인권 고등판무관실 부고등판무관에 임명돼 ‘다자외교’ 분야에서 활동했다. 앞서 외교부에서 근무할 때는 4강 외교가 아닌 국제기구 업무를 주로 맡는 등 소위 말하는 ‘주류’로 분류되지 않았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다자 외교 전문가다. 정 실장 역시 기존 4강 외교 전문가가 아닌, 통상전문가 출신이다. 이전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은 군 장성 출신이 맡았던 것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통상전문가인 정 실장을 국가안보실장으로 기용한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

실장은 참여정부 당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 참여한 바 있다. 또 외무고시(5회) 출신으로 국제노동기구 의장과 주체네바 대사 등을 역임했다. 또 2004년에는 당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정계와 외교계를 잇는 기교 역할을 맡았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외교라인은 대미(對美) 자주 외교노선을 우선해 온 ‘자주파’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대표적인 자주파다. 남 차장은 참여정부 초기에 외교통상부 조약국 소속 심의관이었다.

대북(對北) 외교노선도 ‘매파’가 아닌 ‘비둘기파’로 구성됐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계 복원의 적임자’라고 불릴 만큼 대북 외교에 능하다. 참여정부에서는 햇볕정책을 주도했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이다. 당시 논란이 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국방부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를 비롯해 대북 실무회담에 참여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NH롭게 새롭게

투자가 새로워지면 NH투자증권

17년 상반기 ECM 주관 인수 1위

17년 금융소비자 평가 1위

17년 상반기 IPO 주관 인수 1위

업계 최초 헤지펀드 출시

최초를 만든다는 생

16년 펀드 판매사 종합평가 1위

업계 최초 소비자 중심 경영 (CCM) 인증

새롭게

*17년 상반기 ECM 주관 인수 1위 / IPO 주관 인수 1위 [2017 상반기 다벨 리드(테이)] *증권 업계 1호 헤지펀드 NH-인베스트 리턴 출시 [2016년 8월, 한국예탁결제원]
 *17년 금융소비자 평가 1위 [2017년 8월, 금융소비자연맹], 16년 펀드 판매사 종합평가 1위 [2016년 12월,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증권 업계 최초 소비자 중심 경영(CCM) 인증 [2016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원금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 *투자 전 설명청취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7-04553호 (2017.10.20~2018.10.19)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열어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업이 되겠습니다

농민속으로, 국민결의로
NH농협

대기업 총수 줄줄이 '차재판' 증언대 선다

오늘 손경식 CJ 회장 시작으로 내일 김창근 前SK의장 등 대통령 독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 증언 나설 듯

대기업 총수들이 박근혜(66) 전 대통령 재판 증인으로 줄줄이 법정에 출석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105차 공판 증인으로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출석한다.

다음 날인 9일엔 박광식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을 시작으로 김창근 전 SK수펙스추진협의회 의장, 김영태 SK그룹 부회장, 박영춘 SK수펙스추진협의회 회장 등이 증언대에 선다.

11일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에 대한 증언이 이어진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조양호 한진해운 회장은 미국 출장을 이유로 사전에 불출석의

사를 전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은 15일 오전 10시 증언 신문에 예정돼 있다.

이들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국회 청문회, 검찰 조사 과정에서 뇌물 공여자와 강요 피해자 사이를 오가며 줄타기했다. 이 중에서 신 회장은 같은 재판 출연금을 내고도 뇌물을 건넨 피고인 신세가 됐다.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뒤 뒤돌려 받았더라도 면세점 사업권을 둘러싼 부정한 청탁, 대가 관제가 인정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7월 24일 대기업 총수 17명을 불러 긴급회의를 열 "한류를 확산하는 취지에서 대기업들이 재단을 만들어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대통령과의 독대 이후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총 13억 원을 출연한 손

‘박근혜 재판’ 기업 총수·임원 증언 소환 일정

1월 8일 (월)	9일 (화)	*11일 (목)
- 손경식 CJ 회장	- 김창근 전 SK수펙스추진협의회 의장 - 김영태 SK그룹 부회장 - 박영춘 SK수펙스추진협의회 회장(부사장) - 박광식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등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 구본무 LG 회장 - 허창수 GS 회장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지급 관련 증언 신문	재단 출연 결정한 경위 및 절차 증언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지급 관련 증언 신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미국 출장으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함

회장은 이날 대통령과 나는 대화 내용, 재단 출연금을 내게 된 과정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CJ는 청와대가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재판부는 손 회장에 앞서 조원동(62)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이날 오전에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은 이날 오후 자신의 1차 공판에도 출석해야 한다.

구속 피고인 재판을 먼저 진행한 재판부의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1

년 만에 조 전 수석에 대한 기일을 잡았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한편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재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같은 범원 형사32부(재판장 성장호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아기가 뭘 잘못했다고... 못한 부모들

아동학대 해마다 증가세 작년 상반기 1만건... 0세 241건 가해자 10명중 7명은 부모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대부분은 부모였다.

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1만 647건으로 2016년 상반기 8972건보다 18.7%(1675건) 급증했다.

아동학대 건수는 2013년 6796건, 2014년 1만272건, 2015년 1만1715건, 2016년 1만8700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아동학대는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증가세로 보면 2만 건을 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령별 피해 건수는 0세 241건, 3세 428건, 6세 552건, 9세 706건, 12세 767건, 15세 782건 등이었다. 피해자가 가장 많은 연령은 중학교 2학년

에 해당하는 만 14세로 819건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만 17세는 628건으로 전년 상반기 385건에 비해 63.1%가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해자별로 구분해 보면, 부모가 7634건(71.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교사 등 대리양육자 1601건(15.0%), 친인척 476건(4.5%) 등이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2가지 이상의 학대가 발생한 중박학대가 5569건(52.3%)으로 가장 많았다. 폭언·가정폭력 목적·다른 형제의 신체학대 목적 등 정서학대 2107건(19.8%), 신체학대 1440건(13.5%), 방임 1256건(11.8%), 성학대 275건(2.6%)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3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096건, 부산 789건, 전북 782건, 경북 737건, 전남 585건 등의 순이었다. 광주광역시외의 경우 전년 상반기 170건보다 168.2% 늘어난 456건이 발생했고 서울과 인천, 전남, 충북은 발생 건수가 전년보다 줄었다. 박은비 기자 pepe@

無자본으로 코스닥 상장사 인수해 上廢 회삿돈 180억 빼돌린 카지노 前대표 기소

자기 자본 없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상장폐지에 이르게 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제주도 카지노 업체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정대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 신라호텔 카지노업체 '마제스타' 전 대표 서모(49) 씨와 최고재무책임자 이모(46) 씨, 무자본 인수합병(M&A) 전문가 윤모(56)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서 씨는 마카오 등에서 10년 넘게 '징킷(고액 베타자 모집인)' 사업을 하다가 한국 카지노 사업에 뛰어 들었다. 2013년 4월 제주에서 가장 큰 카지노인 마제스타를 세웠다. 그러나 카지노는 경쟁 심화로 경영난에 빠졌고, 마제스타에 320억 원을 빌려준 모회사 '제이비어뮤즈먼트'도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2013년 12월 마제스타 명의

로 금융권에서 240억 원을 대출받아 주정설비업체 '엠제이비'를 인수했다. 이 대출금은 인수 직후 엠제이비 자산 240억 원을 마제스타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회계 감사 과정에서 부실 대출이 문제가 되자 서 씨는 2014년 4월 무자본 M&A 전문가 윤 씨에게 240억 원에 엠제이비를 넘기고 손을 뗐다. 하지만 윤 씨 역시 싱가포르 회사에서 돈을 빌려 엠제이비를 인수한 것이었고, 곡물 거래를 중개하는 것처럼 꾸며 돈을 갚았다. 결국 엠제이비는 부실 경영으로 2016년 9월 상장폐지됐다.

서 씨는 또 2015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마제스타 회삿돈 180억 원을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이중 장부를 만든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양하게 진화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적발·엄단해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화에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세하 기자 shys0536@

추억 한장 남겨봅니다



무술년 새해 첫 주말인 7일 서울 중로구 경복궁에 나들이 나온 관광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地自體, 공익사업으로 손실끼쳤다면 정신적 위자료도 함께 지급해야”

법원 “폐업·휴업 손실보상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손실 보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영업을 못하게 됐다면 휴업손실보상금과 함께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임차인 조모 씨 등 4명이 인천광역시 계양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씨 등은 각각 2773만~3861만 원을 받는다.

인천시 계양구는 2011년부터 병방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다. 시장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면서 그 자리에 세들었던 학원, 건 강원, 미용실 등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학원을 운영하던 강 씨 등은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았고, 위원회는 시장권고했다. 그런데도 보상을 받을 수 없자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자체는 이 사업이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이 아니라서 손실보상금과 함께 위자료도 지급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휴업손실보상금을 비롯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조 씨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자들이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갱신해 유지해온 임대차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음으로써 폐업 또는 휴업하게 된 것”이라며 “조 씨 등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비로소 폐업 또는 휴업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휴업기간 얻을 수 없었던 영업이익, 영업시설 이전 소요비용 등을 비롯해 지자체가 조 씨 등에게 각각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후원문의 1588-1940
www.childfund.or.kr



장난감은 늘었지만 친구들은 줄었습니다



문자는 늘었지만 소통은 줄었습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은 늘고 감사하다는 마음은 줄었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이 줄어든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편지로 마음을 나누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밝은 인성이 자랍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시간 영상전송으로 화재범위와 경로를 추적하는 소방드론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kg의 장비를 메고
불과의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에게
우리의 기술이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SK텔레콤은 강원소방본부와 협약을 통해
소방드론과 바디캠을 소방관들에게 제공하고
5G 기술로 구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5G는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여야 하니까요

미래 생활의 중심 | SK te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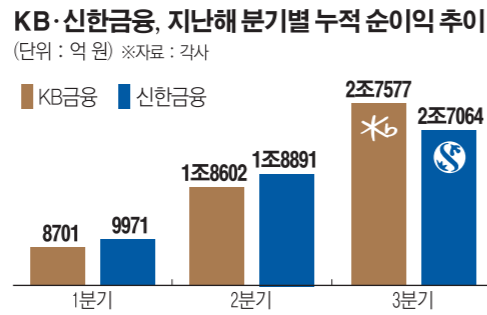


재난현장상황을 종합상황실에 송출하는 바디캠

SEE YOU TOMORROW!

‘2018 리딩뱅크’ 탈환이나 守城이나

KB, 작년 3분기 순익 2.7조로 앞서 8년 독주 체제 신한금융에 역전 노력 신한, 글로벌 M&A-자본시장 강화 등 시너지 극대화 투자운용사업부 신설 3월 말 공개 사업보고서에 이목 집중



해 생명보험사 등 비은행 계열사 인수합병(M&A)을 모색하고 있다. KB금융이 리딩뱅크 경쟁에서 앞서 가게 된 배경에는 증권과 손보 등 비은행 부문에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14년 KB 사태의 상처에서 회복한 KB금융은 지난해 메이저 증권사인 현대증권을 합병해 KB증권이 출범한 데다, KB손보도 완전자회사로 편입돼, 반영되는 지주 순이익 규모가 커졌다.

일단은 앞질렀다. 신한금융의 순익 비중은 은행과 카드에 집중됐다. 반면 KB금융은 증권과 손보, 캐피탈 등으로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변화 하면서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앞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종규 회장 “올해 지주사 전환 10년, 리딩뱅크 굳히겠다” = KB금융은 지주 출범 이후 10년 만에 연간 실적 기준으로 신한금융을 제치고 리딩뱅크 탈환이라는 목표 달성에 집중하고 있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허인 KB국민은행장과 계열사 대표, 임원 등이 참석한 상반기 워크숍을 열고 ‘리딩 금융그룹’으로서 지위를 지켜 나가라고 주문했다. 주요 목표로는 ‘리딩 금융그룹’으로서의 지위 공고화와 ‘글로벌 금융 그룹’으로 우뚝 서는 새로운 10년으로 압축했다.

◇위성호 “초격차 리딩 뱅크로 나가자” = 위행장은 이번 상반기 워크숍에서 “크고 작은 전투가 이어지고 국가의 경제가 수시로 바뀌는 변화와 혼란의 시대라는 점에서 지금은 춘추전국시대와 비슷하다”며 “올해 금융업에서 벌어진 경쟁은 조직의 존망을 결정할 중요한 전쟁”이라고 했다. 이어 손자병법 문구를 인용하며 “출정을 선포하고 전장으로 나가는 장수의 결연한 각오로 올해 금융의 승자가 돼 초(超)격차의 리딩뱅크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앞서 신한금융은 조양병 회장 취임 2년차를 맞아 ‘2020 프로젝트’ 추진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글로벌 M&A와 함께 자본시장 부문을 강화하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지난해 연말 조직개편에서도 은행-금융투자-보험 계열사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투자운용사업부문을 신설했다.

윤 회장은 리딩뱅크 탈환의 승기를 잡기 위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1위 은행 자리를 향한 치열한 신경전이 연초부터 가열되고 있다. 지난 8년 간 선두에서 독주 체제를 굳혀온 신한금융과 맹렬한 기세로 역전을 노리는 KB금융 간의 자존심 싸움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오는 3월 말 공개되는 2017년 사업보고서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실적이 나오면 어느 쪽이 리딩뱅크 인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KB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은 지난 5월 각 사업수원에서 ‘리딩뱅크’로 압축되는 주제로 2018년 상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들 회사는 지난해 순이익 1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쳐다. 우선 지난해 3분기 말까지 누적 순이익을 보면 KB금융이 2조7577억 원으로 신한금융(2조7064억 원)보다 500억원 정도 앞섰다. 주력 자회사인 은행 실적에서도 국민은행이 1조8413억 원의 순이익을 올려 신한은행(1조6959억 원)을

카드슈랑스 불안전판매 상품 환급률 2년 동안 절반에 그쳐

還給 절차 과정 복잡해 회신을 낮아 일부 보험사는 요청 고객만 환급해줘 감사원 “환급 규모 확대” 요구 불구 금감원 “안내문 외 대안 없다” 뒷짐

카드슈랑스 불안전판매 환급계약 및 예상환급액

보험사	환급대상계약(건)	예상환급대상액
KB손보	32,915	100억~200억 원
DB손보	23,429	
현대해상	17,653	50억~100억 원 미만
삼성화재	10,634	
흥국생명	4,648	10억~50억 원 미만
메리츠화재	2,860	
롯데손보	1,661	10억 원 미만
동양생명	1,100	
DB생명	1,053	
흥국화재	800	
계	96,753	약 614억 원

*2011년 7월 1일~2013년 3월 31일 계약 대상 ※자료제공: 금감원

2015년 말 금융감독원이 카드사가 판매한 9만6000여건의 불안전판매 보험계약에 대해 환급 결정을 내렸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4만여 건은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금융감독원은 카드슈랑스(카드사에서 보험 상품 판매)로 판매된 보험상품 중 불안전판매 계약 9만6753건에 대해 리콜 결정을 내렸다.

당시 금감원이 적발한 불안전판매 유형으로는 △은행 직립식 저축상품으로 안내 △중도해지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 미안내 △납입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처럼 잘못 안내 △공시이율 변동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확정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것 등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리콜을 결정하자 2년이 지났지만 미환급 계약이 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평균 환급률은 50% 수준이지만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다”며 “대형사들은 60~70% 정도 인데, 반해 중소형사는 40%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2012년부터 카드슈랑스의 영업행태를 감사한 금감원은 2013년 6월 7개 카드사의 불안전판매 계약을 적발했다. 이후 금감원은 카드사에 보험 판매를 위탁했던 10개 보험사를 감사한 뒤 해당 계약에 대한 환급 조치를 내렸다. 당시 환급대상 계약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판매된 9만6753건이다. 금액으로는 약 614억 원에 달한다.

업계는 환급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해당 보험사의 소극적인 환급 의지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환급절차는 보험사가 발송한 안내문에 피해고객이 회신하면 해당 계약이 불안전판매에 맞는지 확인한 뒤 보험사가 환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생손보험회와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구제방법 등을 공지하는 것 정도가 전부다. 일부는 불안전판매를 당한 고객이

먼저 요청을 한 뒤에야 환급을 해주는 식이라 환급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조치 이후 보험사들은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공지를 띄우고 있지만 회신을 자체 가 낮아 한계가 있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환급이 곧 비용 증가라 굳이 금감원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조치를 더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지만, 금감원은 환급 실태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특히 최근 감사원이 금감원에 카드슈랑스 환급 규모를 확대하고 환급률을 높이라고 요구했음에도 금감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금감원의 카드슈랑스 불안전판매 환급 조치를 두고 대상 기간을 늘리고 대상 계약을 넓히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환급대상 기간을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4년 3월로 확장하고 환급대상 계약 또한 74만7000건으로 70배 가량 늘렸다. 그러나 이에 따른 조치는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어 환급률 부진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금감원이 감사원 조사 결과와 관련해 최근 보험사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카드슈랑스 불안전판매 추정 대고객에게 우편안내로 소비자권 보호 △금감원, 손보협회, 각보험사 홈페이지에 해당내용 공지 △올해 1년 기한으로 대고객 안내 시행 등이 조치사항의 전부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안내문 발송, 관련 내용 공지 등 기존에 해오던 방법 말고 대안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www.douzone.com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Smart A 자동 회계처리 프로세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통장

자동수집

Cloud Center

자동분개

자동 회계처리 엔진

빅데이터 분석, 기업 표준 회계처리 패턴, 기계학습, 기업별 과거 회계처리 이력

자동입력

회계장부, 자금관리, 세무신고

자동검증

회계·세무신고 누락 및 오류 검증

- 법인세 MRI 검사
- 부가가치세 MRI 검사
- 상업등기 알람서비스
- 4대보험 신고 알람서비스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프로그램 사용자라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더존 홈페이지 자격시험 사이트에서 핵심강좌 무료 수강
지금 검색창에서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재무회계관리

건설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일용노무관리

구매관리

재고관리

판매(영업)관리

생산원가관리

외주관리

세무조정

전자세금계산서

금융CMS

DOUZONE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IBK창공(創工) 센터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
시기	2017년 12월	2018년 6월중	2018년 말 ~ 2019년초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지역	마포구 공덕동	성수동·상암동·구로동	지방 거점 대도시		미정
선발 기업	20개	40개	미정		

기업銀 ‘IBK창공’ 5년간 500개 창업기업 지원

2호점 선발기업 50개로 확대... 내년엔 지방 오픈 예정

기업은행이 ‘IBK창공(創工) 센터’를 확대해 5년간 500개 창업기업 지원에 나선다.

8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IBK창공’ 2호점은 선발 기업을 50개로 확대해 오는 6월중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다. 2호점의 위치는 성수동, 상암동, 구로동 등을 후보지로 두고 검토중이다. 3호점은 연말이나 2019년 초에 지방 거점 대도시 지역에 오픈할 예정이다.

IBK창공 센터는 창업기업이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은행이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입주기업에게 컨설팅, 투·융자 등을 지원 하는 공간이다. 기업은행은 동반자금융 사업의 일환으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 행정 직속으로 ‘창업벤처지원단’을 신설하고, 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다.

IBK창공 1호점은 기업은행 마포지점 건물에 마련했으며 이번에 입점하는 20개 입점기업들은 작년 12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창공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모집 당시 20개 기업 모집에 399개의 핀테크 기업과 스타트업이 몰릴 정도로 높은 경쟁을 벌였다고 한다.

조광진 기업은행 창업벤처지원단 부단장은 “IBK창공 센터는 추후 계속 확대해 센터별 기수 제

계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4호, 5호점 등도 추후 지방에 오픈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창업지원센터 지원은 단계적 투자를 통해 이뤄진다. 1차 투자(간접투자)에선 창업기업에 AC(엑셀러레이터), VC(벤처캐피탈)를 통해 최대 5000만 원의 시드 머니가 투자될 예정이다. 2차 투자(직·간접 투자)에선 유망 기술창업기업 대상으로 최대 5억 원, 3차 투자에서는 벤처, 혁신기업 대상으로 2~3차 투자가 진행된다.

기업은행은 지난 IBK창공 1호점 개소식이 있었던 지난달 19일, 1000억원 규모의 ‘IBK벤처Start-Up대출상품’도 함께 출시했다. 기업은행은 창업자금대출 공급목표도 당초 18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늘렸다. 지난 11월에도 ‘IBK금융그룹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 투자조합’을 통해 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기업은행은 지원 기업들에게 창업을 거쳐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한 IBK대표클럽 CEO와의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는 등 IBK만의 기업 풀(Pool)도 이용할 예정이다. 산탄데르은행과 중소 수출입기업에 제공 중인 B2B플랫폼 ‘비대면 수출입기업 매칭서비스(IBKTradeClub)’도 제공한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608억 이어 20억... '인증造作' BMW코리아 과징금 또 터졌다

'배출가스 서류 조작' 검찰 수사 환경부 '부당이익 편취' 추가 확인 '위법사항 계속 드러날 가능성 커'

배출가스 인증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BMW코리아에 수습역 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이 추가로 내려졌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환경부

가 인증조작을 통해 편취한 부당이익을 추가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8일 검찰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부품 변경인증 위반(29억 원)을 포함 총 60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BMW코리아에 수습역 원의 추가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세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배

출가스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통한 부당 수익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인증취소 내용도 변경됐고, 추가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추가 행정처분을 내린 과징금은 약 20억 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3% 과징금 비율을 감안하면 BMW코리아가 편취한 부당이익의 규모가 애초 발표보다 약 500억 원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BMW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총 28개 차종 8만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변조 및 부품 변경인증 위반 혐의가 적발돼 총 60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단일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이 회사의 인증 담당자와 인증대행업체 대표 등 14명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립환경연구원 청문절차를 통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상 소명절차를 거치면 과징금 일부가 감소되거나 일부혐의 없음 판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BMW는 추가적인 부당 이익까지 확인돼 과징금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됐다.

에 대해서는 항구하고 있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BMW코리아에 대한 추가 과징금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BMW코리아가 인증조작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추가로 확인했고 이에 대한 과징금 행정처분을 결정했다"며 "검찰 수사가 더 진행되는 만큼 현재까지 혐의 이외에 추가적인 위법사항을 계속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박은평 기자 pepe@

내일 개막 CES ...첨단 가전의 향연 '스마트시티'가 열린다



삼성전자 모델들이 전시장 입구 대형파사드 앞에서 환영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CES 2018' 개막을 이틀 앞둔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의 LG전자 부스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LG, AI 플랫폼 경쟁 후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9일(현지시간)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18'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결합시킨 혁신 제품들을 대거 선보일 계획이다.

CES는 올해만 글로벌 3900여 기업이 참여하고, 150여 국가에서 약 19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세계 최대 규모의 IT·가전 전시회다. 가전업계 양대 라이벌인 두 회사는 주제인 '스마트시티'에 맞춰 소비자의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테마로 전시공간을 구성해 IoT·AI를 기반으로 한 미래 라이프스타일 솔루션을 공개한다.

◇삼성 빅스비 vs LG 씽큐 'AI 플랫폼 경쟁' = 삼성전자는 이번 CES에서 전사적으로 IoT 서비스용 클라우드 스마트싱스'를 통합해 연결성을 확대했다. 또 빅스비를 가전에서 전장까지 전사적으로 적용하고, 연결된 IoT 기기들을 '스마트싱스 앱' 하나로

빅스비 vs 씽큐...IoT 결합 혁신 제품 대거 선보 첨단 터치 디스플레이 적용 삼성 플립' 등 공개 계획

간단하게 연동·제어할 수 있게 했다. 방문객들은 '빅스비'를 중심으로 삼성의 혁신 기술이 자사의 모바일·스마트 TV·패밀리허브 냉장고는 물론 제3자 기기와 앱을 어떻게 연동하고 제어하는지 상황별로 경험할 수 있다.

LG전자는 전체 부스 면적의 3분의 1을 인공지능 전시존 'LG 씽큐(ThinQ) 존'으로 꾸몄다. 'LG 씽큐'는 LG전자의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아우르는 브랜드다. LG전자는 'LG 씽큐 존'에 거실, 주방, 세탁실 등 소비자가 실제 생활하는 '공간'을 연출하고, 독자 개발 인공지능 플랫폼 '딥씽큐' 뿐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가전 제품들을 전시한다.

◇AI 탑재로 더 똑똑해진 TV 경쟁 =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올해 AI

기술이 탑재된 TV를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AI를 기반으로 저해상도 영상을 8K 수준 고화질로 변환해 주고 화질뿐 아니라 영상 특성에 맞는 음향까지 자동으로 조정해 주는 '8K QLED TV'를 최초 공개한다. 이밖에도 삼성은 '마이크로 LED'기술을 적용한 146형 모듈러 TV '더 월드'도 공개한다. 이 제품은 마이크로미터(μm) 단위의 초소형 LED를 이용해 백라이트는 물론 컬러필터까지 없애 LED 자체가 광원이 되는 '자발광 TV'다.

LG전자는 AI 기능이 탑재된 'LG 씽큐 TV'를 공개한다. '자연어 음성인식' 기능으로 화면모드 변경, 채널 변경, 볼륨 조절 등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또한 독자 개발한 화질칩 '알파9'를 적용해 노이즈를 절

반으로 줄이고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OLED TV와 나노셀 기술에 풀 어레이 로컬디밍 기술을 더한 '슈퍼울트라HD TV'도 선보인다.

◇혁신적 성능의 IT기기가전 공개 = 삼성전자는 디지털 플립차트 '삼성 플립'을 공개한다. 첨단 터치 디스플레이 기술이 적용된 이 제품은 '갤럭시 노트8'과 동등한 터치 반응 속도, 실제 종이에 쓰는 것 같은 필기감을 준다. 특히 별도의 전용 펜뿐만 아니라 일반 펜을 이용해서도 최대 4명까지 동시에 필기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진화된 AI 기반 음성 인식 기술과 하반기에 출시될 '패밀리허브' 신제품도 공개한다. LG전자는 구글의 인공지능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탑재한 스피커 'LG 씽큐 스피커'를 선보인다. LG전자가 '구글 어시스턴트'를 탑재한 스피커를 선보인 것은 이번이 최초다.

라스베이거스=오연민 기자 yerin2837@

"美洲라인 개설 협력" SM상선 잇단 러브콜에도 현대상선 '묵묵부답' 왜?

한국 해운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국적선사 협력 시너지 검토 필요

올해 미주동안 정기노선 취향을 계획하고 있는 현대상선이 SM상선의 계속되는 '러브콜'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8일 해운업계와 SM상선에 따르면 SM상선은 미주 동안 노선 개설과 관련해 현대상선과 공동운항을 비롯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현대상선으로부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SM상선이 현대상선에 미주 노선 개설과 관련해 협력에 나서자고 제안한 것은 작년부터다. 당시 SM상선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안에 나섰으나 현대상선은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며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M상선은 올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해양수산가족 신년인사회 행사에서도 "미주 노선 개설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협업을 안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다시 한번 제안에 나섰다.

현대상선 측은 SM상선의 계속되는 '러브콜'에도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SM상선이 언론 등을 통해서 협업을 나서자고 제안하면서도 한 적이 없다"면서 "공식적으로 전달 받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 검토할 만한 사항도 없다"고 일축

했다. 이와 관련해 SM상선 관계자도 "현대상선 측은 아직 공식제안을 하지는 않은 상태로 일단 해양수산부 등에 이런 구상을 전달해 현대상선과 관련 내용을 논의할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향후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현대상선과의 직접 접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상선은 미주동안에 이미 정기노선을 취항 중인 이스라엘 국적의 컨테이너선사인 집라인에 공동운항을 제안하고 논의에 나선 상황이다. 앞서 SM상선도 집라인과 공동운항을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상선은 SM상선의 적극적인 '러브콜'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국적선사 간 경쟁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상선이나 SM상선이 미주 동안 정기노선 운항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화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한국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적 원양선사간 협력도 중요하나 두 회사간 협력이 실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양 시간 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선영 기자 moon@

현대車 '글로벌 혁신거점' 5곳으로

中·獨에도 오픈 센터 구축...스타트업 인재 영입 속도

현대자동차그룹이 전세계 5곳에 혁신 거점을 세우고 현지 스타트업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현대차그룹은 8일 △한국 △미국 실리콘밸리 △이스라엘 텔 아비브 △중국 베이징 △독일 베를린 등 총 5개 도시에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는 현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해 이들과 협업 및 공동 연구개발을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현지 대학, 전문 연구기관, 정부, 대기업 등 혁신 생태계 구성원과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모색하는 사업 실증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역할도 맡는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말 실리콘밸리에 '현대크래들'을 열고, 올해 초까지 이스라엘에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현대크래들은 5대 혁신 거점 가운데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들과의 협업 성공 경험을 기반으로 핵심 분야 개발 원천 및 방향성을 제시해 전세계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로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대차그룹은 올 상반기 중 우리나라에 신규 혁신 거점을 개소한다. 한국의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는 현대기아차의 R&D 거점들과 다양한 혁신 실험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곳에서는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아이템 발굴에서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성공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연말까지는 중국 베이징, 독일 베를린에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가 새롭게 들어선다. 베이징은 베이징대학교, 인민대학교 등 대학들이 있어 뛰어난 인재들이 대거 유입될 뿐 아니라, 소비층이 다양해 신생 스타트업들의 사업과 추진에 유리하다. 현대차그룹은 베이징을 중국 특화 기술 확보, 현지 대형 ICT 기업들과 협력 모색을 하기 위한 거점으로 키운다는 복안이다.

유망 최대의 스타트업 태동 도시인 베를린에는 기회를 찾는 유망 전역의 젊은이들이 창업을 위해 몰리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베를린을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솔루션 기반의 신사업 기회 확보를 위한 혁신 거점으로 키울 예정이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치열해지는 5G 선점 경쟁...이통3社 국내외서 자존심 대결

박정호 SKT 사장 현지서 글로벌 협력 논의 KT 평창 시범운영...LG U+ 체험관 문열어

내년 3월 4G LTE보다 20배 빠른 5G 상용화를 앞두고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국내외에서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국제가전박람회(CES) 2018'에 실무진을 파견, 전시회 주제인 스마트시티를 구현할 필수 요소인 5G 기술을 뽐낸다. 5G 후발주자였던 LG유플러스는 용산 사옥에 5G 체험관을 열고 KT와 SK텔레콤에 도전장을 던졌다.

국내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은 박정호 사장이 직접 미국 박람회장을 방문한다. 이번 출장길에는 지난달 마무리한 조직개편을 토대로 미래 사업을 관장하는 부문장들이 동석한다. 지난달 새롭게 도입된 △MNO(이동통신) △미디어 △사물인터넷(IoT)·데이터 △서비스플랫폼(AI 담당) 사업부 책임자들도 출장길에 함께 오른다.

박 사장은 삼성전자, LG전자, 인텔, 퀄컴 등 5G 선도기업의 부스를 방문하고 전방위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단말·장비·서비스 개발 등 5G 상용화를 위한 협력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ICT 생태계



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고 7일 서울 용산구 용산사옥 1층 5G 체험관에서 원격제어 드라이브, 지능형 CCTV, 5G 생중계, 8K VR(초고화질 가상현실 영상), 스마트 드론, FWA(UHD 무선 IPTV) 등 6대 5G 핵심 서비스를 선보인 가운데 직원들이 원격제어 드라이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시스

구축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더불어 AI·IoT·로봇릭스 등 업체들이 모인 전시장을 찾아 국내외 기업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볼 예정이다. 박 사장은 또 현대기아차, 한도, 다임러, 중국 전기차 브랜드 바이톤(Byton) 부스 등 자율주행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KT와 LG유플러스도 5G, AI(인공지능), 자율주행과 관련한 부서 임원과 실무진을 파견했다. KT는 다음달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5G 서비스를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지난해 연말 조직개편을 통해 생긴 5G 추진단의 대규모 인력이 현지 파견 명단에 포함됐다. 최원호 LG유플러스 5G 담당은 7개 팀, 60명의 인력을 현지로 파견했다"며 "서비스 기획, 전략(네트워크 포함), 네트워크, 주파수, 단말 등 5G와 관련된 실무진이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SK텔레콤과 KT에 비해 상대적으로 5G 기술개발이 늦었던 LG유플러스는 5G 체험관을 열고 경쟁에 뛰어 들었다. 시작은 늦었지만 경쟁사보다 앞서간다는 내부 목표도 세웠다. 그 첫걸음으로 용산 사옥에 개장한 5G 체험관에서는 5G를 활용한 △원격제어 운전 △5G 생중계 △8K VR(초고화질 가상현실 영상) △UHD 무선 IPTV(FWA) △지능형 CCTV △스마트 드론 등 6대 서비스를 시연할 수 있다. 이 회사는 주요 장비는 글로벌 업체들과 협력해 개발하는 등 올 하반기부터 5G 망을 본격 구축할 계획이다.

김범근 기자 nova@

유통가 **팀파워**

SK플래닛 11번가 가구침구팀

오프라인 중심 리빙시장서 온라인쇼핑 돌풍 이끌어 “3D영상까지 동원 상품 이해도 높였죠”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1인 가구와 늘고 주거공간을 안락하게 즐기는 휴게(Hygge) 라이프가 확산하면서 집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단순히 잠자고 먹고 쉬는 공간으로만 인식되던 집이 요즘은 정서적이며 기능적인 공간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소비자 취향과 인식의 변화로 가구·침구 등 리빙 상품도 유행 변화가 빨라지면서 유통업계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이 같은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읽고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제품을 속속 선보이며 온라인 리빙 시장의 외연을 넓히는 데 걸인자 역할을 한 이들이 있다. 바로 SK플래닛의 11번가 가구침구팀이다. 2008년 신설된 가구침구팀은 침실과 거실, 사무용, 주방·수납, 리모델링 등 용도별 가구부터 침구, 커튼, 조명, 주방용품 등 인테리어 영역까지 18개 카테고리 내 100만여 개 상품을 취급하면서 온라인 리빙 시장을 키우는 주역으로 급부상했다. 팀장을 비롯해 11명의 팀원(MD)이 분야별로 나눠 담당한다.

“취미 라이프와 미니멀리즘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실용성 있고 심플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추세예요. 가구 패러다임도 바뀌어 점점 더 소형화되고, 소품으로 개성과 변화를 표현하려는 컨버전스(융·복합) 상품도 인기예요.”(김지혜 팀원)

11명이 18개 카테고리 100만개 상품 취급 판매액 낮추는 대신 ‘在庫 제로’ 신뢰 쌓아 제조사와 협업으로 단독상품 론칭 ‘대박’

가구침구팀의 가장 큰 어려움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온라인 쇼핑의 특성을 보완할 방안을 찾는 것이었다. 상품평에 대한 의존도는 다소 낮추는 대신 고객의 상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다.

“집을 위한 필수품은 한 번 사면 비교적 오랜 시간 사용하는, 이른바 고관여 상품이에요. 고관여 제품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온라인으로 구매를 이끌어 내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시각의 품질화 ‘시각의 품질화’를 표방하기로 했습니다.”(복준범 팀원)

“보고 사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나 표현은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고 영상을 활용해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해 2D를 3D로 구현해 다각적으로 부감을 연출하는 형태로 만들어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죠.”(차승훈 팀원)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온라인으로 팔기 어려운

소파와 침대, 사공 가구 등 대물 가구의 판매가 활성화됐고, 지난해부터는 고단가 상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력했다.

또 침구가구팀은 제조사와의 협업을 통해 11번가에서만 판매하는 단독상품을 선보이면서 단가를 낮춰 가성비로 차별화를 꾀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5월에 첫선을 보인 ‘세상에 없던 가구’ 시리즈다. 200만 원대 고가에 형성돼 있던 모션베드를 100만 원 할인해 129만 원에 판매했다. 보루네오와 기획한 179만 원짜리 ‘보루네오 모션베드’(싱글)는 79만 원에 단독 판매했다. 2주(5월 22일~6월 5일) 동안 열린 기획전 기간 ‘모션베드’ 거래액은 2016년 ‘모션베드’ 연간 거래액을 뛰어넘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담당 MD가 제조·유통사와 협의해 가격을 대폭 낮췄죠. 가치교환이 가능하거나 널 중요한 난비요소들을 줄인 덕분이지요. 상품 개발에 직접 참여하며 원가 구성부터 판매가로 이어지는 모든 비용을 함께 고려해 상품을 공동 기획했죠.”(고희정 팀장)

“제가 남지 않도록 11번가 자체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을 펼치며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판매에 임했던 것이 판매자에게 동기 부여가 됐고 지속적인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신뢰를 형성하게



SK플래닛 11번가 가구침구팀원들이 서울 중구 본사에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됐던 것 같아요.”(황남용 팀원)

지난해 11월 ‘코코일레븐’이라는 자체 가구 브랜드까지 론칭, 홈퍼니싱에 직접 뛰어들었다.

“고객의 취향은 다양하고 세분화돼 있지만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고객 빅데이터를 분석해 상품개발 과정에 적용했지요. 고객들이 원하는 홈퍼니싱은 ‘조금은 다른’ 나만의 스타일을 원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주력해야죠.”(한지현 팀원)

“전통적 오프라인 중심의 리빙 시장에서 온라인으로 상품군을 잘 옮겨온 점이 주효했다고 봐요. 팀의 목표는 세상에 있는 다양한 리빙 상품들과 다양한 취향을 가진 고객들을 잘 연결시켜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상품을 쉽게 찾고 좋은 가

격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에요.”(고희정 팀장)

가구침구팀의 내공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11월 ‘심일절 페스티벌’ 기간에는 소비자 판매 빅데이터를 활용해 제조사와의 공동 상품을 다수 론칭했다. 그중 주방용품 제조사 글라스라과 함께한 ‘세상에 없던 냉장고용 밀폐냄바냉곡’은 초도물량 2000개가 만나질 만에 완판됐다. 이 제품은 11절 행사 성공에 힘입어 1월 본격 출시할 예정이다.

“11번가의 데이터에는 제조사가 갖지 못하는 ‘소비자가 남긴 흔적’들이 많아요. 소형 가전의 니즈가 커지고 냉장실에 곧바로 넣을 수 있는 제품이 인기라는 것을 알게 돼 제품을 만들었는데 대박이 난 거죠. 이달 중 공식 론칭할 계획입니다.”(김태정 팀원)

김민정 기자 mj@

LOTTE

특허받은 유산균과 밀키스 워터의 건강한 만남

유산균, 워터로 가볍게 즐기자!

YO~HI/ 밀키스 요하이 워터

500 ml (155 kcal) 유산균음료

사랑해요 밀키스~

롯데칠성음료

다들 기쁘게 먹어줘서 감사해요

TV홈쇼핑 ‘公演 티켓 판매’ 오~ 반응 좋네

롯데홈, 뮤지컬 ‘타이타닉’ 방송 1시간 동안 4200건 주문

TV홈쇼핑과 공연 콘텐츠의 결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다양한 공연 콘텐츠로 확대될 전망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30일 롯데엔터테인먼트와 오디뮤지컬컴퍼니가 공동 제작하는 뮤지컬 ‘타이타닉’ 티켓 판매 방송을 진행해 1시간 동안 주문 건수 4200건을 돌파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의 판매 실적이며, 총 6회 공연(화당 700석, VIP-R석 기준) 좌석 수에 맞먹는 수치다.

이날 방송은 홈쇼핑 업계 최초로 뮤지컬과 홈쇼핑을 접목한 문화 콜라보레이션 프로그램 ‘엘스테이지(L-STAGE)’ 론칭 방송으로, 홈쇼핑과 뮤지컬의 접목이라는 이색적인 콘텐츠로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기획된 것이다.

이날 새벽 1시 10분부터 60분간 진행된 ‘타이타닉’ 티켓 판매 방송은 이미 방송 시작 전부터 600여 명이 미리 주문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또한 VIP석, R석 티켓을 시중가 대비 최대 50% 할인(평균 6만~8만 원대)된 가격으로 선보여 판매 호조를 보였다. 특히 ‘타이타닉’의 무선기사 해롤드



브라이트 역할을 맡은 배우 정동화가 직접 방송에 출연해 ‘타이타닉’ 공연 히스토리 등 정보를 공유해 소비자들의 호응도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

송성준 롯데홈쇼핑 PD는 “공연에 대한 니즈가 커지는 가운데 홈쇼핑과 공연 문화 콘텐츠를 연계해 고급 문화공연으로 꼽히는 뮤지컬에 대한 진입 장벽을 허물고, 궁극적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고자 한다”며 “기존 판매 방송에 대한 틀을 깨 다양한 문화 콘텐츠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 일반 예매와는 차별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뮤지컬 공연 티켓 판매가 성공을 거두면서 공연과 접목하는 판매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대형마트 온라인사업

入出庫 자동화 물류센터 속속 증설 지난해 거래액 증가율 30% 넘어

지난해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온라인 부문 성장률이 11번가, G마켓 등 오픈마켓의 성장률을 제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올해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온라인 사업 확장을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두 업체 간 성장률은 2016년까지만 해도 판매 증대 위주의 오픈마켓이 우위를 점했다. 거래액 증가율이 전년 대비 25%를 넘는 오픈마켓과 달리 오프라인 업계는 한 자릿수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랬던 성장률이 2017년 1월 이후 역전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의 온라인 거래액 증가율은 30%를 넘어 급증한 반면 오픈마켓의 판매 증대 위주 10% 언저리에 머물다 5% 수준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더니 현재 두 업체 간 증가율 격차는 20%포인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기존 온라인몰에 입점하거나 자사 온라인몰을 직접 갖추는 등 온라인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업계 온라인 성장을 이끌고 있는 곳은 신세계의 이마트와 롯데하이마트가 대표적이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경기도 이전시 마장면에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오픈했다. 이 물류센터는 택배 터미널이 마련돼 상품 입고와 분류, 발송을 모두 처리할 수 있으며 출고 공정 또한 자동화돼 이전보다 더 많은 제품을 처리하게 됐다.

특히 롯데하이마트 측은 온라인 주문 상품의 당일 출고 주문 마감시간을 오후 3시 30분에서 7시로 연장해 처리 건수도 대폭 늘렸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온라인 매출 비중이 20% 증가했고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마트 역시 2016년 오픈한 김포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통해 신선식품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마트는 최근 이마트몰 김포 제2물류센터를 증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마트는 현재 경기도 용인과 김포에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주문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늘자 추가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는 지난해 11월 기준 온라인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이마트 오프라인의 매출 성장률은 0.5%에 그쳤다. 고대영 기자 kodae0@



KB 금융그룹

대학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네가 하고 싶은 일 맘껏 해보고
좋은 사람 만나서 축복 속에 결혼하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도 낳고

내 손주의 앞날에 꽃길만 가득하길

손주를 위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든 바람을 위해 KB가 함께합니다

KB금지옥엽신탁



KB금지옥엽신탁



상속형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사랑하는 손주에게
용돈을 지급하며 아이들의 수호천사가 되어줄 상품



증여형

손주가 대학입학, 자동차 구입, 결혼하는
소중한 순간에 특별한 선물이 되어줄 상품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운용자산별로 별도의 보수가 발생하며, 신탁원본 평균잔액의 연 0.2~1.2%입니다.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유언대용신탁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침해할 수 없으며, 유류분 청구 및 반환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을 통한 상속 및 증여시 관련 법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고객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933호(유효기간 : 2017-12-14~2018-12-13)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7-05410호(유효기간 : 2017-12-15~2018-12-31)



목동은 休戰 네이버 중개업소 인증제 세종은 激戰

우수 중개업소 인증제를 둘러싸고 파열음을 내던 네이버 부동산과 공인중개사들 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매물을 거둬들였던 서울 양천구 목동은 다시 거래 불건을 올리기 시작했지만 세종시 중개사들은 여전히 매물 거래를 거부하며 새로운 거래수단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집결하고 있다. 네이버는 중개사들과의 소통 문제에서 오해가 생겼다는 입장이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중개사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확보했던 네이버 부동산의 목동 매물 수가 다시금 예전만큼의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부동산 대신 매물이 몰렸던 다음 부동산과 비교해 5일 기준 같은 매물 수량(134건)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목동 중개사들이 매물을 다시 올린 이유는 네이버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우수 활동 중개사를 소개하는 난에 '배지(Badge)'를 다는 방식을 적용하려 했다. 이에 목동 중개사들은 배지 방식 철회를 위한 보이콧에 나섰다.

목동 중개업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거

네이버, 목동 중개사 의견수용 배지 대신 '집주인 확인' 표시 매물 수 예전 수준으로 회복 세종은 보이콧 사태 계속 '한방' 앱에 모여 守城 중

'네이버가 돈벌러 인증제'에 "CP 거친 매물 확인일 뿐"

레가 줄어들며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네이버 부동산 배지 여부가 민감한 문제로 부각돼 중개사 간의 갈등이 빚어졌다는 전언이다. 이에 네이버 부동산은 목동 중개사들의 의견을 수용, 배지 방식 대신 집주인 확인 매물 건수를 그대로 표시하기로 했다.

반면 세종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모바일 부동산 앱인 '한방'에 모여 여전히 수성(守城) 중이다. 5일 오전 기준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세종시 매물 건수는 126건에 불과하지만 한방에 등록된 매물 건수는 8012개다. 세종 중개사들은 이번 '네이버 부동산 보이콧 사태'를 발판 삼아 세종시 부



동산 매물을 '한방'에 집중할 것을 결의한 상태다. 4일 세종시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황기현 협회장은 세종의 결의를 전국에 확산시키고 한방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밝혔다.

실제 한방은 황 회장의 역직 사업으로 알려졌다. 협회의 세종시부 관계자는 "중개사들이 단결한 이유는 거래 가격 등 중개사의 고유 정보가 네이버 같은 대형기업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단결에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것이 한방"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부동산은 목동과 세종 중개사들의 단체 반발은 네이버와 중개사 간의 소통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

다. 네이버는 2013년 자체 부동산 서비스를 운영했으나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직접 사업을 철수한 뒤, 부동산정보업체(CP)의 매물 정보를 받아 유통하는 방식을 취하게 됐다. 과거 중개사에서 네이버로 매물 정보가 직접 유통되던 것이 중간에 CP사를 거치게 된 셈이다. 네이버의 한 관계자는 "직접 사업을 하던 시절에는 공인중개사들과 소통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플랫폼만 제공하기 때문에 중개사와 접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소통 문제로 비롯된 가장 큰 오해가 돈을 더 벌려고 네이버가 인증제를 시도했다는 주장이라고 네이버는 설명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CP사에서 넘어온 매물이 검증센터를 통과해야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되기 때문에 네이버가 해결해야 할 허위매물 문제는 팔려도 고객 눈 앞에 방치된 매물뿐"이라며 "이를 해결하려 인증제를 시도한 것이고 네이버가 매물 유통으로 받는 고정비 500원은 그대로여서 방지매물을 줄이기 위해 들어가는 확인 비용으로 네이버가 수익을 올린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오르는 집값, 다 이유가 있다

최영진의 현안진단

작년 분당...아파트는 송파 1위 상승률 따라 자산까지 벌어져 공급? 수요? 인구유입 여부? 머무르지 떠날지 고민할 필요

지난해 전국에서 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주택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다. 전국 평균 상승률 1.48%보다 4.6배나 높은 6.88%를 기록했다. 아마 제2판교밸리 조성 계획과 동탄-삼성 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이 영향을 준 것 같다. 판교역 주변과 GTX 정차역이 생기는 이매동 일대 아파트값이 대폭 올라 전체 상승률을 끌어올렸다는 소리가 있다. 그 다음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서울 송파구로 6.01%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아파트만 놓고 보면 서울 송파구의 오름폭이 8.7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전체 주택부분 상승률 1위를 차지한 분당구(7.22%)로 분석됐다. 한국감정원은 2월 지난해 전반적인 주택시장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2017년 전국 주택가격 동향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의 전체 주택가격은 1.48% 상승했고 아파트만 치면 1.08% 올랐다. 서울은 전체 주택 상승률이 3.64%이고 그중 아파트는 4.69% 뛰었다. 전국 평균수치와 비교하면 각각 2.5배, 4.3배 더 오른 셈이다. 이는 서울의 상승세가 강했다는 뜻이다. 수도권은 뺀 지방의 전체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68% 상승했지만 아파트는 오히려 0.41% 하락했다. 서울

이라고 다 시장 분위기가 좋은 것은 아니다. 구별로 온도차가 심하다.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이른바 강남 4구는 재미가 좋았다. 인기가 높은 아파트만 따졌을 때 송파(8.72%)를 비롯해 강남 6.58%, 강동 5.75%, 서초 4.78%로 모두 서울 평균(4.69%)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비강남권에서는 영등포 아파트 시장이 뜨거웠다. 상승률이 5.82%로 3위를 차지했다. 광진(5.69%), 양천(5.48%) 아파트 값도 많이 올라 상승률 5위 안에 들었다.

반면 중랑구 상승률은 1.8%로 송파의 20% 수준에 불과했다. 강북(2.06%)·성북(2.29%)·동대문(2.76%)·서대문(3.19%)구 등지의 상승폭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자산가치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는 의미다. 어디에 집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자산 규모가 달라진다. 이는 투자지역이 중요하다는 소리다. 가격 형성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주택부분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꼭 서울만의 일이 아니다. 수도권·지방 할 것 없이 오르는 곳과 떨어지는 곳이 생기게 마련이다. 집값이 오르는 곳은 공급량이 적다든가 아니면 인구 유입이 많은 도시다. 주변에 산업단지가 많아 일자리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는 곳이다. 수요 기반이 튼튼한 곳이야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지만 산업이 탈락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은 상황이 자주 안 좋아진다. 해당 지역을 집을 갖고 있는 수요자는 빨리 빠져나올 것이 아니면 기다릴 것이냐를 놓고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부동산 대기자 choibak14@

부산·동해·인천·여수...港勢圈 '꿈틀'

물류 관문 역할 인력유입, 자족도시 시설도 확충

항만 특수를 노리는 지역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8일 부동산시장에 따르면 항만은 국내의 물류 교류의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발전이 진행되며 이로 인해 인근 부동산시장까지 호황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은 선박이 출입하고 화물의 하역과 보관, 그리고 조립, 가공, 제조 등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이들 지역에는 다양한 기업이 들어서게 된다. 또한 인력 창출을 위해 많은 인구가 유입되며 행정·상업·편의시설 등도 보강돼 항만 주변은 자족도시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지역 가치도 상승한다.

실제로 부산신항은 인근에 녹산국가산업단지, 화진일반산업단지, 르노삼성

부산공장을 비롯해 대형 산업단지과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하고 있고 교통도 남해고속도로 제3지선 제2배후 도로 개통 등 최근까지 지속적인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 강서구는 부산 신항이 운영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부터 3.3㎡당 매매가가 475만 원에서 2011년 829만 원까지 올랐고, 현재 900만 원대를 넘어서 거대되고 있다.

동해항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3단계 확장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비 1조 5872억 원을 들여 환동해관의 거점 물류항만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3조8843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1조3361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 1만50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거점항만 특수 노리는 분양예정단지

거점항만	위치	단지명	전용면적(㎡)	총가구수	분양시기	시공사
동해항	동해시 단봉동 13번지	e편한세상 동해	78-84	644	1월	고려개발대림산업
인천항	인천광역시 도화지구 2-35L	인천 도화지구 금강펜테리움	59-84	479	3월	금강주택
광양항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579번지 일대	죽림 현대 힐스테이트	미정	989	2분기	현대건설

*상기 내용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출처: 각 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에서 고려개발과 대림산업은 공동 시공으로 강원도 동해시 단봉동 13번지 일원에 e편한세상 동해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년간 부산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컨테이너 박스가 처리된 인천항은 송도(도시관광 및 워터프론트), 남항(국제 크루즈 및 카페리, 마리나), 내항(역사 및 원도심 관광), 경인항(아라뱃길, 친수관광), 영종매립지(국제 해양레저 허브), 인천 국제공항(국제허브)으로 이어지는 해양 관광 벨트로 이뤄져 경제유발 효과가 뛰어나다. 이 인근에서

금강주택은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지구 2-3블록에 3월께 '인천 도화지구 금강펜테리움'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수항은 해상 전라까지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연안여객터미널과 화물부두가 함께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인근에 광양제철소, 여수국가산업단지, 울진지방산업단지의 산업벨트가 형성돼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현대건설이 올해 2분기에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579번지 일대에 총 989가구 규모의 '죽림 현대 힐스테이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準강남' 과천, 올해 1만7000여 가구 '큰장'

주공 2·6·7·1단지 재건축에 지식정보타운 분양 물량도 대기

올해 과천에서 총 1만7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앞서 뜨거운 수주전을 벌였던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과천지식정보타운도 본격적으로 분양에 나서 준강남인 과천에 청약시장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8일 부동산114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과천에선 총 1만7114가구가 공급된다. 대우건설이 지어올리는 과천 주공7·1단지를 비롯해 SK건설과 롯데건설이 함께 사업에 나서는 주공2단지 등이 올 1분기에 분양시장에 등장한다. GS건설이 재건축하는 주공6단지도 올

해 하반기 공급된다.

지난해 4분기에 나올 것으로 보였던 과천지식정보타운 물량도 올해 대거 나온다. 민간분양 3636가구, 공공분양 647가구 등 총 7951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4호선 인덕원역과 정부과천청사역 사이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가칭)이 신설된다.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태영건설·금호산업) 등이 S4·5·6 등에서 아파트를 공급하고, S1·8·9블록에서도 줄줄이 물량이 나온다.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택지 물량이 나

오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과천은 서울 접근성이 용이하고 사업성이 높아 건설사들 사이에서는 뛰어난 재건축 사업지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대형사 간 벌어진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서는 대우건설이 강남과 용산 등 최고 노르자 위치에만 적용했던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인 '써밋'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대우건설은 수주전 당시 사장까지 나서며 수주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우건설이 올해 먼저 분양시장에 내놓는 과천주공 7단지도 마찬가지로 써밋 브랜드가 적용된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중견 건설사 상반기 2만 가구 분양물량 지난해의 2배 육박

주요 중견 건설사들의 올 상반기 아파트 공급 물량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5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동문건설, 중흥건설, 제일건설, 우미건설 등은 올 상반기 24곳에서 1만995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나온 1만 443가구보다 9507가구 많은 양이다.

수도권 11곳에서 8110가구, 지방 13곳에서 1만1840가구가 나온다. 특히 전체 중 21개 단지가 택지지구나 도시개발지구에 위치해 낮은 분양가로 내집 마련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 단지는 중흥건설이 서울 '영등포 기계상가'를 재개발하는 1곳뿐이다.

경기권에서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이 없었던 동문건설이 평택 신촌지구에서 2749가구를 선보인다. 고양 지축지구에서는 중흥건설이 732가구를 분양하고, 우미건설은 남양주 별내지구와 위례신도시에서 각각 585가구, 877가구를 공급한다. 시흥 장현지구에서는 제일건설이 3월 698가구 분양에 나선다. 이 밖에 세종시, 강원도 원주혁신도시, 부산사하구 구평지구, 충남 대덕수정지구, 전남 순천 신대지구 등의 물량들이 줄줄이 분양시장에서 대기 중이다. 일반적으로 택지지구는 주거와 교육, 상업시설 등이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분양시장에서 인기가 높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이라크 총리 "한화 비스마야 신도시 공사 전폭 지원"

한화건설이 추진 중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사진) 건설공사' 사업이 이라크 총리의 강력한 신뢰 속에 안정적인 추진 발판을 마련하고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8일 한화건설에 따르면 최광호 대표이사는 지난해 말 이라크 현지에서 하이드라 알 아바디(Haider Al-Abadi) 이라크 총리를 예방하고 면담을 가졌다. 아바디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화건설의 비스마야 신도시 공사 수행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나타냈고, 이라크 국영

은행장들에게 안정적인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한화건설과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아바디 총리는 비스마야 신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바그다드 중심부와 연결되는 '신규 고속도로 건설'을 지시하고, '분양 활성화를 위한 종합 정책의 조속한 추진' 등 이라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이라크 총리 면담의 후속 조치로 한화건설은 작년 말 이라크 정부로부터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 대금 약 1억



7000만 달러를 수령 완료했고, 공사 진행에 따라 1분기 중 2억 달러 이상의 추가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건설은 이를 통해 2018년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 김정용 기자 cogito@

날짜	구분	시도	시군구	업종명	아파트명
1/8(월)	접수	경기	용인시	풍덕천동	수지관광교신IPARK(노인복지주택) (~1/9)
1/9(화)	접수	충남	아산시	배방읍	아산배방업무지구주상2블록 ♣ (~1/10)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남양주별내지구우미린2차(A20) 1순위
1/10(수)	접수	경기	파주시	아당동	파주운정3A12(공공임대) 1순위
		부산	해운대구	제송동	센텀천일스카이원 1순위 (당해지역)
		강원	춘천시	삼천동	춘천파크자이 1순위
		전남	목포시	용해동	목포용해동광신프로그레스 1순위
		전북	부안군	부안읍	부안라온프라자 1순위
1/11(목)	접수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남양주별내지구우미린2차(A20) 2순위
		경기	파주시	아당동	파주운정3A12(공공임대) 2순위
		부산	해운대구	제송동	센텀천일스카이원 1순위 (7티지역)
		강원	춘천시	삼천동	춘천파크자이 2순위
		전남	목포시	용해동	목포용해동광신프로그레스 2순위
1/12(금)	오론	전북	부안군	부안읍	부안라온프라자 2순위
		충남	당진시	수정동	당진대덕수정지구중흥S-클래스파크힐 1순위
		경기	김포시	양촌읍	한강금호어울림단지(B2)
		경기	김포시	양촌읍	한강금호어울림2단지(D1)
		경기	화성시	영선동	힐스테이트동탄2차(C1)
1/12(금)	접수	경기	화성시	영선동	힐스테이트동탄2차(C1) ♣
		광주	북구	신안동	광주신안모아엘가더스카이 ♣
		광주	북구	신안동	광주신안모아엘가더스카이(민간임대)
		강원	원주시	단구동	원주단구내안캐운티에듀파크(1BL)
		강원	원주시	단구동	원주단구내안캐운티에듀파크(2BL)
1/12(금)	접수	충남	아산시	방축동	삼일파라뷰스타이(민간임대)
		부산	해운대구	제송동	센텀천일스카이원 2순위
		광주	북구	신안동	광주신안모아엘가더스카이 ♣
		광주	북구	신안동	광주신안모아엘가더스카이(민간임대)
		충남	당진시	수정동	당진대덕수정지구중흥S-클래스파크힐 2순위

(주) ♣=오피스텔

(주)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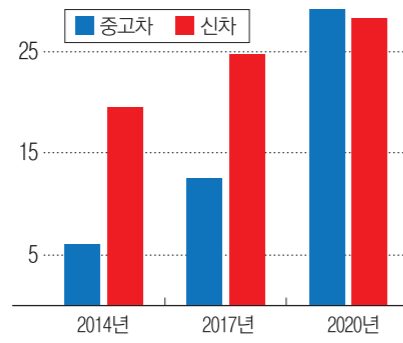
(주3) 오른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신차보다 중고차”... 中 트렌드 달라졌다

사치품에서 생필품으로 인식 작년 신차 판매 증가 1.9%뿐 중고차는 20% 이상 급성장 2020년 판매 역전 벌어질 듯

중국의 중고차와 신차 판매 추이
(단위: 100만 대, 2017년과 2020년은 예상치)
※출처: WSJ



20% 이상 성장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중고차 판매 플랫폼 ‘런런차(人人車)’의 리젠 최고경영자(CEO)는 “중국의 새로운 중산층에 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참신했지만 오늘날 자동차는 그런 신비감이 사라졌다”며 “중국 운전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이미지를 인식하고 있지만 이제는 좀 더 저렴한 가격의 차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전에는 자동차가 사치품으로 간주돼 중국 소비자 사이에서 과시용으로 신차 선호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현재는 차를 생활 필수품으로 인식해 합리적 소비로 돌아

선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중국 중고차 시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를 노리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 대변인은 “중국 내 부익과 캐딜락, 쉐보레 딜러망 1600곳이 모두 중고차를 취급한다”며 “이들 딜러망의 지난해 중고차 판매는 전년보다 30% 증가했다”고 말했다. 포드 대변인은 “현재 약 800개의 중국 딜러 중 80%가 중고차 취급 허가를 회사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자동차 시장이 성숙한 미국은 중고차와 신차 판매 비율이 2대 1일 정도로 중고차 시장이 발달해 있다. 반면 중국은 그 비율이 반대의 정도로 아직 신차 시장이 크다. CAAM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중고차 판매 예상치는 1250만 대로, 신차 판매량 약 2490만 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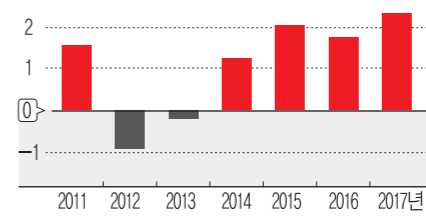
그러나 CAAM은 중국도 2020년에는 중고차 판매량이 신차를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CAAM과 번스타인리서치 등의 예측에 따르면 중국의 중고차 판매는 2020년에 2920만 대로, 신차 2850만 대를 웃돌 전망이다. 리젠 CEO는 “수년 전 자

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백만 중국 소비자들은 차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합리적 가격에 업그레이드하고 싶어 한다”며 “또 최근 정부도 중고차 시장을 육성하고자 정책을 변경해 도시 간 차량 이동이 훨씬 쉬워졌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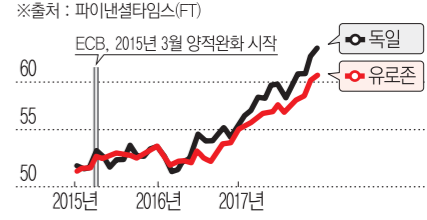
중국자동차딜러협회에 따르면 이미 중국 저장성 닝보시는 중고차 판매가 신차를 웃돌고 있다. 닝보는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인 상하이와 항저우가 근처에 있어 중고차 시장이 발달했다. 닝보 이차당중고차센터의 루명정 매장 책임자는 “중국 소비자들은 최근 모델을 양호한 상태로 구입하는 한 거리에서 아무도 중고차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수요 급증에 최근 경쟁업체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중고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투자자들도 관련 업체에 왕성하게 투자하고 있다. 텐센트와 중국 최대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은 런런차에 투자하고 있으며 세쿼이아캐피탈은 런런차 경쟁사인 ‘과쯔(瓜子)’에 투자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그룹은 모바일 중고 거래 앱 ‘셴위(閑魚)’에서 중고차 부문을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유로존 연간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2017년은 추정치) ※출처: WSJ



독일과 유로존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추이
※출처: 파이낸셜타임스(FT)



‘유로붐’ 順風... 긴축정책 변수

2018 주요국 경제 예측

③유럽

지난해 성장률 10년 만에 최고 통화 긴축 시 리스크 제어 관건 유로존 내 경제 불균형도 문제

유럽 경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유럽 연합(EU) 회원국 간의 불균형 등은 경기회복을 위협할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로존은 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4%로, 2016년의 1.8%에서 오르고 2007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른 경제지표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유로존의 지난해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60.6으로, 해당 통계가 시작된 1997년 중반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로존 PMI를 집계하는 IHS마르키트의 크리스 윌리엄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철부부문에서 제조업체들의 반응이 고무적”이라며 “이는 기업 투자가 늘어날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CB가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물가상승률 회복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PMI 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이 “경기경제성장 전망이 공급망에 압력을 가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답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애플리 스트리트들이 ‘유로붐(Euroboom)’이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유럽 경제가 지난해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좋은 모습을 보였

다며 이는 올해를 시작하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유럽 은행과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1년 전보다 강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 재정수지 적지도 줄어들어 긴축 필요성이 낮아졌다며 이는 올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경기 회복을 배경으로 ECB는 올해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등 통화정책 정상화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등에서 벗어나고자 ECB가 지난 수년간 양적완화 등 공격적 경기부양책을 펼치면서 ECB의 자산 규모는 4조 유로(약 5133조 원) 이상으로 팽창했다. ECB는 주요 정책금리를 올리거나 자산 매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등 긴축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ECB가 시장 예상보다 긴축을 더 가속화하면 증시가 폭락하는 등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에 ECB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처럼 점진적 긴축에 나서겠지만 전문가들은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리스크를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고 우려한다.

WSJ는 만성적 EU 역내 국가 간 경제 불균형도 지적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GDP 규모는 2007년 말에 비해 약 11% 컸지만 이탈리아는 여전히 5%가량 축소된 상태다.

정치적 리스크도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스페인은 독립을 시도하는 카탈루냐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탈리아는 3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독일은 지난 9월 총선 이후 아직도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美 한파에도...오늘은 ‘바지 안 입고 지하철 타는 날’



미국 뉴욕 시 지하철 역에서 7일(현지시간) 남녀 한 쌍이 하의를 입지 않은 채 걸어가고 있다. 이들은 제17회 ‘바지 안 입고 지하철 타기(No Pants Subway Ride)’ 행사 참가자들이다. 최근 미국 동부의 체감기온이 영하 70도까지 내려가는 등 혹한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음에도 이날 이벤트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 행사는 2002년 공공장소에서 웃음을 줄 목적으로 장난 삼아 시작된 이벤트이나 지금은 전 세계 60여 개국으로 확산했다. 뉴욕/AFP연합뉴스

세금 납부까지 편의점서...ICT로 업무·비용 줄이는 日 정부

정보통신화로 간편하게 납세 2020년 연말정산 절차 전자화

일본에서는 내년 1월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의점에서 세금을 낼 수 있다.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정부의 업무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7일(현지시간) 납세자가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이용해 편의점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일본 재무성과 국세청이 세부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전했다. 납세자는 전자 신고 후 별도의 서류 절차 없이 편의점에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서류 작성과 배송을 비롯한 정부 업무를 줄이는 게 목표다. 일본 사회에서 편의점은 공연 티켓이나 복권 구매부터 인감등록증

스마트폰으로 세금 납부하는 과정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명서 발행, 자동차보험 가입까지 다양한 서비스의 거점이다. 편리하면서 전자 신고와 납세를 촉진할 방안으로 적합한 다. 전자 신고와 납부가 활발해지면 세무사의 사무 작업 등 행정 비용이 줄어

들고 기업이나 납세자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전자 신고와 편의점 납부를 이용하면 원하는 시간에 가까운 곳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먼저 스마트폰이나 세금 신고 사이트를 통해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신고하면 세액과 세목을 기록한 QR코드가 생성된다. 이후 편의점을 찾아 QR코드를 편의점 단말기에 인식시키면 서류와 함께 세금을 내면 된다.

일본 최대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웨미리마트, 로손의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일부 점포에만 QR코드 단말기가 비치됐다. 재무성과 국세청은 단말기 이용이 가능한 편의점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전자 신고를 위한 절차도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본인 인증을 위해 본인 명

의 카드나 증명서가 필요했지만 내년부터는 세무서에서 한 차례 본인 확인만을 거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인증이 가능하다. 개인 사업자 법인의 전자 신고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4월부터는 자본금 1억 엔(약 9억 3900만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비세 전자 신고가 의무화된다.

일본 정부는 경제·사회의 정보통신(ICT)화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업무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 신고와 납세 방법 확대도 이러한 정책의 일부다.

각국에서도 IC를 활용한 신고 및 납세가 보급되고 있다. 이미 스웨덴 등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한 세금 신고를 시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부터 연말정산 절차도 전자화할 예정이다.

이주혜 기자 winjh@

CEO 라운지

사이버 보안

美 CEO 최대 고민은 “전쟁 같은” 해킹 위협

지난해 919곳 CEO 사임

이사회 요구 수준 높아져

인력풀 줄고 인재 확보 난항

인텔 등 반도체 업체들이 새해 벽두부터 보안 결함 파문에 휘말리는 등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사이버 보안 위협이 최대 고민거리로 부상했다. 또 CEO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인재 확보도 우려하고 있다.

인사노무 관리 전문가인 엑스퍼트 HR가 인적 자원 전문가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4%는 올해 미국 CEO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로 데이터 보안과 해킹에 대한 대응을 꼽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

공기업인 스탠리블랙&데커의 제임스 로리 CEO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나쁜 배우(사이버 보안 위협)들은 점점 더 똑똑하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탠리블랙&데커는 지난해 11월 인공지능(AI) 박사학위를 보유한 마크 메이버리를 최고기술책임자(CIO)로 임명했다. 로리 CEO는 “메이버리 박사의 임무에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감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편에선 고위직 인력 확보 문제도 계속된다. 리버럴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북미 상장사 가운데 919곳의 CEO가 사

임 또는 은퇴하거나 해고됐다. 이는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CEO가 교체된 회사 중에는 포드와 제너럴일렉트릭(GE), 신용정보업체 에퀴팩스, 캐터필러, 몬델리즈인터내셔널 등 굵직한 기업들이 포함됐다. 새해에도 나스닥 상장사인 렌트-A-센터의 마크 스피스 설립자가 CEO 직에서 사임했다. 이는 그만큼 인재풀을 축소시켜 기업들이 CEO가 될만한 능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WSJ는 설명했다.

게다가 투자자들과 이사회 CEO에 대한 요구도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이어서 이들을 만족시킬 만한 인재를 찾기란 쉽지 않은 도전이다. 경력 전환과 임원 리더십 코칭 전문업체 쉐르메넬리파트너스의 휴 실즈 설립자 겸 대표인 “이사회는 CEO가 다재다능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일부 기업은 정말로 특출난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 시드니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이틀리시언의 마이크 케논-브룩스 공동 CEO는 “IT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인재를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일부 금융 대기업은 은행원과 트레이더들보다 더 많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4개 대륙에 걸쳐서 엔지니어를 찾고 있다”고 토로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리더십·친화력으로 '금융 수장' 다시 한번

코람코자산신탁 회장으로 금융권 컴백하는 윤용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시절 외환은행 인수 직후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에게 장미꽃 선물하며 갈등 없이
양사 은행장 역임... 젊은 직원의 의견 수용도 적극

윤용로(63·사진) 코람코자산신탁 고문이 오는 2월 주주총회 때 회장에 선임될 예정이다. 2014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마지막으로 금융권을 떠났던 윤 고문이 4년 만에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로 돌아오는 것이다. 윤 고문은 1977년 행정고시 2회회에 합격해 관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재정경제원 소비세제과장,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장 등을 두루 거쳤다. 윤 고문은 1998년 설립된 이후 2008년까지 조직이 유지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의 초기 구성원이기도 하다. 윤 고문

은 금감위에서 감독정책2국장과 부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금융 전문가로 거듭났다. 이어 그는 2007~2010년 기업은행장, 2012~2014년 외환은행장 등 두 곳의 은행에서 은행장을 맡은 이례적인 경력을 갖추고 있다. 윤 고문이 관료 출신임에도 금융권 CEO로서 경쟁력을 갖는 이유는 그의 뛰어난 리더십과 친화력 때문이다. 그가 2012년 2월 20일 외환은행에 처음 출근할 때, 당시 노조위원장에게 미리 준비한 장미꽃 100송이를 선물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2012년 2월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였다. 자칫 노조와 갈등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윤 고문은 장미꽃 선물과 함

께 가장 먼저 노조 사무실을 찾으면서 하나-외환 통합을 선두에서 이끌어냈다.

윤 고문은 외환은행장 시절 "조직의 상처가 무엇인지 파악해 이를 잘 추스르는 것이 조직 안정화에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또 조직에서 상대적으로 젊은직원의 열망을 수용하고, 이를 업무로 실현하는 것을 주요 경영 과제로 꼽아왔다.

이규성 코람코자산신탁 이사회 의장(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윤 고문을 영입한 것도 이러한 그의 장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코람코자산신탁은 2월 주주총회 때 윤 고문의 회장 선임에 계기로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경영진의 교체설도 나오고 있다. 조직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다. 코람코자산신탁의 변화 역시 윤 고문이 선두에서 이끌어 되는 셈이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오서 코치, 韓·日·스페인 간판 앞세워 평창행

평창 티켓 만 차준환과도 호흡
피겨 유망주 상위급 육성 정평

김연아와 인연을 맺었던 브라이언 오서(57) 코치가 차준환(17·휘문고) 등 한국, 일본, 스페인 간판 선수들을 앞세워 평창을 방문한다.

오서 코치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당시 김연아의 전담코치로 활동하며 한국 피겨 첫 올림픽 금메달 획득에 힘을 보탤다. 비록 김연아와 좋은 마무리를 짓지는 못했으나 많은 피겨 유망주들을 상위급 선수로 키워내며 피겨계 톱클래스 지도자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올해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는 그가 지도한 선수들과 함께 참가할 전망이다. 일본 남자 싱글 간판인 하뉴 유즈루(24)는 2012년부터 오서 코치와 훈련했다. 그라프피 파이널 4년 연속, 세계선수권 2회 연속 정상에 오른 하뉴는 이번 올림픽에서 유력한 금메달 후보다.

또 유럽 최고의 선수로 하뉴와 양강 구도를 이루는 하비에르 페르난데스(27·스페인)도 2011년부터 오서 코치의 지도를 받았다.

특히 7일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올림픽 최종 선발 3차전에서 대역전 드라마를 쓰며 평창행 티켓을 따낸 차준환도 2015년 3월부터 오서 코치와 훈련하고 있다.



브라이언 오서(왼쪽) 코치가 차준환 선수를 지도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날 최종전에서 차준환은 마지막 프리프로그램에서 20점 차 열세를 뒤집고 총점 252.65점을 따내며 극적으로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역전 우승의 배경에는 오서 코치와 함께 세운 전략이 있었다. 오서와 차준환은 3차 선발전을 앞두고 '지난 시즌'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선택했다. 올 시즌 발에 맞지 않는 부츠와 부상으로 고생했던 상황에서 지난 시즌 좋은 반응을 끌어냈던 프로그램을 다시 사용해 평창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오서는 "차준환은 올림픽에서 10권 진입도 바라볼 수 있다"며 "평창 올림픽에는 많은 선수와 함께 갈 수 있어서 매우 흥분된다"고 말했다.

정수현 기자 int1000@

이진성 憲裁 소장 “헌법 재판, 사회 변화 수용할 수 있어야”

출입기자단과 인양산 산행
사회적 관심 사건 심리 속도

이진성(62·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이 헌법 재판은 사회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7년 제정된 이후 30년간 한 번도 합의되지 않은 개헌 논의가 최근 진전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취지의 발언으로 일한다.

이 헌재소장은 5일 출입기자단과 인양산 산행을 마치고 가진 간담회에서 "헌법이라는 게 항상 불변은 아니다"며 "사회 현실을 반영한 헌법이 생기면 그걸 반영한 결정이 바로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간통죄가 예전에는 합헌이었지만 지금은 위헌이 됐는데, 헌법 재판은 사회 변화를 수용할 줄 알아야 하고 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왼쪽)이 5일 오후 2018년 새해를 맞아 출입기자들과 함께 인양산 자락길을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민해야 한다"며 "헌법이 모두 불변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헌재소장은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주요 사건의 심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 1월에 평의를 안 하는데 어제 했다"며 "9월이 되면 5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니까 시간이 있을 때 일을 해 두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해 1월과 3월 박한철 소장,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후 주요 사건 심리를 미뤘었다. 재판관 부재로 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헌재는 이 소장과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새로 임명되면서 약 300일 만에 '9인 재판관 체제'를 회복했다. 다만 9월이되면 이 헌재소장을 비롯해 김이수, 안장호, 김장중, 강일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다.

헌재의 결정을 앞둔 주요 심리로는 최근 하급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을 비롯해 낙태죄 처벌 위헌 확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 확인 등이 있다.

장효점 기자 js62@

중군당 신입사원 파주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중군당은 신입사원 100여 명이 6일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중군당 신입사원들은 금촌동 지역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가구를 방문해 연탄 4000장을 전달했다. 또 골목 곳곳에 쌓인 눈과 얼음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저소득층 모래주머니 150여 개를 만들어 결빙구간에 배치했다. 사진제공 중군당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에 다음 CEO 출신 석종훈 씨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커뮤니케이션 CEO(최고경영자)를 지낸 석종훈(65·사진) 나무은 전 대표를 신입 창업벤처혁신실장에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신설된 중소기업부에서 창업 촉진, 벤처 육성, 중소기업 R&D 및 기술인력 관련 정책을 개발·조정하는 등 새 정부의 혁신성장전략을 현장에서 이끄는 개방형 직위다. 그간 중기부는 60여 명이 가까운 후보자를 두고 적임자 물색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전효점 기자 gradually@



인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 윤성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통신자원정책과장 정재훈 △혁신정책담당관 정민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과 이태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김서중 △기획재정부 근무강원구

◆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승진 △식품산업정책실장 이재욱 ◇실장급 전보 △한국농수산대학총장 허태웅 ◇국장급 전보 △농촌정책국장 오병석

◆산림청 (과장급 전보) △수목원조성사업단 기획과장 최은형 △영주국유림관리소장 한창술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지원과장 박동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보) △인력지원본부장 김선옥 △정보화본부장 정승열 △부산지역본부장 이익희 △대구지역본부장 조진호

◆경기도 △안양부시장 이진찬 △정문화정책관 백성주 △서울사무소장 최은석

부음

▲배성욱 씨 별세, 완용(제일기획 더제일미디어 본부장)·수섭(비즈니스인 대표)·미숙·숙민 씨 부친상. 이강조(전 SFA 팀장) 씨 장인상 = 7일, 김해 한솔병원. 발인 9일 오전 6시 30분, 055-321-6624
 ▲이순옥 씨 별세, 김영례 씨 모친상, 김중걸(전 UBC 울산방송 사장) 씨 장모

◆강릉시 △경로복지과장 심교욱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유영애 △미래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용남 △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 장찬영 △송송동장 직무대리 이영근

◆BK투자증권 (상무보 승진) △서초센터장 기기연 △경수분당센터장 이창섭 △금융상품영업팀장 신석환 △채권영업팀장 정낙원 (이사 승진) △스마트금융팀장 심상운 △프로젝트금융1팀장 최미혜 △PE1팀장 최진대 △경인센터

이정현 △WM채권전략팀 전용운 △IB기업금융팀 전재일 (부장 승진) △IBK WM센터 시화공판 지점장 이동훈 △E-BIZ지원팀장 박혜조 △OTC과생팀장 장성준 △총무팀장 김석원 △큐머니케이션팀장 김은정 △IBK WM센터 반포자이 박정용 △법인영업2팀 김진호 △프로젝트금융1팀 김성환 △복합금융팀 백나권 △투자전략팀 장희정 (신규선임) △결제업무팀장 소은희 △IBK WM센터 강남 노영진

◆한국경제신문 △대외협력국 미래전략사업부장 고주삼 △" 문화전사업부장 박재균

상 = 7일, 울산세민노조병원, 발인 9일 오전 8시, 052-920-1144

▲구도현(프로배구 우리카드 선수) 씨 모친상 = 7일, 대구 한결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6시 30분, 053-655-4444

▲이동현(사업) 씨 부친상, 최장원(중군당홍길동전무) 씨 장인상 = 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9일 오전 9시, 02-3410-6903

2030을 위한 부자 내비게이션
 '월급으로 내 집 장만'이 꿈같은 이야기라고?
 아니다, 이 책을 만나게 된다면!

화제의
신간

월급으로
내 집
장만하기

27세에 집 2채, 상가 1채 주인이 되다!
 # 나를 살게 해준 건 월급, 나를 행복하게 해준 건 월세
 # 월급으로 집을 사는 방법, 부자가 되기 위한 정신무장법,
 경제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는 방법

이하나 지음 | 284쪽 | 14,000원

www.muhan-book.co.kr | 원고 투고 muhanbook7@naver.com | 전화 (02)322-6144 | 팩스 02-325-6143

Trust

SINCE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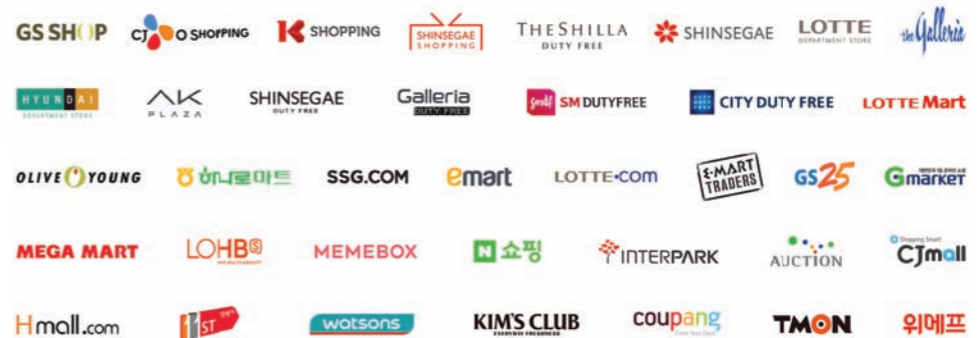
TS모델 황치열, 송지호, 차인표

꼭꼭 감아라 TS로 감아라

TS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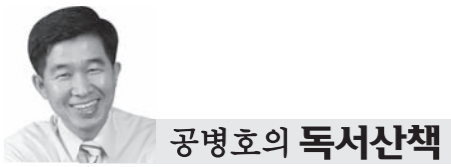


TS샴푸를 만날 수 있는 곳



SBS 아침연속극 '해피시스터즈' 메인협찬
120부작 / 12월 4일(월) 첫방송!





공병호의 독서산책

질 리포베츠키 '가벼움의 시대'

가벼워도 너무 가벼운 시대가 됐다. 가벼움을 향한 전진은 앞으로도 멈춰 설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져볼 수도 있지만 가벼움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만큼 기적이 있다. 철학과 교수인 질 리포베츠키의 '가벼움의 시대'는 문명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로 중요성을 띠기 시작한 가벼움을 다양한 각도로 조명한 책이다. 다양한 각도는 책을 구성하고 있는 8개 장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경제와 소비 △상품 단장하기 △패션과 여성성 △예술 속의 가벼움 △건축과 디자인의 가벼움 △자유와 평등 그리고 가벼움 등으로 이뤄졌다. 독자 가운데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가벼워지고 있다는 점을 못

찾고 쫓아 흐르는 이상적인 나라를 기다리지 않는다. 더 이상 혁명, 해방 등을 믿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냥 가벼움을 꿈꿀 뿐이다”라는 저자의 말에 공감하게 된다. 앞으로 가벼움은 어떻게 변모될까, 가벼움은 스쳐가는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부류의 문명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로 '가벼운 것의 문명'이다. 저자의 전망은 이렇다. “이 문명은 이제 겨우 시작되었을 뿐이지만,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영역을 확장해 가면서 새로운 위업을 달성하고, 새로운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불러 일으킨다.” 가벼운 것의 하이퍼모던한 혁명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바이오 테크놀로까지, 날선함에 대한

이민학 칼럼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블록체인과 共有經濟의 진화

하다. 효율을 제공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과 혁신을 제공하는 롱테일 스타트업 기업의 융합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적 모습인 것이다. 문제는 거대 플랫폼 기업이 과거 오픈인 독점 기업보다 더 큰 횡포를 자행할 것이라는 우려다. 공유 플랫폼 경제의 창출 가치 대부분을 결국 플랫폼 기업이 독식할 것이라는 공포다. 특히 우버의 경우 기존 택시 사업자와 이해 관계가 충돌하면서 많은 국가에서 사업을 제한하고 있다. 미래로 가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다. 첫째는 공유 플랫폼 경제를 거부하는 것인데, 그 결과는 4차 산업혁명의 낙오 국가가 된다. 둘째는 공유 플랫폼 경제를 방치하는 것인데, 그 결과는 양극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할 세 번째 시나리오는 공유 플랫폼 경제를 선도하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개방 투명성의 보장은 4차 산업혁명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합의 사항이다. 신뢰의 중요

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신뢰는 오랜 기간의 사회 활동의 누적된 문화 자산이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창출하는 부의 선순환 분배를 위한 신뢰의 기술이 요구되는 이유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Block-Chain)의 본질은 바로 '신뢰의 기술'이다. 공유 플랫폼 경제는 부의 분배를 담당할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새로운 진화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블록체인은 분산된 신뢰다. 플랫폼의 거래 수단이 되고, 거버넌스(지배 구조)가 된다. 블록체인으로 인하여 허브(Hub)인 플랫폼이 없거나, 거버넌스가 투명하고 개방된 민주화한 플랫폼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제 허브가 있는 인터넷인 WWW(World Wide Web)의 시대가 가고 허브가 없는 진정한 분산 인터넷인 WWB(World Wide Blockchain)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라주즈(Lazooz) 등은

우버와 달리 별도 운영 허브 없이 블록체인 기반 공개 코드에 의해서만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정 플랫폼 사업자에 과도한 권력이 부여되지 않는 공유 플랫폼 경제가 다양한 스타트업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일반적 기대는 금물이다. 모든 거래 정보를 모두가 공유하는 완전 분산 구조는 데이터 낭비가 워낙 크다. 공유 데이터가 많은 대부분의 플랫폼들은 지배 구조 데이터는 분산하되 운영 데이터는 집중화하는 이원 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결국 공유의 목적에 따라 분산-집중의 양면성을 갖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공유 플랫폼들이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은 신뢰의 기술 제공을 통해 공유 플랫폼 경제를 새롭게 진화시킬 것이다. 세계적으로 인터넷 혁명에 앞장선 한국의 벤처인들이 블록체인 혁명에도 선두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좋은 소식과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이 기회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는 나쁜 소식을 함께 전하고자 한다.

이제 革命이나 解放을 믿지 않는다

마땅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저자의 연구를 참조하면 우리나라의 현상이 아니라 범세계적 현상이자 새로운 문명의 특성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처럼 가볍고, 유동적이고, 빠르게 이동하는 물질세계에서 살았던 적은 결코 없었다. 가벼움이 이만큼 기대와 욕망, 압박감을 만들어 낸 적도 결코 없었다. 가벼움이 이만큼이나 많이 사고 팔게 만든 적도 결코 없었다.” 하지만 이런 가벼움을 찬양하는 시대가 비단 지금만의 일은 아니다. 알짜이 프리드리히 니체는 “가벼운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다. 가벼움을 불러일으킨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세계와의 관계가 극단적으로 개인주의화되는 현상이 가벼움이란 혁명을 불러일으킨 주요 원동력이 됐다. 저자는 “개인들은 종교와 가족,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분리되고' 풀리고 이탈해 마치 사회적으로 부유 상태에 있는 원자들처럼 기능한다. 그러면서 역설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말한다. 이제 사람들은

송배에서 가벼운 먹거리까지, 활강 스포츠에서 긴장 해소 테크닉까지, 패션 경향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가벼움은 하찮고 무의미한 유행이 아니라 총체적인 사회적 사실로 자리 잡고 있으며, 세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 하지만 가벼운 것의 문명은 결코 가볍게 사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사회적 규범의 무게는 가벼워졌지만 삶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업, 불확실성, 빠듯한 일직 삶의 무게감은 훨씬 묵직해지는 시대가 됐다. 이 책을 읽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은 가벼움은 정치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시민들은 먼 미래보다 가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정치인이나 정책에 후한 점수를 주는 시대가 펼쳐질 것이란 점이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에게 불편한 현상이지만 피할 수 없는 가벼움의 시대를 잘 조명한 책이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세상 변화를 바라볼 수 있게 돕는 책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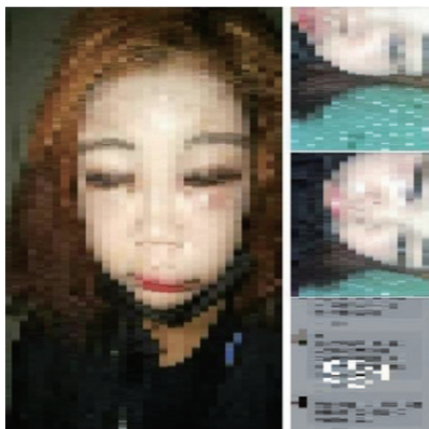
객미(客味)

대로만 풀이하자면 '손님 맛'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예술은 전통적으로 '상외지상(像外之像)', '운외지운(韻外之韻)', '미외지미(味外之味)' 등을 숭상해왔다. '객'은 '밖' 외라고 훈독하고 '미'는 흔히 '갈' 지라고 훈독하지만 '~외'라는 소유격으로 많이 쓰는 글자이다. 따라서 '~外'는

'밖의'라는 뜻이다. '객'은 '형상 상', '韻'은 '운'이라고 훈독하는데 '소리'의 운율감; '시나 음악의 운율, 사람이나 예술작품의 멋스러움인 '운치(韻致)' 등을 뜻하는 글자이다. 그러므로 '상외지상'은 '형상 밖의 형상', '운외지운'은 '운치 밖의 운치', '미외지미'는 '맛 밖의 맛'이라는 뜻이다. 시나 산문 혹은 그림이나 음악에 직접 표현된 형상이나 운치나 맛 말고 그 이면, 즉 행간에 숨어 있는 또 하나의 형상과 운치와 맛을 그렇게 표현해낸 것이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한 경우, '미제산함지외(味在酸鹹之外: 在있을 재, 酸 산, 鹹 짠 함), 즉 '침맛은 시고 짠 맛 밖에 있다'고 한다. 음식에 넣은 것은 식초, 소금 등인데 우리나라 맛은 신맛이나 짠맛만이 아니라 오묘한 다른 맛이 있을 때 '미제산함지외'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이처럼 '~지외'의 맛, 즉 '~밖의 맛'을 일러 전라도 지방에서는 '객미(客味)'라고 한다. 실은 객미가 진짜 맛이다. 2018년에는 우리네 음식에도 삶에도 객미가 더하기를 바란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온라인 모자모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성매매 강요까지 당해... '少年法 폐지' 커지는 목소리



인천에서 졸업을 앞둔 여고생이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남성고 10대 여성 등 4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고 성매매도 강요 받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에 사는 A 양의 부모는 “딸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인 A 양도 부모와 동행해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A 양은 경찰 조사에서 “3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인천 남동구 일대 길거리 등지에서 6시간가량 B 씨 등 20대 2명과 C 양 등 10대 여학생 2명에게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폭행을 하던 그들은 자신들의 옷에 피가 묻어 더러워졌다며 현금 45만 원을 요구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했다”고 말했다. A 양은 C 양 등 10대 2명과 가깝게 지냈으며 B 씨 등 20대 남성 2명은 최근에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고소인의 신원은 모두 확인했다”며 “혐의가 인정되면 공동 상해나 공동 감금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때 페이스북 등 SNS에는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폭행을 당해 엉망이 된 A 양의 얼굴 사진이 올라와

네트즌의 공분을 일으켰다. 네이버 아이디 'my40****'은 “아무리 절 없는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저리 가혹한 짓을, '소년법' 폐지하고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한다. 날로 흉폭해지는 청소년 범죄를 뿌리 뽑자”라고 주장했다. 네이버 아이디 'cwyh****'는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어린 아이들이 성매매까지 관여하니, 강력한 처벌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아이디 'pooq****'는 “갈수록 청소년들이 심각한 강력범죄에 연루되는 사건이 많아진다. 이래서야 무서워서 아이를 낳고 싶겠다.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영 기자 jiy0403@

랜섬웨어 정보센터 www.hauri.co.kr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바이로봇 Anti-Ransomware

바이로봇 APT Shield 2.0

바이로봇 7.0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주) 하우리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38 (예일빌딩) 6층 | 대표전화 02-3676-1100

데스크칼럼



이진우 산업부장

비트코인 아나키스트

세해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8월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500만 원에 달한다. 역대 최고치에 가깝다. 작년 말 두어 차례 급락했던 것을 빼면 폭락할 듯하면서 급등세를 이어가는 셈이다.

논란도 불붙고 있다. 거품, 과열이란 단어는 이제 비트코인의 또 다른 수식어가 됐다. 그런데 왜 논란 속에서도 비트코인은 끊임없이 오를까.

정부는 시장을 냉각하려 계좌 검사 등 또 다른 규제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비트코인은 한 국가의 통제 대상이 되기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비트코인 거래를 규제하면 투기가 없어지고 거품이 빠질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냥 다른 나라에서 거래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이런 게 가능하다. 예를 들

어 A가 국내 거래소를 통해 1비트코인을 구매했다고 치자. 이 사람은 자신만의 전자지갑에 비트코인을 보관할 수 있다. 전자지갑 간 이동은 추적할 수 없다. 따라서 국내 거래소가 막으면 전자지갑을 통해 해외 거래소에 송금하고 거래하면 그만이다.

작년 12월 한국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가상화폐 규제책을 내놓았다. 사람들은 이때마다 가격이 내려갔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첫 번째 가상화폐 폐쇄설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고점 대비 30% 넘게 폭락했지만, 이는 한국 때문이 아니었다. 당시 외신들은 단 한 곳도 한국 규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보면 가격 급등에 따른 조정이었을 뿐이다.

두 번째로 한국에서 거래소 폐쇄가 언급됐을 때는 전 세계 가상화폐 가격이 내려갔다. 비트코인 가격은 순간 급락했고, 해외에서도 한국의 규제 소식을 주요하게 다뤘다. 하지만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는 규제의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다. 처음부터 규제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

이다. 비트코인은 이런 면에서 '아나키스트(무정부주의자)' 성격을 가진다. 한 국가나 정부에 귀속된 자산이나 화폐로 보기 어렵다. 컴퓨터가 있는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비트코인은 만들어질 수 있고, 거래될 수 있다. 이런 아나키스틱적인 자산을 자꾸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화폐처럼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법 자체부터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트코인은 만들어질 때부터 '투기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화폐는 기본적으로 필요할 때 찍어낼 수 있는 '무한성'을 가져야 하는데, 예컨대 비트코인의 채굴량은 2100만 비트로 제한돼 있어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가상화폐가 투기성을 띠는 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에서 비트코인은 '혹수제'가 단번에 '금수제'가 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는데, 실제 그런 색채를 띠고 있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다. 이런 태생적인 문제를 자꾸 기존의 법적인 틀로 규제하려 해

서는 안 된다. 그러면 시장은 규제를 피하려 '꼼수'를 만든다. 결국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미국의 온라인 투자전문 매체 시킹알파(Seeking Alpha)는 많은 논란 속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부정적인 전망 속에서도 많은 증권사가 비트코인 선물을 거래하려 대기하고 있고, 둘째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한 투자와 발전은 계속될 것이며, 셋째 비트코인이 광범위하게 통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요약했다. 특히 비트코인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진다. 최근 페이스북의 창립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언젠가 비트코인이 페이스북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가 주목한 것은 '탈중앙화'를 의미하는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었다.

정부가 비트코인을 제대로 규제하려면 가상화폐 시장의 구조와 성격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일반적인 투자 자산인 주식, 부동산, 외환 시장 등을 다뤘던 방식으로 근접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woo@

배준호의 세계는 왜?

국제경제부 차장



中 '公害와의 전쟁', 기회 혹은 위기

지난달 중국에서 '난방대란' 또는 '가스대란'으로 불리는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당국이 악명 높은 스모그 문제를 완화하려고 석탄 사용을 금지하고 천연가스 난방기를 쓰라고 강압적인 정책을 성급하게 펼치면서 동상에 걸리는 주민이 속출한 것이다. 이는 주민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사회문제로 비화하기도 했다.

지방정부가 환경오염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충성 경성을 벌이다 이런 파탄을 냈다는 비판이 빚발쳤다. 일부 주민은 공산당이 저소득층인 농민을 푸대접한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관료주의를 비롯한 반응이 대부분이 향후 3년간 가장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한 환경오염 해결과 빈곤 척결이 상충하는 모순된 현실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 세계 기업들은 가스대란을 단순한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진핑의 '공해와의 전쟁'에 대한 의지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경각심을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구조를 뒤 흔들면서 기업들을 순식간에 위기에 빠뜨릴 파괴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제지업체의 한 관계자로부터 최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신용카드 전표 잉크에 검은색 대신 푸른색이 많이 쓰일 것이라며, 이런 배경에 바로 시 주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 신용카드 잉크 대부분을 중국 업체가 공급하고 있었는데, 당국이 지난해 가을 환경오염을 이유로 공장들을 전격적으로 폐쇄해 공급난이 일어나

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검은색 잉크 대신 환경에 덜 피해가 가는 푸른색으로 대체하는 움직임이 생겨난 것이다. 중국의 환경오염과의 전쟁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낀 순간이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재활용업체들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 쓰레기 수입대국이었던 중국이 지난해 환경 보호를 이유로 고체 폐기물 24종 수입을 중단하면서 자국 내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또 중국 정부가 가스대란을 일으킬 정도로 강력한 단속을 펼치면서 베이징(北京) 등 북부 지방의 대기 질이 개선되지, 방진 마스크와 공기정정기 등이 팔리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최근 들려오고 있다.

당연히 시진핑이 공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걱정에 벗어날 수 있는 등 좋은 일이 더 많다.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 입장에서 글로벌 공급망 체계나 소비자의 기호가 순식간에 변하면서 사업 환경이 악화하는 위기도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이제 중국 정부의 환경오염 해결 노력이 말로만 그치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가 왔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말 열렸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예년처럼 1년이 아니라 3년의 중기 계획을 제시했다. 환경오염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제는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환경오염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은 중국시장의 문이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 공급망의 변화에서 중국이 빠진 반자리를 채울 수도 있다. 시진핑의 '공해와의 전쟁' 희생양이 되느냐, 아니면 도약하느냐는 이제 기업 하기에 달렸다. baehj94@

객석

김종윤 피알원 디지털마케팅본부 과장



직업에 감정은 사치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7.8년 전 좋게 말하면 선배, 나쁘게 말하면 꼰대들이 나에게 "빨리 프로가 돼야지, 언제까지 아마추어처럼 굴 거야"와 같은 시답잖은 소리를 했었다. 그리고 지금 좋게 말하면 선배, 나쁘게 말하면 능력 없는 윗사람들이 나에게 "빨리 네 후배도 너처럼 프로로 만들어야지"와 같은 이해 안 되는 소리를 한다.

프로와 아마추어는 사전적으로도 다른 의미가 있다. 아마추어는 '어떤 일을 취미로 삼아 즐기는 비전문가', 프로는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한다.

사전적인 정의를 보고는 나도 모르게 실소가 나왔다. 직업을 그런 기준으로 분류한다면 나는 아마추어도, 프로도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좋아서 하지 않을 뿐더러 전문적인 기술은 더더욱 없다. 그냥 원초적인 이유, 돈이 필요해서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

이 과연 몇이나 될까, 아니,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해도 돈이라는 요소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지속할 수 없다. 직업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애초에 직업을 프로와 아마추어로 나누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직업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에 종사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몇몇 후배들은 "이 일이 좋아서 지원했습니다"라는 포부를 당당히 밝히고 입사했지만, 1년도 못 채우고 그만두는 것을 수없이 봤다. 그에 반해 난 '돈 주니까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같은 필드에서 7.8년의 세월을 보내며 생각보다 좋은 대우와 인정을 받고 있다.

애초에 직업에 돈 이상의 가치를 바라면 안 된다. 생각해 보면 인간이 가진 '기대'라는 감정이 모든 힘든 감정을 낳는 매개체가 되는 것 같다. 처음부터 기대가 없다면 실망도 없을 것이니까.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힘들어질 뿐이다.

기자수첩

박규준 기업금융부/abc84@



'勞治'보다 위험한 것

최근 한 국책은행 노조위원장은 "우리도 회사가 잘되길 바라는 사람인데, 노조 측 인사에 이사회에 참여하면 마치 회사나 나라가 망할 것처럼 사측과 언론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경영진이 정권 눈치 보느라 막무가내로 따르는 정부 정책들에 대해, 노조가 견제의 목소리를 내면 장기적으로 은행과 고객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3월 주주총회를 앞둔 금융권의 최대 화두는 이사회에 노조 측 인사를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금융공기업)와 근로자 추천이사제(민간은행) 도입 여부다. 근로자가 직접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이 노동이사제라면, 근로자추천이사제는 근로자(노조)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가 이사회에 참석하는 제도다.

은행권 사측은 노조의 경영 참여에 대해 "노조가 직원복지 외에 경영까지 개입하는 것은 물론 행위", "이사회에서 사사건건 발목 잡아 의사결정 지연"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 이사회 구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왜 나오게 됐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사내 경영진과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주사들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보면 사외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석해 반대표결을 행사한 경우는 없다시피하다. 한 표라도 반대 표결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식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정도다. 이런 사외이사제 무용론은 1997년 도입 이래 20여 년간 반복돼 온 고질적인 문제다.

지난주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정운희 씨 동생이 임원으로 재직했던 회사에 거액의 특혜대출을 해줬다는 의혹 관련 감사에 들어갔다. 노조 측 사외이사가 존재했다면 이런 터무니없는 의사결정들이 조금이라도 견제받을 수 있지 않을까. 노치(勞治)가 아닌, 견제받지 않는 이사회가 더 위험하다.

이투데이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정우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논설실 (02)799-6701	정치경제부 (02)799-2663	정책사회부 (02)799-2612
기업금융부 (02)799-2665	산업1부 (02)799-2648	산업2부 (02)799-2641
자본시장부 (02)799-2664	국제경제부 (02)799-2643	온라인뉴스부 (02)799-6741
사건팀 (02)799-2646		

광고접수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 배달안내 (02)799-2684

www.eltoday.co.kr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069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한국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4차산업혁명의 시대, 기업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카드업계 1등기업 신한카드가 공개하는 금융의 미래

- 2,200만 고객 데이터라는 압도적 빅데이터
- 업계 최초로 설립한 빅데이터센터
- IoT의 시작점 커넥티드 카 커머스
- 생체인증 핀테크로 열리는 카드 없는 사회
-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술 예방하는 사이버 금융범죄……

더 안전하고 편리한 소비생활, 사용자 개개인에 딱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신한카드의 깊이가 다른 혁신의 철학 'DEEP'이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간다!

신한카드 지음 | 304쪽 | 14,000원

CES 서 맞붙는 삼성 vs LG... '감성 자극' 스마트폰 强者는

삼성, 젊고 감각적인 '갤A8' 출시
셀피·삼성 페이·빅스비 기능 강화

LG는 V30 '라즈베리 로즈' 공개
영화같은 영상 콘텐츠 관심 끌 듯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새해를 맞아 스마트폰 신제품을 잇따라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2018년형 영 프리미엄(Young Premium) 스마트폰 '갤럭시A8'을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5일 출시했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일상의 가치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2030세대를 겨냥한 2018년형 '갤럭시 A8'은 차별화된 카메라 기능과 혁신적인 디자인 등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특징점을 한층 더 젊고 감각적으로 계승했다.

우선 2018년형 '갤럭시A8'은 셀피를 즐기는 젊은 소비자를 위한 강력한 카메라 기능을 갖췄다. 전면에는 각각 1600만 화소, 800만 화소의 듀얼 카메라를 탑재하고 조리개 값 F1.9 렌즈를 적용해 초고화질의 셀피 촬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촬영 시와 촬영 후에도 원하는 만큼 배경을 흐리게 처리할 수 있는 '라이브 포커스' 기능을 지원한다. 더욱 입체감 있는 셀피를 촬영할 수 있다.

후면 카메라는 1600만 화소에 조리개 값 F1.7의 렌즈를 탑재해 낮과 밤 모두 보다 선명하고

SAMSUNG 새해 출시 스마트폰 비교

2018년형 갤럭시A8

특징 카메라 기능 특화
내용 전면 듀얼카메라 (1600만, 800만 화소)로 초고화질 셀피 촬영, 후면 카메라는 1600만 화소에 조리개값 F1.7의 렌즈 탑재.

LG

V30 라즈베리 로즈

특징 사운드 기능 특화
내용 오디오 명가 B&O 플레이 (B&O PLAY)와 협업, 대용량 하이파이 고음질 음원을 저용량으로 압축하는 MQA 규격 스마트폰 최초 지원.

깨끗한 사진촬영이 가능하다. 또 VDIS(Video Digital Image Stabilization) 기능으로 동영상 촬영 시의 흔들림을 보정해 안정적이고 선명한 촬영이 가능하다.

2018년형 '갤럭시 A8'은 디스플레이의 한계를 확장한 18.5:9의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 짝 찬 대화면은 다양한 크기의 영상 콘텐츠를 더욱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 사용자에게 최상의 보는 경험을 선사한다. 유려한 글라스와 메탈 프레임의 부드러운 곡선이 어우러져 고급스럽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완성했다. 또 스마트폰 이용에 최적화된 편안한 그림감도 제공한다.

2018년형 '갤럭시 A8'은 젊은 층에게 특히 매

력 있는 프리미엄 기능들도 대거 탑재했다.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 페이' 사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지능형 인터페이스 '빅스비(Bixby)' 중 '빅스비 홈', '빅스비 리마인더', '빅스비 비전'을 지원한다. IP68 등급의 방수·방진 기능과 함께 '갤럭시A' 시리즈 최초로 '기어 VR'와도 호환된다.

'갤럭시A8'은 32GB 내장 메모리에 블랙, 골드, 블루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출고가는 59만 9500원이다. 삼성전자는 2018년형 '갤럭시 A8' 출시를 기념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2월 28일까지 '5천원의 행복' 이벤트를 진행한다. 개통 후, 삼성 멤버스 또는 삼성 페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에게 블루투스 스피커 JBL

Go(4만4000원 상당), 정품 네온 플립 커버(3만 3000원 상당), Kick-Tok+Ring Tok 커버 세트(3만9000원 상당)를 5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LG전자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8'에서 LG V30의 새로운 색상인 '라즈베리 로즈'를 공개한다.

'라즈베리 로즈'는 강렬한 채도의 새로운 레드 계열 색상이다. LG전자는 기존 △모로칸 블루 △클라우드 실버 △오로라 블랙 △라벤다 바이올렛 색상에 이은 라즈베리 로즈를 추가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더욱 넓혔다고 설명했다. LG V30 라즈베리 로즈는 1월 한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하정옥 LG전자 단말사업부장 전무는 "강렬하고 사랑스러운 라즈베리 로즈 색상의 LG V30이 고객들의 모바일 라이프에 열정을 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LG V30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감성을 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LG전자는 하와이관광청, 여행에미치다와 제휴, V30로 촬영한 하와이 영상을 최근 공개하는 등 V30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영상은 다양한 색감 표현이 가능한 '시네 비디오 모드'를 비롯해 광고 등 멀티미디어에 최적화된 LG V30의 기능만으로 촬영된 것이다. 이를 통해 하와이 코나(KONA) 지역의 광활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자연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LG전자 관계자는 "뮤직비디오, TV CF, 영화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통해 누구나 쉽게 영화같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LG V30의 기능을 알리고 있다"며 "지난 하반기 100만 뷰를 기록하며 일반인의 관심을 모았던 LG V30 이탈리아 로드 트립 영상에 이어 일반인이 선보이는 이번 영상 역시 젊은 층들에게 제품의 장점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스마트폰 두뇌도 업 업~

고성능 모바일 AP '엑시노스9' 양산
삼성 상반기 출시 '갤럭시S9'에 탑재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최신 모바일AP 양산에도 나섰다. 초고속 모뎀을 탑재하고 AI연산 기능을 강화한 고성능 모바일 AP '엑시노스9(9810)'는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S9'에 탑재된다.

'엑시노스9(9810)'은 2세대 10나노 핀펫 공정을 기반으로 독자 개발한 3세대 CPU 코어와 업계 최고 수준의 LTE 모뎀을 탑재한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솔루션이다. 최대 2.9GHz로 동작 가능한 고성능 빅코어 4개와 전력 효율을 높인 리틀코어 4개가 결합된 옥타(Octa)코어 구조로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했다.

삼성전자는 CPU 설계 최적화로 명령어를 처리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및 캐시메모리 성능 향상을 통해, 싱글코어의 성능은 이전 제품 대비 2배, 멀티코어 성능은 약 40% 개선했다.

특히 엑시노스9는 신경망(Neural Network)을 기반으로 한 딥러닝 기능과 보안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기에 저장된 이미지들을 스스로 빠르게 정확하게 인식하고 분류할 수 있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원하는 이미지를 찾을 수 있다.

또 3D 스캐닝을 통한 정확한 안면 인식이 가능하며, 별도의 보안전용 프로세싱 유닛(Unit)을 통해 안면, 홍채, 지문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엑시노스9(9810)는 삼성전자가 개발한 Cat.18 6CA(Carrier Aggregation) 기술 기반 모뎀이 탑재돼 업계 최고 수준인 1.2Gbps의 다운로드 속도와 200Mbps의 업로드 속도를 구현한다. 1.2Gbps는 1.5GB 용량의 HD급 화질의 영화 한 편을 10초에 내려받을 수 있는 속도다.

이 밖에도 4개의 송수신 안테나를 사용해 속도를 높인 4x4 MIMO 다중안테나 기술과 와이파이, 블루투스5와 같은 비면허대역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있는 eLAA(enhanced Licensed Assisted Access) 기술을 적용했다.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고해상도 인터넷 방송이나 360도 비디오 스트리밍 등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다.

한편, 이 제품은 9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2018에서 글로벌 고객들에게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송영록 기자 syr@

THINKWARE

블랙박스는 역시 - **아이나비**

강소라의 플래티넘 블랙박스

세계최초 전/후방 QHD

아이나비퀀텀

단 한 순간도 놓치지 않는다
세계최초 전후방 QHD 플래티넘 블랙박스

아이나비퀀텀

Key Features

QHD

세계 최초 전후방 QHD 화질
원색의 영상 복화를 위한 최고의 선택

UNV

Ultra Night Vision
어떤 상황에서도 밝고 선명한 영상 녹화

BSD

Blind Spot Detection
후측방 사각 지대를 감지하는 기술

SID

Super intelligent Detection
소리가까지 잡아내는 지능형 충격 감지 녹화

전후방 QHD 화질 HD화질 보다 4배 더 선명한 초고화질 영상 녹화

저조도 환경에서 주차, 주차 시까지 밝고 선명한 영상 기록

후측방 사각지대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더욱 안전한 차선 변경 정보 제공

G센서의 움직임과 외부의 충격음을 감지한 지능형 감지 녹화 기술 적용

구리·니켈·아연값 '뽕박질' 거침없네

대형광산 가동중단·생산규제 여파
올해 가격 상승세 지속 전망 따라

2018년도 비철금속 가격 전망 (단위: US \$/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구리	7031	6999	6928	6907
니켈	1만2387	1만2614	1만2728	1만2755
아연	3092	2888	3162	2991

*출처: 한국광물자원공사

지난해 비철금속 가격의 거침없는 상승세로 업계별 실적 회복이 엇갈리던 이어 올해도 대형 광산들의 가동 중단, 생산 규제 여파 등으로 동(구리), 니켈, 아연 등 비(非)철금속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인프라 확대 정책, 미 달러가치 하락 등으로 원자재 시장의 개선 흐름이 지속됐다. 올해 역시 비철금속의 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동은 2017년 평균 톤당 6155달러를 기록, 전년 평균(4863달러)보다 27%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동 가격은 4년 내 최고치인 톤당 7140달러를 기록했다. 올해도 세계 최대 구리 광산인 칠레 에스콘디다 등 대형 광산의 노동계약 갱신협상이 다수 진행됨에 따라 노조파업의 추가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중국의 스크랩 수입규제도 추진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자원정보 협력팀은 "동 가격이 톤당 7000달러에 근접하면서 중국의 고비용·중소형 광산들의 시장진입 가능성이 예상되며, 중국의 경제성장 정책이 양에서 질로 전환되면서 전기동 실물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동 가격은 톤당 7000달러 초반까지 상승했다가 점차 상승 압력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니켈은 미 달러 약세와 중국의 니켈선철 생산규제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가격이 상승했으

나, 인도네시아의 니켈원광 수출 확대가 이를 부분적으로 상쇄해 가격상승률이 동, 아연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니켈은 2017년 평균 톤당 1만392달러를 기록해 전년 평균(9609달러) 대비 8% 증가했다.

올해는 세계 최대 철광석 공급사 발레의 감산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상승 압력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니켈은 2018년 톤당 평균 1만 2000달러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연은 지난해 대형 광산의 폐광과 함께 전기차 생산 확대로 소비가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이 크게 나타났다. 아연은 2017년 평균 톤당 2892달러를 기록해 전년 평균(2095달러)보다 38% 가격이 상승했다. 올해도 공급 부족과 낮은 재고 수준이 가격을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자원정보협력팀은 "아연 가격이 톤당 3000달러 중반을 넘어서면 중국 내 고비용 아연광산의 가동 재개 유발과 대형 광산들의 확장 및 재가동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상승률은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2018년은 톤당 3000달러 초반대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며 횡보하다가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눈길도 꽃길처럼, 주목받는 國產 4륜구동

쌍용차 '2018 코란도 투리스모'
경쟁 모델 중 유일한 4WD 채택
디자인 강화, 스마트기 연동 쉬워
르노삼성 'QM6'
2륜구동 대비 합리적 가격 강점
구매자 절반 이상 4륜 모델 선택



르노삼성 'QM6'(왼쪽)와 쌍용차 '2018 코란도 투리스모'.

겨울철을 맞아 4륜 구동(AWD)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주목받고 있다. 빙판길과 눈길 등 험한 노면에서 비교적 안정적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대표적 4륜 구동 SUV는 쌍용자동차 '투리스모 G4 럭셔리'와 르노삼성자동차 'QM6'다. 8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4륜 구동차는 네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구동 방식으로, 2륜 구동(2WD)과 비교해 추진력과 접지력이 좋다. 때문에 겨울철 빙판길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4륜 구동차를 찾는 일이 잦다. 최근에는 쌍용차와 르노삼성의 SUV가 눈에 띈다. 쌍용차는 2018년 새해 첫 신차로 외관 디자인과 편의 사양 강화 등으로 상품성을 대폭 끌어올린

'2018 코란도 투리스모'를 선보였다. 쌍용차는 3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레이아웃에서 가진 신차 출시 행사를 통해 2018 코란도 투리스모를 출시하고 전국 전시장에 통해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8 코란도 투리스모는 차량 앞부분 라디에이터 그릴을 대폭 확대하고 보닛(후드)에 라인을 추가해 기존 모델보다 강인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또한 발광다이오드(LED) 주간 주행등을 그린상단 라인과 연결해 일체감 있고 세련된 이미지를 완성했다. 스마트키와 차량을 연결해주는 미러링 시스템을 적용해 차량 내 스마트키 활용성도 높였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미러링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와이파이(Wi-Fi)를 통해 안드로이드 스마트키의 모든 애플리케이션

(앱)을 양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라디오 주파수 자동 변경, 라디오 실시간 음원 저장 기능과 음성인식 기능과 ETCS(하이패스)와 ECM 룸미러를 전 트림 기본 적용했다. 여기에 중전 모델과 달리 18인치 휠이 최초 적용됐다. 모델에 따라 다이나믹드라이빙과 스포터링휠이 장착된다. 코란도 투리스모는 경쟁 모델 중 유일하게 4륜 구동 방식을 채택했다. 오프로드와 눈길, 빙길 주행에서 안전성이 높다는 게 쌍용차 측 설명이다. 11인승은 연간 6만5000원의 자동차세를 내면 된다. 6인 이상 승차 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췄다. 쌍용차 관계자는 "더욱 강화된 SUV 스타일과 뛰어난 상품성으로 거듭난 2018 코란도 투리스모는 전천후 아웃도어

활용성과 스마트기 활용성을 극대화해 차별화된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르노삼성은 4륜 구동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QM6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르노삼성에 따르면 QM6의 4WD 구매 비중은 50%를 넘는다. 버튼 조작만으로 앞바퀴 굴림 모드(2WD), 자동 모드(오토), 4WD 상시 구동 모드(록)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자동 모드는 주행 중인 도로 환경과 속도 등을 차가 스스로 분석해 네 바퀴에 구동력을 자동 분배한다. 앞바퀴에는 100~50%, 뒷바퀴에는 0%부터 최대 50%까지 전달한다. 상시 4륜 구동 모드는 앞바퀴와 뒷바퀴 구동력을 50:50으로 고정한다. 오토 모드로는 주차하기 힘든 환경인 비포장도로나 험로, 눈길 등에서 유용하다. 르노삼

성 특유의 안정감과 정숙성은 기본이다. QM6는 동급 경쟁 차종인 쉐보레와 싼타페가 양분했던 중형 SUV 시장에서 점차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QM6의 디자인은 글로벌 명품 반열에 오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역동적이고 강인하다. 넓은 그릴과 수직적인 앞 유리, 긴 후드는 힘 있는 모습을 더한다. 여기에 헤드라이트부터 양 측면을 가로지르고 후면은 수평적 디자인 흐름을 크롬 머플러 데코를 통해 강조해 강렬함과 함께 고급감을 입혔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QM6 4WD의 인기 요인은 2WD 대비 높지 않은 합리적인 가격이 꼽힌다"며 "올모드 4X4 시스템의 장점을 경험한 소비자의 입소문도 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hlee@

타보니 렉서스 신형 'LS500h'



野獸 같은 엔진음에 '감성' 하이브리드

(스포츠 모드)

고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車體에 가벼운 스티어링 휠로 재미 더해 명품오디오·마사지 시트 인상적

"하이브리드차는 지루하다는 편견을 지우는 데 주력했습니다." 렉서스는 신형 'LS500h'를 내놓기까지 11년을 할애했다. 소비자의 요구사항 파악에 기민하게 움직였고, 하이브리드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 브랜드가 선점하고 있는 국내 고급 대형 세단 시장에 렉서스가 뛰어어들었다. 렉서스가 내세운 무기는 LS500h다. 수입 하이브리드차 흥행 열풍을 등에 업고 11년 만에 완전 변경(풀체인지)된 모델을 출시했다. 새 옷을 입은 신형 LS500h를 타고 인친 영종도 일대 72km 시승해 봤다. 차량의 외관은 렉서스가 고집한 흔적이 담겨 있다. 렉서스는 하이브리드차가 지루하고 '울드'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위해 LS500h 디자인에 오랜 시간을 공들였다. 자동차의 전체 디자인을 좌우하는 전면부 그릴에는 렉서스의 상징인 스피럴 그릴을 적용했다. 그릴의 크기를 기존 모델보다 크게 키워 중후하면서도 혁신스러운 디자인을 연출했다. 차체는 낮고 넓어져 안정적이면서도 역동적인 모습을 강조해 디자인이 한층 젊어졌다. 본격적인 주행을 해봤다. LS500h는 정차했을 때와 주행을 할 때 그 모습이 180도로 달라졌다. 정차했을 때 앞면의 소음이 없었다면, 주행할 때는 역동적인 청년의 모습이었다. 시동을 켜자 하이브리드 모델다운 고요함으로 편안함을 선사했지만, 주행에 들어가자 다이내믹한 엔진 소리가 감성 주행을 북돋웠다. 기술 패달을 밟자 반응 속도는 수준급이었다. 차체가 큰 플래그십 세단임에도 꽤나 스포티한 모습이었다. 넓은 차체 때문인지 고속 주행 구간에서도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보여줬다. 시승한 날은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웠지만 브레이크를 수시로 밟아도 안정감을 유지했다. LS500h는 V6 3.5ℓ 엔진에 2개의 모터로 상황에 따라 동력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한다. 시스템 총 출력은 359마력이며 10단 자동변속 미션과 조화를 이룬다. 주행 모드는 주행 환경에 따라 예코, 컴포트, 노멀, 스포츠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자 차량이 야수의 모습으로 돌변해 엔진에서 공음을 냈다. 렉서스가 호안장담한 것처럼 젊은 감성을 최대한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얇은 스티어링 휠은 가볍게 반응해 운전의 재미를 더했다. 인상적인 것은 내부 사운드였다. LS600h에는 명품 오디오 브랜드 마크 레빈스의 3D 시스템이 적용된 스피커가 23개 적용됐다. 때문에 차량 내부는 작은 소극장을 연상케 했다. 실내에는 일본 장인의 기술과 영감으로 제작된 우드 트림 장식을 적용했다. 디스플레이 주변을 가죽으로 둘러 감싸는 향성도 향상시켰다. 무엇보다 뒷좌석이 일품이었다. 뒷좌석에 앉아 조수석을 반으로 접으니 넓은 공간이 생겼다. 뒷좌석 시트에 적용된 마사지 기능을 선택해 편안하고 안락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차량, 플래그십 세단과는 어울리지 않는 다소 큰 엔진음은 합격점을 주기는 어려웠다. 뒷좌석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기도 간간히 들리는 엔진음에 놀라는 경우도 있었다. 렉서스코리아 관계자는 "하이브리드차량의 지루함을 상쇄하기 위해 엔진음을 최대한 키우자 노력했다"면서 "LS500h 주 고객이 2030세대로 젊은 만큼 역동적인 면을 부각했다"고 설명했다. 차선 유지 어시스트 기능도 다소 아쉬웠다. 눈길로 차선이 가려진 탓인지 차선을 밟을 때 반응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이 차량의 공식 복합 연비는 리터당 10.6km다. 실제 운행을 마친 뒤 계기판에 찍힌 연비는 약 6km로 공식 연비에는 못 미쳤다. 가격은 1억5100만~1억7300만 원이다. 렉서스코리아는 내년 2분기에 10단 자동변속기를 단 가솔린 모델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노란우산공제

iOS 전용 Android 전용

대한민국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공제

홍보대사 이금희, 서경석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절세혜택
납입부금에 대해 최대 연 5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사업 실패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이자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 이자가 적립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고객복지
상해보험(2년), 법률·세무 등 자문을 무료로 휴양시설 등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대한민국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세법에 의해 법인기업의 대표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Google play /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KBIZ 중소기업중앙회

최상위 10개社 중 7곳이 호텔... 高품격 고객 서비스 通했다

2017년 국가고객만족도(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NCSI) 조사에서 롯데호텔, 호텔신라, 그랜드하얏트서울 순으로 호텔 업계가 1~3위를 차지했다. 업종별 순위에서도 호텔이 84점으로 1위에 올랐다.

9일 한국생산성본부(회장 홍순직)와 미국 미시간대학이 공동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해 2017년 국내 74개 업종, 321개 기업(대학) 및 공공기관에 대한 NC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321개 조사대상 기업 중 호텔 서비스업 부문의 롯데호텔이 85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321개 기업의 평균 점수는 75.6점으로 2016년의 74.7점에 비해 0.9점(1.2%) 상승했다. 이는 1998년 NCSI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다.

◇호텔, 상위권 싸움 = 올해 고객만족도 'TOP 10'에는 롯데호텔을 포함한 호텔 7개, 도시철도의 대구도시철도공사, 아파트의 삼성물산, 면세점의 롯데면세점이 포함됐다. 특히 고객만족도 TOP 10에서 호텔은 7개나 있다. 그중 3개가 1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호텔 서비스의 우수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경제부문별로 보면 전년과 비교가 가능한 15개 경제부문 중 13개 경제부문의 고객만족도가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전년과 비교가 가능한 전체 72개의 업종 중 지난해 대비 고객만족도가 상승한 업종은 44개 업종으로 전년 39개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1위를 차지했던 기업의 순위가 뒤바뀐 업종이 12개, 공동 1위로 나타난 업종이 7개로 나타나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접착제 한다고 생산성본부 측은 설명했다.

2017년 가장 높은 NCSI 향상을 기록한 경제부문은 건설업으로, 전년 대비 3.0%(2.2점) 상승했다. 부동산 및 임대업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1.9%(두 경제부문 모두 1.4점), 숙박 및 음식점업이 1.7%(1.3점) 높아져 뒤를 이었다.

반면, NCSI가 정제된 경제부문은 사업지원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개였다.

사업지원서비스업(여행사)의 경우, 중국의 한국여행금지 및 북한 도발 등의 영향으로 외래 관광객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해외 출국자수는 5월 황금연휴 등의 영향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자유여행시장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는 반면 패키지여행은 상대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다변화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고객만족도가 정제된 것



74개 업종 321개 기업 평균 75.6점 작년보다 0.9점 상승
롯데호텔 85점 '최고점'...업종별 순위도 호텔이 84점 '1위'
44개 업종서 만족도 올라...여행·보건 서비스업은 '정제'

롯데호텔은 올해 최고점인 85점을 받으며 총 321개 조사대상 기업 중 '국가고객만족도(NCSI)' 기업 부문 1위에 선정됐다.

은 출국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소셜미디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고객기대수준이 높아진 탓으로 분석된다.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병원)의 주요 이슈는 '환자경험평가'가 새롭게 시행됐다는 점이다. 환자경험평가는 상급종합병원 등 50여개 이상 의료기관 95곳을 대상으로 해당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평가다. 이처럼 의료업계에서도 고객만족을 중시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고객만족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객만족도, 상황 평준화 추세 = 홍순직 생산성본부 회장은 "상위권 기업 간의 고

객만족도는 상황 평준화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NCSI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중하위권 기업들의 노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상위권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의 고객 중심 경영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NCSI는 국내 혹은 해외에서 생산된 국내의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해당 제품을 직접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 직접 평가한 만족 수준의 정도를 측정해 계량화한 지표다. NCSI 모델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 수준, 인지품질, 인지가치, 종합만족, 고객불평률, 고객충성도, 고객유지율로 구성된다.

이광호 기자 khlee@

'고객만족' 삼성물산·삼성화재, 10년 연속 1위

고객 입장에서 차별화된 서비스 결실
정수 기술 연구·개발 집중한 코웨이
고객 접근성 높인 G마켓 높은 점수



삼성화재 임직원 및 가족들이 경인여대 학생들과 함께 지체장애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산업계의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발전의 주역에게 수여하는 국가생산성대회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두 기업이 있다. 제조통신 부문의 삼성물산과 서비스 부문의 삼성화재다.

아파트 업종의 삼성물산 레미안은 '최초의 시도, 최고의 가치, 그 자부심의 경험이란 슬로건'하에 20년째 고객 만족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업계 최초 서비스 브랜드 '레미안 헤스티아'를 론칭해 입주민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주택업계 최초 서비스 브랜드인 '헤스티아'는 도움, 배움, 나눔 마당으로 운영돼 다양한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물산 레미안은 차별화된 인프라 및 시스템으로 고객만족도 1위를 유지해 왔다. 신규 입주 단지에 설치되는 '헤스티아 라운지'는 아파트 입주 초기 고객들의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고객은 헤스티아 라운지에서 고객응대 전문가인 헤스티아 매니저와 A/S 전문가인 엔지니어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삼성물산은 순회 서비스팀을 운영해 온돌마루, 도배, 목창호, 가구, 설비, 전기 등 전

야에 걸친 전문 기술자들을 배치해 고객의 불편사항에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또한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CS마인드와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 또 다른 10년 연속 1위 기업인 삼성화재는 고객만족을 기업 경영의 중심에 두고 있다.

삼성화재는 고객중심경영 활동을 효과적으로 기획·실행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최고소비자책임자(CCO)'를 임명하고, 실무 부서로 소비자정책팀을 운영 중이다. 또한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해 고객과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전문가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고객 입장에서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손해보험 업계 최초로 '고객패널' 제도를 시행해 현재 23기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고객중심경영에 반하는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CCO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제조통신 부문에선 정수기 업계의 코웨이와 서비스 부문에선 오픈마켓 업계의 G마켓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수기 업계 시장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코웨이는 미국수질협회 아시아 회원사 중 가장 많은 전문가가 근무하는 기업이다. 코웨이의 불전문가들은 깨끗한 물을 위한 연구와 검증을 통해 차별화된 필터 기술 및 정수기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G마켓 또한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콜센터 직원들을 상대로 월 1회 이상 품질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G마켓 내 VIP 최우수 고객을 위해 별도로 조직을 운영 중이며, 특히 2015년 '모바일 수화 상담 서비스'를 이례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고객의 접근성을 높였다.

류정훈 기자 jungh216@

2017년 NCSI 순위 및 점수

순위	기업(Company)	업종(Industry)	NCSI Score	순위	기업(Company)	업종(Industry)	NCSI Score	순위	기업(Company)	업종(Industry)	NCSI Score
1	롯데호텔	호텔	85	108	SK텔레콤	이동전화서비스	76	215	롯데이마트주류	맥주	75
2	호텔신라	호텔	84	109	11번가	오픈마켓	76	216	SK브로드밴드	인터넷전화	75
3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	84	110	삼성증권	증권 금융상품매매	76	217	우리은행	은행	75
4	대구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	84	111	삼성전자	개인용컴퓨터	76	218	대우위니아	제습기	75
5	삼성물산	아파트	84	112	삼성전자	김치냉장고	76	219	LG U+	인터넷전화	75
6	조선호텔	호텔	83	113	롯데리아	패스트푸드	76	220	블랙야크	아웃도어어류	75
7	인터컨티넨탈호텔	호텔	83	114	다이아지오	맥주	76	221	금복주	소주	75
8	JW메리어트호텔서울	호텔	83	115	한국철도공사	철도	76	222	한국지엠	경형승용차	75
9	더플라자	호텔	83	116	대우위니아	김치냉장고	76	223	키움증권	증권 위탁매매	75
10	롯데면세점	면세점	82	117	SK네트웍스	렌터카	76	224	쿠쿠전자	정수기	75
11	그랜드워커힐서울	호텔	82	118	한화생명	생명보험	76	225	LG전자	개인용컴퓨터	75
12	밀레니엄서울힐튼	호텔	81	119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	76	226	DB손해보험	손해보험	75
13	신라면세점	면세점	81	120	상수도	상수도	76	227	홈쇼핑	TV홈쇼핑	75
14	영남이공대학교	전문대학	81	121	팔도	라면	76	228	교보생명	생명보험	75
15	세브란스병원	병원	80	122	기아자동차	경형승용차	76	229	SC제일은행	은행	75
16	서울성모병원	병원	79	123	코오롱인더스트리	아웃도어어류	76	230	매일유업	우유발효유	75
17	서울대학교병원	병원	79	124	현대캐피탈	렌터카	76	231	단팥달걀파	남성캐주얼어류	75
18	현대자동차	대형승용차	79	125	삼양식품	라면	76	232	KB손해보험	손해보험	75
19	신원	여성용화장품	79	126	LG생활건강	여성용화장품	76	233	한국지엠	중대형승용차	75
20	경북대학교	국립대학교	78	127	케이투코리아	아웃도어어류	76	234	오택케어	에어컨	75
21	대덕대학교	전문대학	78	128	기아자동차	중대형승용차	76	235	한국투자증권	증권 위탁매매	75
22	LG전자	에어컨	78	129	이마트	대형마트	76	236	반디엔투리스	대형서점	75
23	삼성전자	에어컨	78	130	GS칼텍스	주유소	76	237	ING생명	생명보험	75
24	이엘씨에이한국	여성용화장품	78	131	아시아나항공	국제항공	76	238	LG U+	IPTV	75
25	서울아산병원	병원	78	132	서울우유	우유발효유	76	239	삼성전자	제습기	75
26	삼성전자	냉장고	78	133	AJ렌터카	렌터카	76	240	신한생명	생명보험	75
27	금강제화	남성정장구두	78	134	SK브로드밴드	IPTV	76	241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75
28	삼성서울병원	병원	78	135	하이트윈도	소주	76	242	대한항공	국제항공	75
29	LG전자	냉장고	78	136	SK브로드밴드	유선전화	76	243	해태htb	음료	75
30	광주보건대학교	전문대학	78	137	삼성화재	손해보험	76	244	N투자기계	증권 금융상품매매	75
31	광주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	77	138	우메프	스낵커머스	76	245	쌍용자동차	RV	75
32	현대자동차	중형승용차	77	139	충청대학교	전문대학	76	246	BAT 코리아	담배	75
33	경북대학교	국립대학교	77	140	KT&G	담배	76	247	일본항공	국제항공	75
34	롯데칠성음료	음료	77	141	카카오	검색포털	76	248	HP	개인용컴퓨터	75
35	교보생명	대형서점	77	142	무학	소주	76	249	동부대우전자	세탁기	75
36	LG전자	세탁기	77	143	파리바게뜨	베이커리	76	250	한국투자증권	증권 금융상품매매	75
37	쿠방	스낵커머스	77	144	삼성전자	태블릿PC	76	251	한국발전모리스	담배	75
38	소다	남성정장구두	77	145	LG전자	스마트폰	76	252	KB증권	증권 금융상품매매	75
39	비씨카드	신용카드	77	146	우정사업본부	우편	76	253	빙그레	우유발효유	75
40	KT	유선전화	77	147	SK텔레콤	국제전화	76	254	GS건설	아파트	75
41	G마켓	오픈마켓	77	148	전력공급	전력공급	76	255	KT	이동전화서비스	75
42	전남대학교	국립대학교	77	149	기아자동차	RV	76	256	신한금융투자	증권 금융상품매매	74
43	아시아나항공	국제항공	77	150	출판사	대형마트	76	257	상기프리스공공	국제항공	74
44	월광	냉장고	77	151	쿠쿠전자	전기밥솥	76	258	롯데이몰	인터넷쇼핑몰	74
45	한국아쿠르트	우유발효유	77	152	한양대학교병원	병원	76	259	티이항공	국제항공	74
46	기아자동차	대형승용차	77	153	네마	아웃도어어류	76	260	평안엔씨	남성캐주얼어류	74
47	고대안암병원	병원	77	154	세무행정	세무행정	76	261	한국지엠	중형승용차	74
48	부산대학교	국립대학교	77	155	하이네켄	맥주	76	262	현대일렉트릭	주조소주	74
49	GE	냉장고	77	156	삼성증권	증권 위탁매매	76	263	서울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	74
50	아주대학교병원	병원	77	157	육신	오픈마켓	76	264	N투자기계	증권 위탁매매	74
51	올리브영	헬스앤티뷰티전문점	77	158	롯데시네마	영화관	76	265	LG U+	이동전화서비스	74
52	삼성전자	스마트폰	77	159	KT	인터넷전화	76	266	동아대학교	전문대학	74
53	롯데백화점	백화점	77	160	현대카드	신용카드	76	267	기아자동차	소형승용차	74
54	농심	라면	77	161	KT	IPTV	76	268	캐시메이시퍼항공	국제항공	74
55	서울대학교	국립대학교	77	162	르노삼성자동차	중대형승용차	76	269	메리츠화재	손해보험	74
56	텐트	남성정장구두	77	163	왓슨	헬스앤티뷰티전문점	76	270	경찰행정	경찰행정	74
57	LG전자	김치냉장고	77	164	CJ오쇼핑	TV홈쇼핑	76	271	푸르덴셜생명	생명보험	74
58	신성대학교	전문대학	77	165	오비맥주	맥주	75	272	미래에셋생명	생명보험	74
59	삼성전자	TV	77	166	미래에셋대우	증권 위탁매매	75	273	웅진식품	음료	74
60	이대목동병원	병원	77	167	롯데홈쇼핑	TV홈쇼핑	75	274	메가박스	영화관	74
61	삼성생명	생명보험	77	168	KB손해보험	은행	75	275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74
62	삼성카드	신용카드	77	169	청호나이스	정수기	75	276	대전보건대학교	전문대학	74
63	아모레퍼시픽	여성용화장품	77	170	LF(제이스)	남성캐주얼어류	75	277	롯데글로벌리스	택배	74
64	VPS	패밀리레스토랑	77	171	한국지엠	중형승용차	75	278	원광보건대학교	전문대학	74
65	형지애스케이아	남성정장구두	77	172	뚜레쥬르	베이커리	75	279	쓰레기수거	쓰레기수거	74
66	영원아웃도어	아웃도어어류	77	173	건국대학교병원	병원	75	280	TG삼보컴퓨터	개인용컴퓨터	74
67	애들	태블릿PC	77	174	SSG연호	인터넷쇼핑몰	75	281	한진	택배	74
68	경희의료원	병원	77	175	코카콜라음료	음료	75	282	대우건설	아파트	74
69	전북대학교	국립대학교	77	176	GS홈쇼핑	TV홈쇼핑	75	283	인천교통공사	도시철도	74
70	롯데렌탈	렌터카	77	177	코스트코홈세일	대형마트	75	284	경남정보대학교	전문대학	74
71	성균관대학교	사립대학교	77	178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75	285	한국지엠	소형승용차	74
72	오뚜기	라면	77	179	GS SHOP	인터넷쇼핑몰	75	286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74
73	롯데주류	소주	77	180	현대해상	손해보험	75	287	경희대학교	사립대학교	74
74	롯데주류	맥주	77	181	SK에이치	정수기	75	288	포스코건설	아파트	73
75	현대자동차	중대형승용차	77	182	KT	국제전화	75	289	마산대학교	전문대학	73
76	우정사업본부	택배	77	183	위니아	제습기	75	290	팬택	스마트폰	73
77	롯데마트	대형마트	77	184	가천대 길병원	병원	75	291	대림산업	아파트	73
78	네이버	검색포털	77	185	KFC	패스트푸드	75	292	동부대우전자	냉장고	72
79	기아자동차	중형승용차	76	186	CJ CGV	영화관	75	293	숙명여자대학교	사립대학교	72
80	신세계백화점	백화점	76	187	모두투어	여행사	75	294	연세대학교	사립대학교	72
81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패밀리레스토랑	76	188	동일드레	남성캐주얼어류	75	295	대전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	72
82	영풍문고	대형서점	76	189	현대홈쇼핑	TV홈쇼핑	75	296	현대건설	아파트	71
83	LG전자	TV	76	190	현대·mml	인터넷쇼핑몰	75	297	고려대학교	사립대학교	71
84	르노삼성자동차	중형승용차	76	191	KT	초고속인터넷	75	298	충남대학교	국립대학교	71
85	엘리트	남성정장구두	76	192	W스토어	헬스앤티뷰티전문점	75	299	청양대학교	전문대학	70
86	신한카드	신용카드	76	193	LG U+	초고속인터넷	75	300	서강대학교	사립대학교	69
87	에슬리	패밀리레스토랑	76	194	SK에너지	주유소	75	301	이화여자대학교	사립대학교	68
88	현대백화점	백화점	76	195	현대자동차	소형승용차	75	302	김원대학교	국립대학교	68
89	KB국민은행	은행	76	196	하이트윈도	맥주	75	303	조선이공대학교	전문대학	67
90	경상대학교	국립대학교	76	197	LG U+	국제전화	75	304	인하		

“규제 피해 호주서 핀테크 창업... 新성장산업이라며 왜 막나요?”

벤처 돌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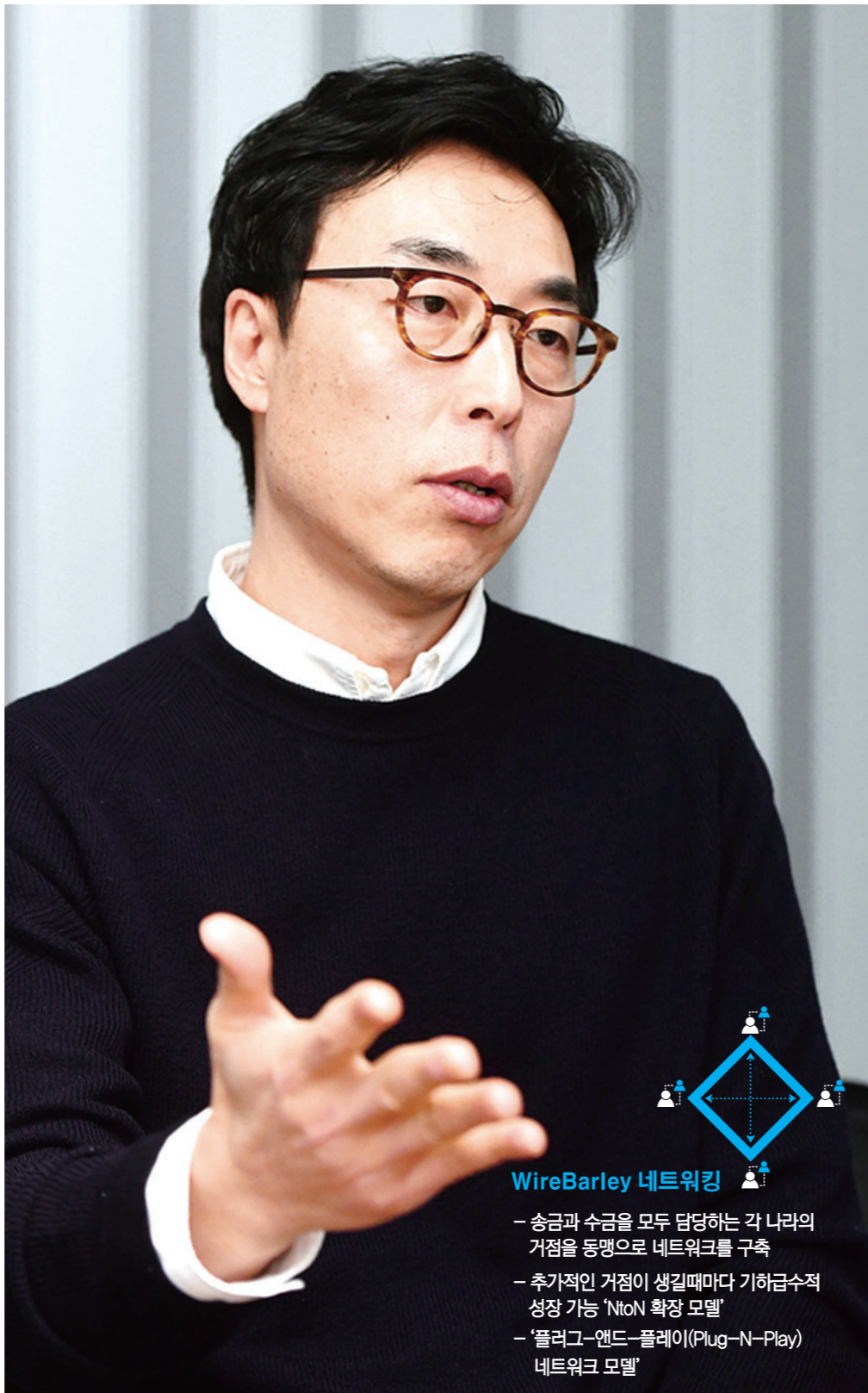
유중원 와이어바일리 대표

핀테크 분야는 대표적인 신성장 산업인 동시에 대표적인 규제산업이기도 하다. 소액 해외송금업은 연간 1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시장성이 높지만 시중은행과 경쟁해야 하는 만큼 진입장벽도 높다. 유중원 와이어바일리(WireBarley) 대표는 이러한 이중 장벽에 둘러싸인 소액해외송금 핀테크 스타트업 업계에 적지 않은 나이, 50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어찌보면 무모해 보이기까지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에겐 삼성전자 해외본부에서 쌓아온 글로벌 비즈니스 경험이라는 자산을 프리젠텔 창업 멤버였던 삼성물산 출신 윤태중 부사장, 호주에서 외화송금업체를 운영하며 관련 시스템·솔루션·운영노하우를 전수해 줄 김원재 이사회의장 등 의기투합할 동료가 있기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86학번 동기 뭉쳐 늦깎이 창업 소액해외송금 핀테크 스타트업 수수료·고객응대 시스템 차별화

와이어바일리는 최첨단의 다양한 금융기법을 적용, 아시아 전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가족 등을 대상으로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온라인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경쟁사 대비 최대 70% 저렴한 수수료와 현지인 맞춤형 고객응대(CS) 시스템은 이곳만의 경쟁력이다. 지난해 4월 서비스 개시 시점부터 현재까지 호주법인인 베트남과 필리핀에 송금한 금액 규모는 550만 호주달러(약 46억 원), 건수는 1만 건에 달한다. 월평균 송금액 증가율은 122%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 핀테크형 해외송금서비스, 아직은 생소하다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싸고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한 해외 송금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은행 수수료보다 싸고 송금 속도도 빨라 일찌감치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각광받아왔다. 아시아를 비롯해 한국에선 출발이 많이 늦었다. 다행히 2016년 핀테크 업체도 심사를 거쳐 소액해외송금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정부 규제가 완화돼 지난해 7월 중순부터 시행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맞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해외송금업 라이선스를 받은 국내 업체는 12개, 실제 서비스를 하는 곳은 2-3개 정도인 것으로 안다. 하지만 우리의 경쟁업체는 개인 외화이체 서비스를 하는 일반 시중 은행들이다. 일반적으로 해외로 송금할 때 최소 3개의 은행을 거쳐야 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



WireBarley 네트워킹
- 송금과 수금을 모두 담당하는 각 나라의 거점을 동맹으로 네트워크를 구축
- 추가적인 거점이 생길 때마다 기하급수적 성장 가능 'NoN 확장 모델'
- '플러그-앤드-플레이(Plug-N-Play) 네트워크 모델'

유중원 와이어바일리 대표는 지난달 26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아이폰, 안드로이드용 앱 및 웹만으로 경쟁사보다 최대 70% 정도 싼 비용으로, 빠르게는 수분 내에 송금을 완료할 수 있어 기존 은행들과의 경쟁에서 충분히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다 수수료를 내야 하고 은행 영업시간 동안에만 송금작업이 진행돼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와이어바일리의 서비스는 아이폰, 안드로이드용 앱 및 웹만으로 경쟁사보다 최대 70% 정도 싼 비용으로, 빠르게는 수분 내에 송금을 완료할 수 있어 은행들과의 경쟁에서 충분히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 첨단 금융기법을 통해 수수료를 낮춘다고?
“우리가 쓰는 대표적인 송금방법은 국내와 해외 사이에 오갈 돈을 생계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 없이 고객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네팅(netting) 방식이다.
돈이 움직일 때마다 드는 원가절약 효과가

크다. 네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당발(아웃바운드), 타발(인바운드), 제3국 간 거래가 가능한 네트워크를 우리는 모두 갖추고 있다. 아시아 전역에서 해외송금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울 수 있었던 근거도 여기에 있다. 이와 함께 마케팅 전략과 기술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3년 내 아시아에서 선도적인 해외송금 플랫폼을 만들 것이다.”

- 핀테크 업체를 통해 해외송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성 등 보안, 손실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은행전용결제망(스위프트)을 거치지 않는 만큼 데이터를 얼마나 안전하게 암호화해서

보내느냐가 관건이다. 아무래도 은행만 이용해 온 고객들은 불안감을 지우기 어려울 것이다. 안전성이나 보안성 신뢰도는 우리가 넘어야 할 중요한 산이고, 그걸 못 넘으면 이 사업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게 현지언어로 대응하는 CS(고객만족)팀 운영이었다. 거래금액의 80%가 호주에 있는 베트남 현지 해외노동자가 본국에 보내는 돈이다. 그들 나라 언어로 응대해 주다 보니 자연스레 신뢰도와 친근한 이미지가 더해져 현지 이용자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입소문이 났다.”

- 40~50대 스타트업 창업이 눈길을 끈다. 어려운 점은 없었나
“86학번 동기 셋이 뭉쳤다. 호주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김원재라는 친구가 이민 생활을 오래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호주에 와 있는 한국인 워킹홀리데이 젊은이들이 고생해서 번 돈을 송금하는데 은행에선 수수료를 많이 떼이고 불법 업체를 통해 송금하다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목도했다. 저렴한 수수료에 안전하게 돈을 보내게 해 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됐다.

생소한 사업에 투자자 찾기 난관 규제까지 겹치며 결국 호주서 첫발 잠재력 많은 시장... 정부지원 절실

IT업종 창업 경험이 있는 부사장과 컨설팅 전문가 내가 힘을 모으게 된 계기였다. 핀테크에 뛰어든 게 된 것은 잠재력이 많다는 장점도 있지만, 글로벌 비즈니스가 중요한 핀테크 업계에 경험이나 노하우 운영이 풍부한 우리가 도전하기에 제격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또 가난한 금융소비자 99%를 위한 사업이다 보니 남다른 보람도 느낀다.

하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니 규제가 가장 큰 난관이었다. 우리나라에선 정해진 것만 할 수 있다. 투자자들마저 규제 리스크로 딱딱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지 않느냐며 걱정의 눈초리를 보낼 정도였다. KB인베스트먼트가 주도한 재무투자자그룹, 신세계그룹의 핀테크 관련 부문 전담 계열사인 신세계 I&C 등을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12억 원의 투자를 성사 시키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핀테크 분야가 생소하다는 이유로 망설이는 곳들이 많았다. 가능성을 보지 않고 매출 등 성과가 나와 그때 투자를 하려는, 역설적이게도 전혀 벤처스럽지 않은 태도로 납득하기 힘들었다.”

- 늦은 나이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조언 한 말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되도록 성장 분야를 노크하는 것이 좋다. 연륜과 지혜를 기본으로 하되 열정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열린 마인드를 갖춰 친구 간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민정 기자 puri21@

기자가 써보니

파세코 비스쿱

연기 다 어디 갔나? 고기 굽기의 革命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은 생각만큼 간단치 않은 일이다. 환풍기를 틀어도 매캐한 연기가 쉽게 집 곳곳에 가득 차고, 기름은 사방팔방으로 튀는다. 고기 굽는 사람은 연신 연기를 마시면서 고기가 타는지 확인하고, 때가 되면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함께 식사하기도 쉽지 않다. 맛있게 먹고 나서도 기름때가 쌓인 프라이팬과 오븐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 모든 번거로운 과정을 건너뛰고 고기만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을 토종 중소기업 파세코가 만들었다. 육류뿐만 아니라 생선, 그릴드 샌드위치 등 다양한 간식 조리 과정에 응용할 수 있다. 파세코 비스쿱 전기그릴은 식빵을 토스터기에 넣는 것처럼 세워서 조리 재료를 넣고 구워주는 조리 기기다. 기자가 직접 써봤다.

파세코 비스쿱은 210도에 달하는 출력의 원적외선으로 조리 재료를 가열하는 원리다. 가로, 세로, 폭이 40cm×20cm×20cm 사이즈에 불과한 ‘조금 큰’ 토스터기다. 외관도 깔끔한 스테인리스와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디자인돼 어떤 주방에도 세련되게 어울린다. 제품은 본체와 착탈식 반사판 2개, 바스켓 2종과 BBQ용 꼬치 3개로 구성된다.

토스터기 형태로 깔끔한 외관 매력 고기 넣고 타이머 조정하면 요리 끝 조리과정서 냄새·연기 거의 못 느껴 간접 가열방식으로 기름때 걱정 ‘뚝’



파세코 비스쿱 제품.

비스쿱의 가장 큰 장점은 조리 과정에서 냄새와 연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쇠고기 부채살 200g을 그릴 바스켓 사이에 끼워 12분간 타이머를 맞추니 겉과 속이 모두 잘 익었다. 조리가 끝나기 전에 기다리는 동안 연기를 거의 전혀 체감할 수 없었다. 냄새도 ‘어디서 누가 고기를 굽고 있구나’ 하고 생각될 정도로 미미하게 발생했다.

보통 가스불과 프라이팬을 활용해 가정에서 고기를 구울 때면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과 수분 등이 합쳐진 연기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잦다. 비스쿱은 뜨거운 프라이팬이나 불판에 고기를 직접 접촉해 가열하는 원리가 아니라 그릴에 세워 고정만 한 후 전기로 간접 가열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산물이 최소화되는 듯했다.

자연히 고기 굽는 과정에서 기름이 튀는 일도 없다. 고기를 구울 때는 기름이 섞인 연기가 위로 올라가다가 식으면서 아래로 떨어져 주변을 온통 미끌미끌하게 만든다. 비스쿱은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가 거의 없을 뿐더러 재료의 나쁜 기름은 모두 기기 하단의 기름받이로 모인다.

조리된 쇠고기는 양면뿐만 아니라 겉과 속이 고르게 익혀졌다. 탄 맛이 거의 없었다. 비스쿱 내부 네 면의 반사판이 원적외선을 완벽하게 반사시켜 주기 때문이다. 기자는 쇠고기를 구웠지만, 비스쿱의 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요리는 삼겹살과 생선구이일 듯하다.

제품을 씻을 때는 재료를 고정하는 그릴 바스켓, 기름받이 정도만 설거지해 주면 되기 때문에 뒷손도 별로 가지 않는다. 12만 원 정도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전효정 기자 gradually@

중소 인사이트

풀리나 했던 ‘카풀앱’ 다시 제동... ‘텃세’에 막힌 ‘혁신’ 어쩌나

4차산업혁신위원회 해결 나섰지만 택시조합 반발하며 막판 제외 “출퇴근시간대 엄격 규정해야” 정치권까지 法발의하며 새국면 “하루 4시간으로는 영업 불가” 스타트업, 낡은 규제에 한숨만

카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관련 스타트업들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정치권에서 규제 해소의 당위성을 내세우면서 실마리가 풀리는 듯했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카풀 앱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상황이 반전되고 있어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중순으로 예정된 카풀 업계와 택시조합 간 협상은 사실상 어



려워졌다. 당초 지난달 21~22일 이틀간 열린 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카풀 앱 규제와 관련한 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 문제를 핵심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었으나 택시조합의 반발로 막판에 안건에서 제외됐다.
당시 장병규 4차산업혁신위원장은 “택시조

합 측에서 해커톤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가 충분히 설명을 못했기 때문”이라며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택시조합 측도 꼭 나와 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확신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중순께 1.5차 해커톤을 개최해 택시조합과 카풀 스타트업 간 라이드셰어링 규제 해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카풀 앱과 택시조합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데다 국회에서 기존 사업자인 택시 측을 비교하는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카풀 앱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되는 분위기여서 양측이 협상태블에 앉을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졌다. 서비스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스타트업의 의견은 대답 없는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카풀 앱 논란은 ‘풀러스’라는 업체가 24시간 중 8시간을 자유롭게 지정해 카풀을 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유연근무제 확산 추세에 맞춰 출퇴근 시간

대 개념을 확장시킨 서비스를 내놨으나 일각에서 위협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출퇴근 시간대 규정과 관련해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가운데 카풀 스타트업에는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대표발의)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은 지난해 12월 15일 카풀이 허용되는 ‘출퇴근 시간을 엄격히 규정하지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이 출퇴근 시간이라고만 돼 있어 혼란을 야기했다며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카풀을 허용하지는 내용이다.

카풀 앱 관계자는 “하루에 4시간 운행하면 사실상 사업을 확산할 수 없고 정체 상태에 빠지게 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치권과 택시조합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스타트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범근 기자 nova@

無償減資 ‘동부제철’ 65%·가상화폐株 ‘대성창투’ 66% 상승

(무상감자)

1월 첫째 주(2~5일)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30.03포인트(1.22%) 상승한 2497.52에 마감했다. 코스피는 올해 증시 개장 첫날인 2일 0.49% 상승 마감하며 기본 좋은 출발을 알렸다. 4일에는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2460선까지 후퇴했지만, 다음 날 바로 하락분을 만회하고 2500선에 바짝 다가섰다. 미국 뉴욕증시 3대 주요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코스피에도 훈풍을 실어다 준 것으로 풀이된다.

◇무상 감자 소식에 상한가 직했던 동부제철 = 지난주 코스피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동부제철(65.77%)이다. 이

회사는 지난달 28일 장 종료 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채권단 보유 주식 및 자사주에 대해 2대 1의 주식 병합 무상 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동부제철은 2일과 3일 이들 연속가 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감자가 완료되면 동부제철의 자본금은 1808억 원에서 1253억 원으로 줄고, 보통주는 2500만 주에서 1390만 주로 감소한다.

자동차부품 업체 세화아이엠씨도 2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세화아이엠

난해 4분기 실적 부진이 예상보다 큰 폭이지만 올해 수주 확대에 극복할 수 있다"면서 "올해 조선업황 회복이 확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북한이 남북 간 판문점 연락채널을 다시 개통하겠다고 밝히자, 남북경협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다. 코아스는 21.17%, 인디에프는 20.10% 각각 올랐다.

◇공매도 몸살 앓은 넷마블게임즈 = 게임 대장주 넷마블게임즈는 실적 부진 우려가 확산되면서 공매도 세력의 표적으로 떠올랐다.

넷마블게임즈의 주가는 지난주 줄곧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18만8500원에서 16만6500원으로 11.67% 하락했다. 넷마블게임즈는 지난해 12월에도 코

“바이오시밀러 시장 낙관적” ‘나라케이아이씨’ 32% ↑
판문점 재개동에 남북경협株 ‘코아스’ ‘인디에프’ 상승세
공매도 몸살 ‘넷마블’ 11.6% ↓... 강원랜드 52주 신저가

씨는 최대 주주가 얼라이컴퍼니 1위 곳에 382만 주를 매각하면서 경영권을 넘긴다고 3일 공시했다. 매각 주식을 수 총 발행 주식 수의 32.15% 규모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커지면서 나라케이아이씨(32.31%)도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바이오시밀러를 개발·생산하는 에이프로젠그룹은 나라케이아이씨 경영권을 인수하고, 이를 통해 개발 자금을 조달한다.

바이오시밀러는 원조 신약 바이오의약품과 동등한 효능을 보이면서 개발비용과 기간의 단축해 가격 경쟁력을 갖는다. 효능을 이미 검증받은 상태에서 출시하기 때문에 단기간 시장 공략이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현대중공업(22.39%)은 조선업황이 바닥을 통과했다는 기대감에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봉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

스피시장에서 공매도 규모가 가장 컸다. 12월 누적 공매도 금액은 2337억 원으로, 거래 대금 중 공매도 비중이 15.29%를 차지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마케팅 비용이 크게 늘면서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추정치 1595억 원을 크게 밑도는 1038억 원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원랜드(-10.34%)는 카지노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일반 테이블 기구 수를 줄이기로 하면서 52주 신저가를 세로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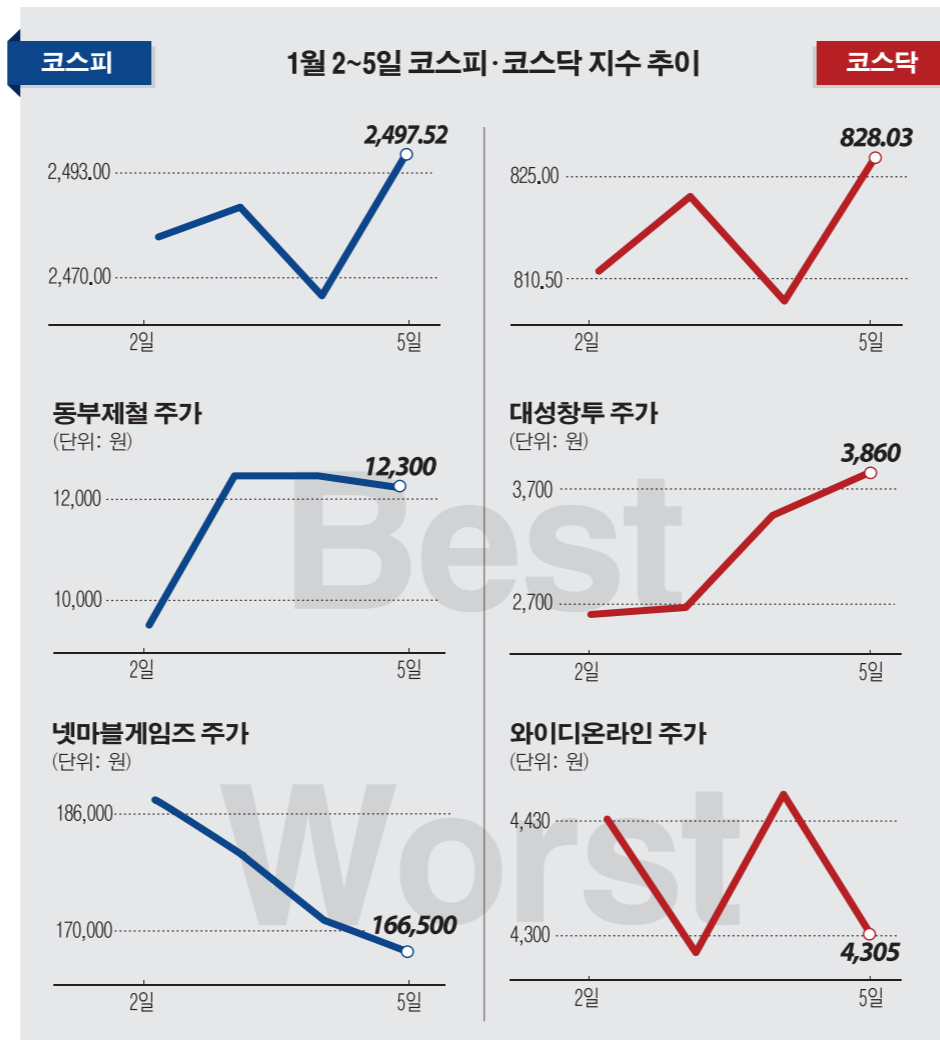
영업시간은 올해부터 20시간에서 18시간으로 감소하고, 테이블은 180대에서 160대로 줄어들면서 실적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투자는 강원랜드에 대한 규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목표 주가를 4만1000원에서 3만7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유혜은 기자 euna@

베스트&워스트 1월 2~5일

코스닥지수는 전주 대비 29.61포인트(3.71%) 상승한 828.03에 마감했다. 2007년 7월 12일(증가 828.22) 이후 약 10년 6개월 만의 최고치다. 새해 첫날부터 질주하기 시작한 코스닥은 4일 잠시 숨을 고른 후 5일 20포인트 급등, 830선에 바짝 다가서면서 전 고점(841.09) 경신을 앞두고 있다. 이 기간 개인은 코스닥을 665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코스피 상승 10종목

종목명	5일 시가 총액	12월 28일	1월 5일	주가등락률
동부제철	308	7,420	12,300	65.77
세화아이엠씨	80	2,010	2,855	42.04
나라케이아이씨	856	13,000	17,200	32.31
코스모화학	499	26,250	33,350	27.05
아비스타	98	3,460	4,265	23.27
현대중공업	6,970	100,500	123,000	22.39
코아스	42	1,110	1,345	21.17
인디에프	74	1,045	1,255	20.10
디씨씨	191	3,840	4,590	19.53
일성건설	66	1,030	1,230	19.42

코스피 하락 10종목

종목명	5일 시가 총액	12월 28일	1월 5일	주가등락률
넷마블게임즈	14,157	188,500	166,500	-11.67
케이씨	298	24,700	22,000	-10.93
강원랜드	6,675	34,800	31,200	-10.34
대역GDS	506	27,400	24,600	-10.22
한샘	3,836	180,000	163,000	-9.44
현대리바트	596	32,000	29,000	-9.38
한진기술	833	23,800	21,800	-8.40
지투알	157	10,300	9,500	-7.77
에스엘	765	24,500	22,600	-7.76
현대상선	1,445	5,020	4,635	-7.67

(시총:십억 원, 증가:원, 주가등락률:%)

코스닥 상승 10종목

종목명	5일 시가 총액	12월 28일	1월 5일	주가등락률
대성창투	154	2,320	3,860	66.38
차바이오텍	1,786	22,500	34,850	54.89
삼지전자	198	8,170	12,150	48.71
안트로젠	537	46,000	67,500	46.74
에프티아이엔이	451	4,630	6,650	43.63
에스텍	188	11,300	16,100	42.48
한빛소프트	152	4,340	6,150	41.71
퓨처켄	146	18,400	26,000	41.30
SIMPAC Metal	130	7,070	9,980	41.16
씨티엘	123	3,320	4,685	41.11

코스닥 하락 10종목

종목명	5일 시가 총액	12월 28일	1월 5일	주가등락률
와이드온라인	105	5,100	4,305	-15.59
엔터메이트	71	2,055	1,735	-15.57
웹젠	1,174	39,050	33,250	-14.85
한국테크놀로지	96	2,450	2,095	-14.49
클래시스	216	4,165	3,565	-14.41
동진씨엠	1,003	22,100	19,500	-11.76
에스티	207	54,000	47,850	-11.39
CJ프레시웨이	419	39,800	35,300	-11.31
KG이니시스	474	18,800	17,000	-9.57
유진테크	438	21,100	19,100	-9.48

※자료: 에프앤가이드

◇새해에도 질주하는 가상화폐주 = 지난해 말을 후끈 달군 가상화폐 테마주의 열기는 아직 식지 않았다. 대성창투는 2820원에서 3860원으로 66.38% 급등했다.

이 회사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업비트가 네이버 라인과의 제휴를 통해 일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4일에는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한빛소프트(41.71%)는 일본 미랩스와 100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공개(ICO)에 나선다는 소식에 수직 상승했다.

회사 측은 이르면 이번 주 사업 계획

했다. 이 회사는 2000년 줄기세포 연구소를 설립한 후 난치병과 퇴행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줄기세포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 안트로젠(46.74%)은 주력 파이프라인 중 하나인 당뇨병성 족부궤양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ALLO-ASC-SHEET'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임상 2상 시험을 미국에서 승인받았다. 미국 당뇨족부 궤양환자 시장의 10%만 점유해도 240억 달러의 매출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트로젠은 지방유래 줄기세포의 증식과 치료 능력을 측정하는 기술에 관한 미국 특허를 보유하고 있

1000억 규모 ICO 소식에... '한빛소프트' 41.71% 급등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 전망에 '차바이오텍'·'안트로젠' ↑
게임주 차익실현... '와이드온라인' '엔터메이트' 내림세

을 발표할 예정이다. ICO를 통해 발행하는 신규 가상화폐는 국내외 주요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씨티엘(41.11%)은 자회사 더블럭게임즈와 함께 개발한 가상화폐 비트지코인 100억 개 발행을 확정했다. 비트지코인은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으로 기존 코인의 채굴 방법과 달리 게임 플레이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으며, 게임 아이템의 구매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회사는 2~3월 해외 ICO를 목표로 관련 업무를 진행 중이다.

계약·바이오주는 줄기세포 관련주를 중심으로 다시 상승 시동을 걸었다. 정부의 생명윤리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줄기세포 연구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바이오텍(54.89%)은 2일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한 데 이어 5일 23.36% 추가 상승하면서 주가가 3만 원대에 진입

다. 퓨처켄(41.30%)은 지난해 자회사로 편입한 퓨처켄켄스케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서울성모병원의 생산시설 관련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급등 후 차익 실현 몰린 게임주 = 지난해 말 급등했던 게임주들은 연초부터 차익 실현이 이어졌다.

‘갓오브하이스쿨’로 잘 알려진 와이드온라인은 15.59% 하락했으며, ‘리버스D’ 제작사 엔터메이트도 15.57% 내렸다. 신작 ‘기적MU: 각성의 중국 흥행 기대감으로 주가가 뚝 떨어진 공게임즈(11.76%)도 엔터메이트(-11.39%) 등이 코스닥 주가 하락을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한국테크놀로지(-14.49%), 클래시스(-14.41%), 동진씨엠(-11.76%), 에스티(-11.39%) 등이 코스닥 주가 하락을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유혜은 기자 euna@

‘탈 석탄’ ‘탈 원전’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ENERGY FOR THE FUTURE

에너지의 미래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과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추천도서

반스프레이즈·고든 매케른 외 지음
에너지경제연구원 감수 | 384쪽
교보문고 | 값 15,000원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범, 화석연료에너지 왜 변화 못하나?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가져올 방법론을 논하다.

황사와 미세먼지, 탄소배출로 인한 온난화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의 공통된 키워드는 ‘에너지’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와 자동차 등 에너지산업, 그동안 우리의 삶을 편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던 에너지산업이 우리에게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에너지의 미래>는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짚고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올 방법을 소개하는 책이다

문의: 02-3156-3824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배할 플랫폼 비즈니스의 모든 것

PLATFORM REVOLUTION

플랫폼 레볼루션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활용하는 자가 될 것이다”

『포브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 올해의 비즈니스 필독서
‘800CEO리드’ 베스트셀러

마셜 밴 앨스타인 외 2인 지음
512쪽 | 부키 | 값 22,000원

정보경제학의 세계적 거장들이 저술한 플랫폼 비즈니스에 관한 최초의 안내서!

플랫폼이 왜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글로벌 대기업조차 플랫폼 기업에 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존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산업이 플랫폼 기업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등을 알려준다. 무엇보다 플랫폼을 구축하고 싶거나 제대로 활용하고 싶은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깊은 통찰과 영감을 줄 것이다.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기존 기업을 플랫폼 기업으로 바꾸게끔 영감을 주는 안내서. **김해관 사내, 전 SAP 최고경영자** 완벽하다. 그리고 도발적이다. **『월스트리트 저널』**
우리에게 특별히 취약한 플랫폼 사고를 일깨워주고 빅데이터의 의미를 다시금 성찰하게 만든다.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

문의: 02-3142-0484

“크루셜텍과 베트남 ‘지문인식’ 사업 윈윈”

응웬 득 민 하노이 백과대 교수
1분기 내 모듈 3만 개 납품 목표
스마트카드 등 제품 개발 MOU
R&D 기업 중심 협업도 기대



로젝트의 베트남 총괄 담당자인 응웬 득 민(사진) 백과대 교수에게 상세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 봤다.

“크루셜텍과 백과대학교의 강점을 잘 활용해 좋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번 사업제휴를 계기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앞으로 상호 이익을 가져오는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생체인식 솔루션 전문기업 크루셜텍과 베트남 하노이 백과대학교가 지문인식 솔루션 사업협력을 체결하고, 베트남 내수 시장을 공략한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지문인식 솔루션 사업협력을 위한 MOU와 NDA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이번 프

민 교수는 “US B 메모리, 스마트카드를 포함해 지문인식을 이용한 5개 형태의 신제품을 개발 중이다. 가장 진전이 빠른 USB 메모리는 보안이 중요한 이슈인 베트남 정부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크루셜텍으로부터 올해 1분기까지 USB용 지문인식 모듈(BTP) 초도물량 3만 개를 우선 공급받아 완제품으로 만들어 납품할 계획이고, 추후 연구개발(R&D) 상황 및 시장 반응에 따라 물량은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스마트카드 사업은 구체적인

행 현황을 아직 외부에 공개할 단계가 아니지만, 베트남 로컬은행들과 협력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에 지문인식을 적용한 제품 공급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백과대학교 연구팀은 스마트카드용 지문인식 알고리즘 고도화(정확도) 관련 세계지문인식대회(FVC-Ongoing)에서 5위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문인식은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생체인식 기술로 기존 비밀번호 방식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민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지문인식 모듈은 현재까지 주로 스마트폰에 탑재되었으나 모듈 소형화와 전원 이슈만 해결하면 다양한 생활 밀착형 제품으로 확장될 수 있다”면서 “현재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문인식 USB 개발을 시작으로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민 교수는 크루셜텍과의 협력을 통해 매년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내수 시장에서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는 포부다.
그는 “백과대학교는 베트남 최고의 과학기술 특화 대학이고 크루셜텍은 첨단 생체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한 R&D 중심기업으로 추후 공동개발 등 협업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베트남에 대규모 생산 기지를 보유한 크루셜텍은 신제품 양산 및 베트남 내수시장 공략에도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 교수는 독일 카이저슬라우테른(Kaiserslautern) 대학교 전자공학과 석박사를 마치고 백과대학교 전자정보통신학과 교수 겸 전자정보통신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하노이 백과대학교는 베트남에서 다섯 번째로 건립된 대학이자 최초의 공과대학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유바이오로직스, 콜레라 백신 아프리카에 245만 도스 공급

(회 투여 단위)

플라스틱 제형 ‘유비콜-플러스’
유니세프 구매요청 물량 절반
완제품 자체 생산에 수익 기대

유바이오로직스 추가 추이



유바이오로직스가 아프리카 잠비아 및 소말리아에 콜레라 백신을 공급한다. 8일 유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이번엔 공급되는 콜레라 백신은 245만 도스로 지난해 세계 최초로 플라스틱 제형으로 WHO에서 승인된 ‘유비콜-플러스’ 제품이다. 이번 선적 물량은 지난해 12월 말에 유니세프로부터 구매 요청을 받았으나, 연발에 항공편을 확보하지 못해 지연 출하되는 것이다. 올해로 미뤄진 유니세프 구매물량 500만 도스의 절반 정도가 조기에 해소되는 것으로 올해 1분기 실적에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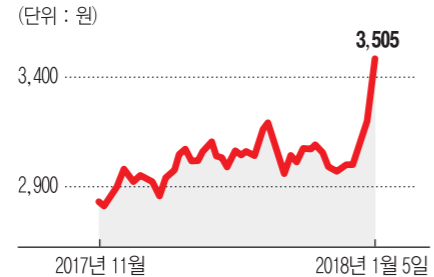
신규 플라스틱 튜브제형은 빌게이츠 재단 등과의 계약에 따라 기존 바이알 제품보다 공급가는 0.4달러 낮았다. 바이알 충전공정의 위탁제조 없이 원액부터 완제품까지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아진다.
유바이오로직스는 “바이알 제품에 비해 무게와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서 백신 접종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수출포장, 보관, 수송이 매우 쉬워져 여러 국제기구로부터 환영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4일 WHO 내의 GTFC(Global Task Force of Cholera Control)는 국제구호단체 및 파트너들을 소집한 총회를 통해 2030년까지 콜레라 퇴치를

위한 로드맵인 ‘Ending Cholera 2030’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 콜레라의 발병률이 높은 47개국 등을 대상으로 경구용 콜레라 백신(OCV)의 공동 대응 전략을 통해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을 현재 대비 90%까지 줄이고, 20여 개국에서는 콜레라에 대한 위협성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경구용 콜레라 백신의 사용량은 2018년, 2019년 및 2020년에 각각 4400만 도스, 5900만 도스 및 7600만 도스가 필요할 것으로 세계백신연맹연합(GAVI)은 예상하고 있다.
최석근 유바이오로직스 부사장은 “중남 아프리카의 저개발국가 중에는 내전 및 자연재해 발생이 빈발해 콜레라 등의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환경이라서 WHO 등 국제기구와 함께 콜레라 퇴치를 위한 프로그램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며 “수송, 보관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복용하기에도 용이한 ‘유비콜-플러스’ 제품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케이엘넷, 삼성SDS와 블록체인 컨소시엄

내달부터 화물 유통 관리 적용
자체 플랫폼 개발 시범 계획도

케이엘넷 추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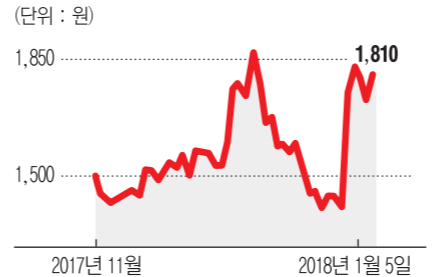
케이엘넷이 삼성SDS 블록체인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과의 컨소시엄 이외에도 케이엘넷은 자체적인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 적용도 할 계획이다.
8일 케이엘넷 관계자는 “삼성SDS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라며 “1차적으로 개념검증(POC) 및 물류관련 업무 화면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SDS 컨소시엄과 별도로 올해 자체적인 블록체인 플랫폼도 구축해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삼성SDS는 케이엘넷을 비롯한 관세청,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현대상선, 한국IBM 등과 함께 ‘해운 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발족했다.
내달부터 블록체인을 수출입 화물 유통 이력 등 물동량 관리에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거래장부로도 불리는 블록체인

은 네트워크에서 거래 참여자들이 데이터를 검증·암호화해 분산된 원장에 보관하는 기술이다. 거래 당사자 모두가 거래 내역을 공유하고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각각의 장부를 대조하기 때문에 위·변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해운 관련 서류의 경우 내용 추가나 수정이 자주 발생하는데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문서의 수정 이력까지 볼 수 있다. 전자증권 및 신용장 발급과 같은 서류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위·변조 위험에서도 안전하다.
영국 바클레이즈은행이 블록체인을 물류에 시범 도입한 결과 신용장 거래 기간이 10일에서 4시간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설경진 기자 ski78@

바이온 ‘줄기세포 치료제’로 바이오 기업 도약

미래셀바이오 특허기술 실시권 취득
의료기기 개발기술·판권도 이전 받아

바이온 추가 추이



바이온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한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4일 바이온은 관계회사인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체 미래셀바이오의 주식 18만 주를 9억 원에 취득했다. 취득 후 바이온이 보유한 미래셀바이오의 주식은 총 104만8700주(지분율 15.97%)가 됐다.
바이온은 화장품 제조판매업 및 부자재 생산,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을 주요 사업으로 1983년 설립됐다. 코스닥 시장에는 1997년 입성했다. 최근에는 바이오 사업에 진출했다. 지난해 8월 이 회사는 미래셀바이오의 유상증자에 40억 원을 참여해 2대 주주에 올랐다.
이에 따라 바이온은 미래셀바이오가 보유한 줄기세포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취득했고, 추가로 줄기세포 관련 약물 및 의료기기 개발

에 관한 기술 및 판권을 이전받았다.
미래셀바이오는 바이온의 투자를 통해 GMP 인증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전임상이 끝난 신약에 대한 임상실험 등을 준비 중이다. 이 회사는 12년간 당뇨, 알츠하이머 등 세포치료와 신약 개발에 매진해온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약 10여 종에 달하는 ‘고효율 줄기세포 치료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 협력도 점차 강화하고 있다. 지난 28일 바이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증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도 기대하게 됐다. 연구소장에는 바이오 줄기세포를 확립한 김은영 미래셀바이오 대표가 맡았다. 남주현 기자 jooh@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8년 1월 8일, 08:00, KST)

코인명	가격	전일대비 등락	코인명	가격	전일대비 등락
비트코인캐시	4,009,000원	249,000원 (6.6%▲)	모넨로	632,700원	59,100원(10.3%▲)
리플	4,307원	240원 (5.9%▲)	비트코인골드	355,500원	21,600원 (6.5%▲)
라이트코인	429,150원	7,750원 (1.8%▲)	이더리움 클래식	54,730원	2,910원 (5.6%▲)
대시	1,831,700원	83,700원 (4.8%▲)	퀀텀	97,020원	-5,280원 (5.2%▼)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이투데이 Media는 브랜드다

절대!
Passion

다르다!
Difference

뛰어나다!
Premium

이투데이 미디어는 타 매체보다 앞서서 세상의 흐름을 읽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최선의 뉴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투데이 미디어 임직원은 항상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꿈꾸며, '빅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02)799-2600 구독문의 02)799-2684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일간 창간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마이라이프
2015년 1월 1일 창간

경제전문 연예뉴스
비즈엔터
2013년 10월 15일 오픈



첫걸음은
신호등은

I am your Energy다

쌓인 눈길에
발을 디딘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멋지게 자국 하나 남기려고

세상 모든 것은, 누군가의 에너지다

I am
your
Energy

